

# 어밀레鍾

劇 團 現代劇場·城寶樂劇隊  
咸世德 作 戲曲 〈어밀레鍾〉 五幕

## ▲ 人 物

惠 恭 王	新羅 第三十六代 王
滿 月 夫 人	母后, 攝政
詩 牟 那	왕의 누님
牟 羅 佐 紀 姬	日本遺新羅留學生
金 隱 居	執事部 侍中, 伊滄
金 邕 信	鑄鍾檢校使, 上大等 兼 兵部令
金 體 典	鑄鍾檢校副使, 侍郎
下 彌 忽	" 大博士
彌 鄒 忽	" 次博士
忠 封 桑	" 判官
一 梨 女	" 錄事
二 花 女	" 犧牲 바친 寡婦
范 知	唐王子
小 野 博 臣	大和 醫博士
智 照 大 師	
托 鉢 僧	
侍 衛 部 監	
守 門 將	
其他 徒弟, 鑄丁, 賦役 人夫, 宮女, 侍女, 文武百官, 都下의 男女老若	

▲年 代

惠恭王 六年 庚戌

唐 大曆 五年

日本稱德天皇神護景雲 二年, 距今 一一五六年 前

第一幕

新羅 京師 徐羅伐 (現 慶州) 市外에 흐르는 關川河邊에 假設한 鑄鍾工房. 높은 土屏에 圍繞되어 內部는 보이지 않으나 발다리, 사닥다리가 거미줄가치 위인 鎔爐의 一部가 土屏 위로 보인다. 工場 入口에 聖德大王神鍾造營成典이란 縣板과 檢校正副使를 비롯하여 鑄鍾에 從事하는 博士로부터 錄事에 이르기까지의 人名이 列記되어 있다.

場內에는 鐵屑, 木炭, 粘土, 모래 등이 四處에 山積해 있고 右邊으로 鑄鍾工房의 縣板과 門, 左邊엔 花籬로서 桃李花가 滿開했고, 그 뒤로 白沙場을 건너 關川이 흐른다. 江 건너로 豊沃한 平野가 뻗었고 秀麗한 小金剛의 山脈이 春三月 陽光에 조으는 듯. 멀리 奉德寺의 伽藍들.

孝成王이 開元 二十六年 戊寅에 奉德寺를 創建하여 父王이신 聖德王의 冥福을 빌때 아우님 景德王, 또한 巨鍾을 鑄造하여 父王의 仁德과 偉業을 넓히고저, 이 國家的 大業에 着手함이라. 이에 相應한 敬虔하고도 莊嚴한 序曲에 幕이 오른다.

이어서 鑄丁들의 풀무질하며 부르는 노래소리와 캉-캉-하고 河邊의 靜寂을 깨트리는, 쇠 다루는 소리 등.

鑄丁 三 四人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지개로 물을 길어 들고 들어간다.

工場 內에서 大博士의 대를 짜개는 듯한 指令소리 들린다. 大博士의 소리. 취홀이, 탈출구멍을 막아라.

鄒忽의 소리. 네

大博士의 소리. 판관, 빨리 물을 끼얹어 앓구 뒷들 보구 섰는 거야.

씩씩 하고 물을 끼얹는 소리.

鑄鍾檢校副使인 젊은 將軍 金體信이 錄事와 함께 事務室에서 뛰어나와 焦燥와 不安 가운데 喜報를 기다리는 양, 場內를 왔다갔다한다.

灼熱한 쇠가 식는 소리. 문틈으로 蒸氣가 자욱이 나온다.

次博士 彌鄒忽, 場內에서 황급히 달려 나온다. 清秀한 眉目 속에 不撓不屈의 意志가 숨었다. 어딘지 모르게 흐르는 貴品은 職業과는 一距離를 가졌다.

彌鄒忽 (激하여 副使 앞에 엎드리며) 부사님, 종이 울지를 않습니다.

副使 무어? 이번에도

彌鄒忽 조금도 맑은 소리가 아니 나고 질그릇을 두다리는 듯한 탁한 소리가 납니다.

副使 혹 금이 간 곳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彌鄒忽 금 간 곳이라곤 한 군데도 없고 종명(鍾銘)도 한 자 뭉그러지지 않고 똑똑이 나왔습니다.

錄事 그 기-ㄴ 종명이 한 자도?

彌鄒忽 네, 저번에 잘 로출이 안됐던 룡의 부조도 비가 쏟아지면 하늘로 꼬리를 치고 올라갈 듯 뚜렷이 나왔고 관세음이 향로를 들고 승천하는 상도 선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리많은 워 그러케 탁한지 주석과 구리로 만든 종에서 질그릇 소리가 난다는 것은 도모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副使 쇠를 끄릴 때 잡물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彌鄒忽 원료의 배합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副使 이게 어찌된 노릇일꼬? (錄事에게) 빨리 검교사님께 이 일을 전해라.

彌鄒忽 얼마나 실망을 하실가요?

錄事 급히 나간다.

副使 대박사께선?

彌鄒忽 스승님께선 거진 실성하시다싶히 되셨습니다. 옆에 놓였던 칼을 집어드시고 죽음으로써 상감마마와 검교사님께 사죄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지금 모두들 붓들고 있습니다.

이 때 工場 안에서 下典의 「뇌라, 나를 붓들지 마라」 하는 怒號와 「스승님, 한 번만 더 해 보시지요」, 「스승님, 이 칼 놓으십시오」 하는 弟子와 鑄丁들의 떨리는 소리 들려온다. 金體信 안으로 달려간다. 아주 蓬髮垢顏에 눈 많이 炯炯이 번뜩이는 下典 칼을 든 채 나온다. 弟子들과 鑄丁들이 四方에서 붓들으므로 自由를 잃고 몸부림친다.

副使 대박사, 그 칼 노시오.

下典 부사님, 이 버러지 같은 위인을 죽게 해 주십시오.

副使 (칼을 빼앗아 멀리 내던지며) 대박사가 죽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오.

下典 오 년, 긴 세월을 종 하나를 부ట్고 씨름하다가 오늘 또 실패를 했사오니, 살어서 무슨 면목으로 상감마마를 뵈옵겠습니까. 내 기술이 이러케도 미숙하던가? (嘯啼)

副使 미숙한 기술이라니 당치 않은 말이오. 신라 팔백팔십팔 사의 대소수천의 범종이 거개가 박사와 박사의 제자들이 맨든 것이 아니오.

下典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면 어떻게 종 하나에 여섯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겠습니까. 부사님!

副使 아마도 검님이 시기하시기에 그러치 그럴 수가 있슬라우……. 그러치만 박사, 이 종은 여섯 번이 아니라 백 번을 다시 하드라도 기어쿠 맨들어 봐야 하오.

彌鄒忽 검교사님께서 들어 주실는지요?

副使 지금 복사가 갔으니, 곧 말을 달려오실 께요. 보나 안보나 그 성미에 가만이 계시지는 않을 께요. 그러나 무슨 노연 말씀을 하시드래도 꼭 참으시오. 대업을 완성해야지오.

副使 工場 안으로 들어간다.

이윽고 멀리서 疾走해 오는 馬蹄소리.

彌鄒忽 스승님, 검교사님이 오십니다.

馬蹄소리 가까에서 툅 끄친다. 이어서 錄事를 앞세우고 上大等 兼 兵部令인 檢校正使 金龜 들어온다. 下典 以下 弟子들, 鑄丁들, 下手로 옆데인다.

金 甌 (秋霜같이) 이번엔 질그릇 깨치는 소리가 난다지?

下 典 ……

金 甌 종 하나를 가지고 오 년을 끌며 여섯 번 다시 맨들어도 질그릇 소리밖에 안 난다는 것은 검교사 이 김용의 치욕 뿐 아니라 천만 년 후까지 우리 신라의 루명이야.

下 典 ……

金 甌 더구나 이 종으로 말하면 선왕의兄남이신 효성대왕(孝成大王)께서 개원(開元) 二十六年에 부왕이신 성덕대왕(成德大王)을 위하시와 봉덕사를 창건하심에 있어 아우님은 종을 맨들어 바칠려고 이 일을 시작하옵신 것은 다들 알겠지. 그러나 못 보신 채 승하하셨으므로 아든임이신 금상계옵서 부왕의 뜻을 받드시어 계승하신 일이야. 금상께서는 등극하신 지 四年 춘추 겨우 십사 세이시지만 호심이 지극하시어 이 일에 여간 신경을 태우시는 것이 안이야. 전번에 실패해쓸 때도 닷새 동안이나 수라를 물니치시고 침전문을 다드시고 조회도 안이 바드시였는데 또 실패를 했다고 내가 어쩌케 아뢰겠는야. 박사, 지난 겨울에 한 번만 더 맡겨주면 기어코 극성해 노케다든 것이 이 풀이야.

副使 工場에서 나온다.

副 使 도무지 해괴한 일입니다. 한 곳 닷 할 때 없이 깨끗이 부어졌는데 종소리 탁하게 나니…… 이건 반듯이 검님께서 노하신 게지 박사의 미숙한 탓은 안인가 생각됩니다.

金 甌 (서리같이) 금손이 박사를 두던할 괴로는 없어.

金甌 工場을 되려다 보지도 않고 나간다.

副 使 (錄事에게) 어디로 가시나 바라.

錄 事 (밖을 내다보며) 봉덕사로 가십니다.

彌 鄒 忽 거긴 왜 가실까요?

副 使 이 종을 만드는 것이 성덕대왕 령전에 바칠려는 게 아니요? 아마 실패한 것을 령전에 사하러 가시는 게지요. 자-이러구 섰으면 무

얼 하겠소. 들어가서 어데서 틀려졌나 다시 한 번 샅샅이 보시오.

下典 絶望 속에 넋잃은 사람처럼 허청허청 工場으로 드러간다. 弟子와 鑄丁들 뒤따른다. 이 때 疾走해 오는 馬蹄 소리.

副 使 누굴꼬?

錄 事 (馬蹄 소리 나는 곳을 凝視하드니) 시위부감(侍衛部監)인가 봅시다. 상감마마께서 거동합신다는 전교는 아닐까요.

副 使 글썸……

錄事 執務房으로 들어가 비를 들고 나와 掃除한다. 馬蹄 소리 門 앞에서 끊이고 試衛部監 들어온다.

試衛部監 상감마마 거동이시오.

副 使 뢰부(鹵簿)로 행행이시오?

試衛部監 미행이시니 번거로우게 하지 말라는 분부시오.

副 使 고마우셔라. 곧 퇴실 차비를 하겠소.

試衛部監 특히 오날은 태후마마께서도 단 한 분이신 따님 시무나 공주마마와 大和國의 碩學 吉備眞備[キビノマビ]의 따님으로 우리나라에 留學生으로 오신 ムラサキ姫[ヒメ]를 더리시고 동행하신다 하오니 만사에 소홀이 없도록 하시라는 집사부 시중의 말씀이요.

副 使 만사에 소홀이 없도록?

部 監 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여 들 것은…….

副 使 (약간 不快하야) 명심?

部 監 (我不關焉이라는 듯이) 네, 시중 김은거 어른께서는 본직에게 꼭 그러케 분부하셨소. 공주마마께서 올해까지 十六年——(손꼽아 보더니) 아니 十七年——(未審하므로 鑄事에게) 공주께서 올해 몇이시오?

錄 事 (웃으며) 十八세시오.

試衛部監 (若干 威嚴을 損했으나 다시 尊大하게) 十八년 만에 궁중 밖을 처음으로 나오시는 것이니 한 가지라도 추하고 괴상한 것을 보

시지 않도록 거듭 주의하라는 분부시오.

試衛部監 傳할 말만 傳하고는 나간다.

錄事 (분개하야) 시중이 신하로 최고의 벼슬이신 상대등 겸 병부령으로 일국의 군사와 정사를 한 몸에 맡으신 대각간 우리 검교사님께 만사에 소홀이 없도록이라니——특히 명심해둘 것은 이라니 하는 언사를 쓰시니 제가 듣기에도 민망하고 화가 납니다.

副使 웬체가 남을 갈가잡아 말하길 좋아하는 분인데다가 당나라에 2년간 숙위하고 오시드니 이제는 안하무인이란 말이야.——벼슬이야 상대등께서 우이시지만 시중은 금상의 외속이시니 조정의 권세는 각간께서도 누를 수 없으시지. 그건 그러커니와 빨리 봉덕사에 가서 상대등께 거동하신다는 전갈을 아뢰어라.

錄事 밖으로 나간다.

副使 (工場안을 向하야) 상감마마 거동이시다. 빨리 나와 장내를 소제들 해라.

副使 迎接次 밖으로 나간다. 彌鄒忽과 徒弟, 鑄工들 나와 掃除한다.

鑄丁一 정말 벼락이 나리나 보군.

鑄丁二 벼락이 내려도 떠나시는 공주마마의 얼굴을 한 번 뵈옵고 죽는 것은 한이 없어.

徒弟 공주님이 어데로 떠나십니까?

鑄丁一 오는 춘삼월 당나라 황자(皇子)님께로 시집을 가신다오.

徒弟 시집을요?

鑄丁二 아 선부(船府)에서 가마 대신 공주님이 타고 가실 견당선(遣唐船)을 만드느라고 주여겸행이란 말두 못 들었남.

徒弟 그럼 정혼은 벌써 됐군요?

鑄丁二 지난 달 창부랑중(倉部郎中) 귀송경(歸崇敬)이가 상감마마와 태후마마의 책봉을 바치려 왔을 때 아주 결정하셨대.

『쉬-거동이시오』 소리가 누구의 입에선지 나오자 一同 左右로 부복한  
다. 副使, 惠恭王, 滿月夫人, 公主 들어온다. 뒤이어 金隱居와 ムラサキ姫.

惠恭王 이번에는 소리가 맑지가 못하다지.

副使 (엎데인 채) 공구하오이다.

惠恭王 정녕 무슨 마가 붙은 거야.

滿月夫人 소리가 아주 못 쓰겠소?

副使 그렇소이다.

詩牟那 들어가 보아도 관찬오오.

副使 네.

詩牟那와 ムラサキ姫, 工場 안으로 들어간다.

滿月夫人 그래 상대등께선 어떡하실 작정이라 하오?

副使 아즉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 때 金甌 황급히 달려와 부복한다.

金甌 황공하옵게도 상감마마의 행행을 봉영치 못하와 공구무비하오이  
다.

滿月夫人 상대등 이 일을 어떡했으면 좋겠소.

金甌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최후로 한번만 더 시켜 보고 싶소이  
다.

金隱居 (屹然히 金甌을 쏘아보며) 이 이상 더 작업을 계속했다간 국고  
가 말려 황송하옵게도 궁중의 비용까지 궁궐을 늦기게 될까 하  
오.

惠恭王 그렇다고 부왕께서 짐에게 유언하시고 승하하신 일을 자식의 도  
리로 폐할 수 있겠소?

金隱居 신은 황공하옵게 선대왕의 뜻을 여기서어 중지하십사고 아뢰인  
것이 아니옵고 좋은 국력을 기우리더라도 다시 맨드옵되 주종  
대박사 下典(하전) 이하 전부 갱철하심이 어떨가 하오.

滿月夫人 (副使에게) 경사에 우수한 주공이 또 누가 있노?

副 使 분황사(芬皇寺)의 종을 만든 소공(蘇工), 백률사(栢栗寺)의 약사여래(藥師如來)를 만든 백서장(白徐匠)이 있사오나, 하전에 비하오면 그의 제자들보다도 기술이 떠러지웁고 그 외에는 가마솥이나 유기를 만드는 장인들 뿐이오이다.

金 邕 하전이 못한 일을 해낼 사람은 없소이다.

金 隱居 하필 우수치 못한 신라의 주공만을 구할 필요가 어데 있다 하오.

滿月夫人 그럼 당나라에서 초빙하자는 말씀이오.

金 隱居 그럿소이다. 내가 숙위왕자(宿衛王子)로 당나라에 류할 때 도기공을 갱철하시라 하고 몇 번이나 상주했었소?

金 邕 그것은 선대왕의 뜻이 아닌가 하오.

金 隱居 상대등의 국수사상에 참으로 두통이오. 신라의 전통과 고유만 찾지만 무엇이 전통이며 어데가 고유한 것이오? 로자와 공맹의 도가 들어와 비로소 학문이란 게 생겼고 불교가 수입됨에 딸어 건축공예가 발달해 나가지 않았소? 문물이 그러했고, 제도가 그러했고, 허다 못해 사원의 건축으로부터 룡묘의 벽화까지가 대국의 것을 모방하지 않음이 없거늘 전통은 뭐고 고유란 도대체 뭇이오. 당나라에는 능난한 기공이 부지기수요.

金 邕 석굴암의 석불과, 불국사의 석교 석탑을 비롯하여 서라벌 八百八十八사의 종과 탑이 무비 우리나라 기공의 손으로 훌륭히 이뤄졌거늘 이제 새삼스럽게 당나라에서 사람을 초빙한다는 건 신라의 위신에도 관계될 줄 아오.

滿月夫人 그러치만 실제에 있어 여섯 번째나 실패를 겪지 않았소? 나는 섭정으로 명령하오. 폐일언하고 당장 주종사를 파면하오.

金 邕 …….

滿月夫人 상대등이 말하지 않겠거든 섭정이 손소 하겠소. 박사를 이리 부르게 하오.

이 때 工房 뒷결에서 가느단 女子의 悲鳴. 一同 소리 나는 곳을 凝視한다. 『누구 없어요』, 『이리 와 보세요』 等等. 이윽고 公主와, ムラサキ姫 恐怖에 질린 얼굴로 들어온다.

詩 牟那 누가 강가에서 배를 갈르고 죽었어요.

彌鄒忽 이 때 自己들 下手에 부족한 사람 중에 스승이 없음을 알자 不吉한 豫感에 쫓기어 惶급히 工房 밖으로 달려간다. 멀리서 『스승님』, 『스승님』 찾는 소리가 점점 떨어져간다. 이윽고 『스승님』 하고 통곡하는 嗚咽소리. 金崧, 副使, 徒弟들 一齊히 달려간다.

詩 牟那 (恐怖에 떨며) 어마마마  
滿月夫人 아가 진정해라.

金崧과 副使 초然히 들어온다. 뒤따라 彌鄒忽.

金崧 박사가 자결을 해버렸소.

副使 아까 실패한 줄 알자 곧 배를 갈러 상감마마와 섭정마마께 사죄하  
겠다는 것을 억지로 말려 냈었습니다.

彌鄒忽 스승님은 상감마마께 바친 유서 한 장을 남겨놓으시고 그만——

惠恭王 (童心の 純情 속에) 빨리 읽어봐라. 무어라고 했나.

彌鄒忽 (遺書를 읽는다.)

대죄인 하전 황감하옵게도 상감마마의 홍은을 받자와 신중주조  
의 대임을 배하고 도제들과 더부러 뼈를 갈고 살을 이기되 하해  
같은 홍은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코져 하였사옵나. 그러하오  
되 원래가 재능이 없고 기술이 미숙하와 五年 긴 세월에 여섯 번  
다시 붓는 진무후무의 실패를 거듭하여 국고를 말리고 성상의 신  
금을 태우시게 함은 백번 죽어 마땅하온 줄 아옵나. 천신 하전  
여덟 살에 아버를 따라 당나라에 들어가 이십 년간 주종술을 배  
우고 귀국하여 일로 기술의 연마에 삼십여 년을 보냈사오나, 자신  
을 잃은 이제 일루의 희망도 가질 수 없사오매 이에 지옥길을 찾  
아가옵나.

戊申 三月 鑄鍾大博士 大奈麻 下典

滿月夫人 (눈물을 닦으시며) 가엾서라.

惠恭王 황룡사의 四十八萬근 거종을 삼 개월만에 극성해 놓았다는 그가  
.....

彌鄒忽 (부복하며) 상감마마께 아뢰옵나. 이 대업을 소신에게 한 번

만 더 맡겨 주옵소서. 살을 이기고 골을 바시되 반듯이 성공하여 스승의 이 원통한 죽음을 위로해 드리고저 하옵니다.

金隱居 사제지간의 미덕을 위하여 국가대업을 소홀이 맡길 수는 없어.  
彌鄒忽 이대로 저이가 공방을 물러간다면 스승님의 령혼은 너무나 불상치 아니하옵니까.

金隱居 (攝政에게) 신라는 당나라의 번속국(藩屬國)이오. 주공을 대국에서 초빙하는 것은 이 대업의 완성을 촉진할 뿐더러 당황제의 신애를 더 한층 사게 되는 것이오니 일석이조가 아니오?

滿月夫人 ……

彌鄒忽 섭정마마 당나라 주공의 손으로는 선대왕께서 바라신 신비한 종 소리는 절대로 못 낼 것이외다.

金隱居 무어렀다?

彌鄒忽 스승님도 당나라엔 二十년 계셨고 소신도 여러 해 동안 아진(阿眞)이란 장안 제일의 명공에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하오되 지금 이 공방의 설비는 조금도 당나라의 공방을 본뜬 것이 아니옵고, 주종하는 방법도 스승님과 저의 창안으로 된 것입니다.

金隱居 달르긴 무엇이 달라?

彌鄒忽 시험삼아 대조해 보소서. 소리에 있어 당나라의 종은 그 지세처럼 황막하고 단조하고 또 외형도선이 미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한 번 치면 화랑의 피를 끓게 할 웅장한 소리가 나고, 두 번 치면 성대에 만세를 부르는 백성의 평화한 노래 소리가 나고, 세 번 치면 어린애 잠을 재울 수 있는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혼연이 섞여나올 종을 족속이 다른 당나라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 強烈한 熱情의 思想에 詩牟那와 ムラサキ姫는 서로 感激하고 共鳴했다. 金崙은 저욕이 滿足한 듯.

金隱居 대국과 친교를 깊이 할려는 것은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신라의 근본국책이야.

詩牟那 (한 거름 앞으로 나오며) 국책의 희생은 나 하나로서 충분할 줄 아오.

金隱居 회생?

詩牟那 시중께선 내가 당황실에 출가만 하면 신라의 사직은 반석같이  
될거라 하였지요. 나는 시중과 중신들의 말대로 신라의 종사를  
무공케 하고저 혼인을 쾌히 승락했었습니다. 이 우에 또 당나라  
에 아첨할 필요가 어데 있으며 환심을 살려고 할 이유가 어데  
있습니까.

金隱居 혼약과 주공 초빙이 무슨 관계요?

詩牟那 어서 기공을 초빙해서 친교를 띠 하십시오. 그러면 시무나가 타  
국으로 시집갈 필요는 없으니까. (나가 버린다)

滿月夫人 아가 아가…… 저 애가……(金邕에게) 저 젊은이에게 다시 한  
번 시켜보시오.

金邕 공구하오이다.

一同 安堵. 彌鄒忽의 高調된 興奮과 試中의 못마땅한 얼굴.

—幕—

## 第二幕

惠恭王 六年 庚戌 五月

神鍾鑄造成典 執務室

聖德大王 神鍾鑄造成典이란 懸板. 文匣, 冊匣, 椅子, 卓子, 鍾模型, 花瓶  
等 適當이. 壁에는 鑄鍾設計圖. 마루 뒤로 倉庫가 보인다. 左邊에 鑰器를  
넣은 가마니(叭)가 山積해 있다. 뜰에는 芍藥, 牡丹, 石竹等 五月의 花園.

判官 忠封과 錄事 一桑 再鑄 資材 見積書를 부르고 받아들고 한다.

判官 一, 熟銅 十二萬斤 (부른다)

錄事 一, 숙동 십이만 근 (받아 적는다)

判官 一, 純金 二千斤

一, 주석 五百斤

一, 亞鉛 百斤

- 一, 粘土 五百石
- 一, 砂土 三百石
- 一, 角材 五百本
- 一, 扁材 三百枚
- 一, 檀木炭 四千俵

錄事 경을 칠 웨 해필 박달나무술이야?

判官 참나무나 밤나무는 화력이 여러 못쓴다네.

錄事 대관절 적기는 적지만 구리가 十二万 근이나 있을까요?

判官 그러게 전국에서 모으고 있지 않나. 사기를 사용하고 유기는 국가에 바치자는 방을 고을마다 부쳤으니까, 상당한 헌납이 있겠지.

錄事 주석을 넣야만 소리가 난다 하니, 이번엔 좀 많이 넣면 될 게 아닙니까.

判官 그러면 속이 깨지기가 쉽다오. 박사께서 어린이 잘 배합하실라구.

錄事 그러게 배합을 잘 하시어서 또 실패를 하셨군요?

判官 시중 말씀대로 당나라에서 명공을 초빙하면 단번에 되는 것을—

錄事 풀에다 눈은 높고 교만해서 당나라 사람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큰소리 탕탕 하지 않았습니까?

判官 이번 실패야 전번처럼 종이 깨지거나, 소리가 안나거나 했나 어디? 중명에 쥐며누리 죽은 게 끼어서 글자 한 자가 몽그러져서 그랬지.

錄事 한 자 썸 몽그러지면 어때요?

判官 쉬, 검교사님 들으시면 단박에 파직일세.

이 때 馬蹄소리와 車輪소리 뒤에서 停止한다. 試衛部監 들어온다.

試衛部監 공주마마의 행차이시오.

判官 執務室 本館 쪽으로 급히 나간다. 이윽고 副使와 가치 나온다. 一同 부복한다. 公主와 ムラサキ姫 들어온다. 뒤따러 試女들.

詩 牟 那 유기가 더러 모였지요?

副 使 염려해주신 보람으로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가며 헌납해 옵니

다. 저-기 쌓인 섬들이 모두 유깁니다.

ムラサキ 상당히 많이 모였군요.

詩 牟那 화랑의 소년들이 술선해서 전국에 유기현납운동을 이룩했다

副 使 양푼, 대야, 식기로부터 숟가락, 젓가락까지 공양(供養)을 합니다.

詩 牟那 도사들도 일제히 동양을 나갔다지요.

副 使 네, 봉덕사 지조승님께서 주장이 돼가지고 장안 팔백팔십팔 사의 도사들이 총출동을 해서 전국으로 탁발(托鉢)을 나갔습니다. 아마 오늘쯤 귀경들 할 것입니다.

詩 牟那 우리도 메점 가지고 왔지요.

副 使 공주마마께서요?

詩 牟那 네, ムラサキ姫[ヒメ]하구 들어서 궁내에서 쓰는 것을 봤지요. 한 二百 점 될가말까, 하지만—(侍女들에게) 이리 날러라.

副使, 判官, 錄事와 試女들 鑰器가 들은 布袋를 倉庫로 날른다.

ムラサキ 이번엔 실패치 않으실까요?

詩 牟那 그럼.

ムラサキ 그러케 공주님이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호호호—

詩 牟那 자결한 스승의 원한을 풀어줄려는 그 가혹한 마음도 믿엄직하거니와 신라의 전통 우에 고유한 문화를 쌓으려는 식견과 함께 기술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신뢰해도 괜찮지 않겠어?

ムラサキ 공주님은 박사님의 절때 지지자시어! 호호호—

詩 牟那 (변명하며) 그, 그렇게 아니구—

錄事, 倉庫에서 나와 獻納帳에 記入한다. 副使, 判官도 나온다.

錄事 感謝狀을 公主에게 드린다.

詩 牟那 (받으며) 이게 무어요?

副 使 헌납해 주신 감사장입니다.

詩 牟那 (종이를 말며) 박사는?

副 使 토형(土型)에다 관세음이 승천하는 그림을 새기고 있습니다.

ムラサキ 우리 가서 좀 구경할가요.

詩牟那 일하는 데 방해되지 않겠어? 도사들이 왔는가 절에 나가봅시다.  
히사바든 것 구경도 할 겐.

ムラサキ 公主님의 청이시라면.

兩人 微笑하고 나간다. 試衛部監 뒤따르고 副使 전송次로 나간다.

錄事 저거 좀 보십쇼. 공주님과 부사님이 나란이 서서 가시니까 아주 어울리는데요.

判官 참 실라 천지에 미남호걸이 많다 해도 공주님 부마 될 만한 사람은 저 김체신 장군밖에 없지 없어.

錄事 그런데 왜 당황실(唐皇室)하고 정혼을 하셨을까요?

判官 돌아가신 선대왕께서는 부사님을 부마로 삼을라구 하셨대.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까? 이 번 일은 순전이 김시중이 우기셔서 하신 일이야.

錄事 그래서 요새 부사님 안색이 조차 안으시군요.

判官 국책상 궁중에서 하신 일이니까 부사님으로선 물려서서 바라다보시는 수밖에 없게 됐지. (人氣척이 나므로) 쉬—

副使 들어온다. 牧丹을 한 송이 꺾어香氣를 맞는다. 興味が 없는지 내버린다. 이때 金甌 들어온다. 一同 절한다.

判官 자재 예산서(資材豫算書)에 서결(署決)을!

金甌 檢分한 後 署名하고 捺印한다. 判官, 錄事 見積를 들고 나간다.

金甌 그래두 구리가 모자라지 ?

副使 루계(累計)가 三万五千근밖에 안됩니다.

金甌 당나라에서는 운반이 어렵고 해서 가까운 일본 태재부(太宰府)에 금을 가지고 가서 교환해 오기로 했어.

副使 그것 잘됐습니다. 태재부에서도 종에다 쓸 구리라면 기뻐하고 바뀐 줄것입니다.

金 甝 사람은 자네가 그 중 적임이지만 역사에 지장이 있을 테니 안되겠군—그래서 급손 김초정(金初正)이를 보내기로 했어.

副 使 적임입니다.

金 甝 가서 급손한테 이 이악이를 하고 밤에 우리집으로 좀 나오라고 하게.

副 使 네.

副使 밖으로 나간다. 말울음소리 馬蹄소리 멀—니 사라진다.

奉德寺 住持 智照大師 들어온다. 布囊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巡禮의 行裝.

金 甝 (반가이 맞으며) 아니 언제 오셨소?

智照大師 지금 막 서울에 다온 길ियो.

金 甝 떠나신 지 벌써 한달 쯤 되겠군요.

智照大師 四十일이나 된답니다.

金 甝 그래 히사는 많이 얻으셨소?

智照大師 가는 곳마다 유기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대문을 드러서기가 무섭게 내줍디다.

金 甝 그게 다 승님의 덕이 높으신 까닭ियो.

大 師 천만에요. 그것은 그러코 기실은 지금 沙梁部 덕으로 갔다가 안게서서 이리로 오는 길ियो.

金 甝 무슨 긴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大 師 네, 그 전자에 우리가 의논한 어린애 히생을 바칠 이악이는 아희를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또 궁중과 중신들의 의향도 어떨지를 몰라서 그냥 있었지만—

金 甝 궁중과, 중신들의 내락은 그동안 받았지요.

大 師 그러면 잘 됐군요. 지금 이 국가의 난사를 걱정하고 자기 딸을 바치겠다는 가릇한 여인이 있소.

金 甝 그게 사실이요.

智照大師 네, 그래서 덕으로 갔었지요. 우리절 도사가 동량을 얻으러 갔다가 그런 여인을 만났다 하오.

金 甝 그럼 그 도사를 좀 부를 수 없을까요.

大 師 아주 더리고 왔소. (밖을 向하야) 圓覺이 거기 있느냐? 이리 들어 오너라.

托鉢僧 들어온다. 교갈을 쓰고 목에 念珠를 걸고 꿩매기를 드렸다.

金 鬘 가까이 오너라

托鉢僧 네!

金 鬘 어린애를 주겠다고 사람이 있디지?

托鉢僧 네.

金 鬘 어데 사는 사람인데?

托鉢僧 명활산(名活山) 밑에 사는 안악네입니다.

金 鬘 남편은 뭘하는 사람인데?

托鉢僧 동리 사람들 말이 선부대사(船府大舍)로 직사를 모시고 당나라로 가다가 파선하야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집 안팎으로 배나무를 쪽심어 삼월이면 동내가 환할 만치 배꽃이 핏으로 李花女라고 부른다 합니다.

金 鬘 어린애가 많은?

托鉢僧 무남독녀라 합니다.

金 鬘 그래 어린애를 주겠다고?

托鉢僧 소승이 문간에서 동량을 청한 즉 늦그릇이라곤 한 점도 없구 또 쌀 한 수갈도 되릴 것이 없으니 어린애나 되릴까요! 하기에 어린애 데려다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고 그대로 나왔읍니다.

이 때 金體信의 말이 문간에 와 停止한 소리. 副使 들어온다.

副 使 다녀왔읍니다.

金 鬘 그래 급손이 뭐라든고?

副 使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하야 대임을 봉행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밤에 댁으로 가서 듣기로 하고 그동안 곧 떠날 차비를 해 놓라고 했읍니다.

金 鬘 그건 그러기로 하고 지금 아이를 내놓겠다고 여인이 있대!

副 使 박사는 어린애 희생 바치는 것을 반대하든대요.

金 甝 반대라니 그럴 수가 있나. 하여튼 자넨 관관보고 곳 이 도사를 딸  
어가서 그 어린앨 더리고 오라고 하게.

副 使 네.

金 甝 애 어머니가 섭섭치 않도록 화려한 가마와 새 옷을 준비해 가지고  
가라고 하게. 그리고 악부(樂部)에 말해서 행렬에 풍악을 울리도  
록 하고.

副 使 네.

金 甝 그리구 자넨 이길로 예궐하야 궁중에 이 말씀을 아뢰게. 그러고  
전사서(典祀署)에 들러서 신궁에 제사 준비를 하도록 일노고 난  
어린애가 오는 대로 곧 더리고 갈 터이니.

副 使 네.

金 甝 나가는 길에 박사를 좀 오라게.

副 使 네.

副使, 托鉢僧 나간다.

智照大師 각간어른 박사가 끝끝내 반대하면 어떡하오.

金 甝 염려마시오. 박사가 반대한다고 히생을 못 바치겠소.

彌鄒忽 들어와 절한다.

金 甝 (威嚴을 도두어) 지금 어린애를 바치겠다는 여인이 있어 관관이  
아희를 더러워 갔으니 래일 아츰 신궁에 제사를 드린 후 구리를  
끄릴 때에 가마에 넣도록 해라.

彌鄒忽 (斷乎히) 그건 안됩니다.

金 甝 (怒氣를 띠어) 뭐랴다? 그건 안된다구?

彌鄒忽 네 어린애 생령은 바칠 수 없습니다.

金 甝 어째서 못 바치겠다는 거냐?

彌鄒忽 바쳐야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 리치에 닿치 않는 미신으로  
말미암아 삼감마마의 적자인 한 사람의 생령을 희생시킬 수는 없  
습니다.

金 甝 미신이라구? 그러케 리치를 잘 아는대 왜 실패를 헛노? 왜 실패는

했어? 못 하겠다면 사람을 바꾸면 그만이야. 신라 천지에 주종  
사가 너밖에 없어? 미취홀이밖에 없어?

智照大師 각각어른 진정하시오.

金 鬮 (나가며) 난 이 길로 절에 가서 선대왕의 령전에 희생 바친다는  
말씀을 아뢰고 올 테야.

金鬮 나간다.

智照大師 박사, 희생을 바치는 것을 미신으로 생각지 마오. 그러케 되면  
돌과 구리로 만든 부처에게 죄를 사하고 영생불락을 기도하는  
것도 미신이 아니겠소.

彌 鄒 忽 ——

智照大師 검교사님겐 내가 가서 잘 말씀 여쭙겠소. 단순한 생각을 떠나  
잘 생각해 보시오.

智照大師 金鬮를 쫓아 나간다.

彌鄒忽 (땅에 엎어져) 스승님 어떠케 했으면 조겠습니까? (느껴온다.)

詩牟那 들어온다.

詩牟那 박사님!

彌鄒忽 공주님, 저는 이 대임을 사임하고 당나라에 드러가서 몇해 더 공  
부를 하겠습니다.

詩牟那 지금 상대등께 이약이는 들었습니다. 그러치만 이제 와서 물러나  
시겠다는 건 안될 말씀입니다.

彌鄒忽 저는 도모지 자신을 잃어서 못하겠습니다. 몸부름 치면 몸부름 칠  
수록 실패만 거듭하게 됩니다. 더욱이 내 기술 부족으로 말미암어  
비겁하게 어린 아회를 희생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詩牟那 그럼 이 일을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彌鄒忽 당나라 기공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詩牟那 그러니 결국은 박사가 지셨군요.

彌鄒忽 ……

詩牟那 난 박사께서 그러케 의지가 박약한 줄은 몰랐습니다.

彌鄒忽 그러치만 어린애많은……

詩牟那 나도 그것은 허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러케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가 미치지 못할 더 큰 힘과 능력이 요구될 때, 어느 보이지 않는 크나큰 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요. 저도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이 생각돼요. 그것은 박사님 말씀 말맛다나 비겁한 짓일지 모르나 또한 가장 순수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彌鄒忽 ……

詩牟那 어린 아비를 넣다구 그 살과 뼈에서 소리가 울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대등께선들 모르시겠습니까? 신라 개국 이래로 굴지한 학자요, 정치가요, 병법가이시라는 상대등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다하다 못하시니까 근거도 없이 항간에 떠도는 이악이를 믿어보실려는 것일 줄 압니다.

彌鄒忽 ……

詩牟那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깨닫힌 희생입니다. 자기를 죽여 남의 행복을 빈다는 이 우에 더 깨끗한 일이 있을까요? 어린애의 영혼을 헛되이 양껏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시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彌鄒忽 공주님 정말로 반듯이 이루어질까요.

詩牟那 저는 그러케 믿습니다. 더욱이 박사는 천품의 재질을 타고나신 분이 아닙니까.

彌鄒忽 ……

詩牟那 (손에 끼얹든 가락지를 빼어 주며)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끼고 있던 가락지입니다. 구리를 끌릴 때 한대 너 주십시오.

이 때 金鰲山 종턱에 있는 神宮 쪽에서 북이 등등 운다. ムラサキ姫 「お姫さま」하고 부르며 들어온다. 詩牟那와 彌鄒忽이 가차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춤한다.

ムラサキ姫 (못본척하고) 공주님! 지금 울리는 북소리가 무슨 북소리에  
요?

詩牟那 신궁에 제사를 드린대요.

ムラサキ 제사라니 무슨 제사요?

詩牟那 종에다 어린애 생령을 희생하기로 됐대요.

ムラサキ 그럼 우리도 가서 구경하십시다.

ムラサキ姫, 詩牟那를 재촉해 가지고 나간다. 이 때 金鬘, 托鉢僧에게  
怒號하며 激憤해 가지고 들어온다.

金鬘 아—니 이제 와서 무슨 판소리야?

托鉢僧 글세올시다. 어린애 절대로 못 내놓겠다니 이를 어쩍니까?

金鬘 그래 어째서 못 바치겠다드냐.

托鉢僧 먼점 소승한테 이약이할 때 어린애가 하도 우려싸서 구찬케 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다 합니다.

金鬘 그럼 농담으로 그랬단 말이야?

托鉢僧 농담이야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다 합니다.

金鬘 일국의 역사를 우습게 엮여도 유만부동이지 그런 경술한 여인이  
어데 있어?

托鉢僧 관관계서 어린애 가마에 태우시니까 가마문애가 매달려서 그 앨  
더리고 갈라거든 나를 죽이고 더리고 가라고 펄펄 뛰고 야단입니  
다.

金鬘 벌써 궁중엔 상주를 하였고 신궁에서도 제물을 바칠 준비가 다 됐  
어. 그뿐인가 선대왕의 령전에도 어린애를 바쳐서 주조한다는 것  
을 지금 아뢰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어. 빨리 가서 끌고  
오느라.

이 때 가마꾼들의 어—어—소리와 풍악소리가 들려온다. 어텐지 모르게  
哀韻이 섞였다. 가마가 문前に 다른 騷擾.

托鉢僧 기여쿠 더리고 오시나 봅니다.

判官 하-얀 옷을 입힌 어린 女兒를 더리고 들어 온다. 그 뒤에 울면서 따라온 李花女. 清楚하고 貴品이 흐른은 二十五六세의 寡婦다.

李花女 (金鬮에게) 어린애 돌려보내 주십시오. 어린애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金 鬮 울지마오. 이 나라의 크나 큰 행복을 위하여 히생이 필요하다오.

李花女 하늘 때에 자식이라곤 저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자식 가진 사람이 이 나밖에 없겠습니까? 오남매, 룡남매 식 가진 사람이 허다한데 왜 해필 저것을 데려가십니까.

金 鬮 많은 어린애 중에 하나를 바친다는 건 진실한 제물이 못되오. 당신의 어린애로 우리나라의 이젓던 기쁨이 찾아올 수 있소. 그 대신 상감마마께 아뢰어 양미 오백 석을 하사하고 어린애 령혼은 종이 완성되면 효녀문을 세워 푸른 술밭에 영생토록 하여주겠소.

李花女 전 양미도, 효녀문도 싫습니다.

金 鬮 사내를 낳으면 어떡힐 뻔했소? 화랑에 넣어 호패를 채우고 나라를 막으러 보내지 않았을가? 백성의 목숨은 언제던지 상감마마와 나라에 바친 것이어늘 너무 애통치마라.

李花女 (諦念한 듯이 밖으로 나가다 彌鄒忽를 흘겨 보며) 당신이구료. 종을 일곱번이나 실패했다는 이가-자기 힘에 부치면 못한다구 내놓는 개 떳떳하지 않소. 입때 만나든 소리가 내 자식 집어넣다고 날 줄 아오-내 자식 집어넣었다고 날 줄 알아?!

彌鄒忽 찢린듯이 몸을 떠다. 神宮 쪽에서는 북소리가 더 한층 요란하다. 副使 들어온다.

副 使 다녀왔읍니다.

金 鬮 뭐라고 하시든고?

副 使 상감마마와 섭정마마께선 크게 기뻐하시고 곧 신궁으로 가셔서 손수 제사를 바치신다고 하셨습니다.

金 鬮 행렬의 선두를 돌려라. 곧 신궁으로 가자.

李花女 정말 가십니까.

金 鬮 울지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金甌 어린애 손을 붙들고 나간다.

李花女の 딸 엄마——엄마——

李花女 울며 뒤따른다. 「엄마——」 소리 멀니 가도록 들린다. 이어서 가마꾼의 소리. 彌鄒忽 설음이 북바쳐 기동에 얼굴을 묻고 운다.

—幕—

### 第三幕

惠恭王 六年 庚戌 八月. 嘉俳節 前夜.

內殿. 善美를 다한 公主 詩牟那의 居處. 朱紅의 柱列, 虹梁鴛瓦, 날아갈 듯한 추녀의 曲線, 金銀을 裝飾한 冊匣, 걸어 올린 纖細한 珠簾, 懸板, 石階 等. 絢爛, 宏壯한 新羅 建築美는 이것으로 能히 窺知케 한다. 石階 앞에는 宮殿의 어데나 마찬가지로 紅葉. 中央은 마루, 左邊이 二層의 樓閣, 右邊은 廻廊을 지나 母后가 계신 永明宮으로 連한다. 殿의 周圍는 榮華를 자랑하는 丹青의 欄干이 둘러 있다. 마루 뒤를 내려서면 造園術의 極致를 보인 苑庭. 木犀, 菊花, 睡蓮이 한창 만발했다. 雁鴨池에는 造山과 亭子와 石橋. 後面은 鬱蒼한 숲과 城壁. 마루 一隅에 약탕관과 火爐. 城壁 넘어로 秀麗한 吐含山과 秋夕을 앞둔 淸明한 달.

幕이 오르면 大廳에서 公主 詩牟那를 右將으로 한 六部の 處女 一群과 ムラサキ姫를 左將으로 받든 一群이 길삼을 하며 蘇蘇曲을 부른다. 이어 춤춘다. 노래와 춤 中에 ムラサキ姫 欄干에 기대서서 달을 바라본다. 處女들 헤어져 나가고 ムラサキ姫 懷鄉의 情에 잠겨 萬葉歌를 조율이 읊는다.

天の原 ふりさけ見れば 春日なる  
三笠の山に出でし 月かも

詩牟那 (익숙한 日本語로) 今の歌 誰方[ドナタ]がお詠みになった歌

でせう？

ムラサキ 阿部仲麻呂[アベノナカマロ]さま. 父と一緒に日本で最初に唐へ留學された方のござりますの. 長安の都で月を眺めながら三笠の山を懐しまれておづ詠みなされた由にござります.

詩牟那 では, ムラサキ, そなたも國に歸りたうなりましたか?

ムラサキ え, 歸りたうござります.

青丹よし 寧樂の都は 咲く花の  
薫ふが如く 今盛りなり. (小野 老)

詩牟那 ムラサキ, そなたは何かに憑かれて居ります. 今歸ったら, お父上 や大臣たちから叱られませうぞ.

ムラサキ 何故のござりませう?

詩牟那 そなたにはまだお役目が残って居りますぞ. そなたは三年の間, 新羅の言葉を習得するために, 朝廷から遣はされたのを忘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 あと四ヶ月の辛抱, いま一息でござります. そなたの新羅のことはまだまだ頼りないと思ひます. 郷歌の讀み方も充分とは申されませぬ.

ムラサキ 公主ママの所爲でござりまする. やれ船遊びぢや, やれ伽吽琴ぢやとお伴を仰せっかり, 書見の暇などてんでござりませぬ. それに公主ママは 日がな一日鍾のお話ばかり……

詩牟那 わらはの所爲ではござりませぬ. 博士の講義には耳も籍さず, そなたはあらぬ事ばかり考へてゐる様子.

ムラサキ まあ, 公主ママには, 御自分のことは棚に上げて, 何を仰せられます?

詩牟那 そなたは屹度意中の方があるに違ひありません. さ, 聞きませう. どのやうな方? 美しいお公卿[くげ]さま, 雄雄しいお武家さま?

ムラサキ まあ, 公主ママとしたことが…… わらはの事よりも, 公主ママの いとしい皇子さまは, 大變なお心意氣にござりまする. 思かだけで身體も震へるやう. 公主ママをお迎へに遙遙唐から海を渡って來られるなど…… まるで草紙でも讀むやう

な心持が致しまする。

- 詩 牟那 (苦笑しながら) そなたは何とたはけたことを言やる。  
 ムラサキ それに絹が百反, 紫袍綿が百匹, 練素が二千匹, 金銀銅器が五千個, 瑞紋錦五色羅彩が三百反, 金の甕には大判がぎっしり, 銀の甕には小判がぎっしり, これだけが當座の引出物でござりませう。お羨ましよう存じ上げます。
- 詩 牟那 それほどに羨むなら, わらはの代りにそなたに行んで戴きまする。  
 ムラサキ 遙遙海を渡って來られた皇子さまをお泣かせ申すものではござりませぬ。皇子さまは公主ママに, いかにも御熱心の御様子。今日の臨海殿の御宴にも, 昨日の崇禮殿の引見宴にも皇子さまは公主ママのお顔ばかり見めて居られました。
- 詩 牟那 そなたは, それで國に歸りたうなったのでせう?  
 ムラサキ 留めて戴いても張合がござりませぬ。公主ママは, お近い中に新しく造られた五百人乗の遣唐船を四隻も從へさせられて唐の國へお興入れ, わらはは一人で寧樂へ, 公主ママ, 今生に於ては, もうお目もじ叶はぬかも計られませぬ。
- 詩 牟那 (取縋って泣く)  
 ムラサキ 公主ママのお慈しみのお蔭で, 楽しい三年を送らせて戴きましてござりまする。この欄干に凭れて公主ママとかうして竝んで中秋の明月を仰ぐのもこれが最後でござりませう。
- 詩 牟那 ムラサキ姫, 泣けて來ますゆえ, そのやうな悲しいことは申さるでない。

兩人 서로 안고 종용이 운다. 試婢 한 사람 보통이를 들고 들어온다.

- 試 婢 공주님, 수문장이 밤출입은 절대로 안된다고, 문을 아녀 열어줍니다.  
 詩 牟那 (짜징 비슷하게) 예구 그 녀석은 말성도 만허.  
 ムラサキ 어텔 보내시는데요?  
 詩 牟那 박사한테…… 동정하구 소매 끝이 새깁아서 옷이 넘우도 남루하기에…….

ムラサキ 그럼 홀몸인가요.

詩牟那 그렇대. 래일이 추석인데두 누가 옷 한 벌 해주는 사람 있겠어?  
여니 사람이면 모를까. 적어두 일국의 큰 일을 맡아서 헌신하는  
분이 한가 윗날 그 옷을 입고 신궁 제사엘 어떠케 참여하겠어?  
그래서 내가 몰래 진솔로 한 벌을 저보낼려구 해.

ムラサキ 그런데 공주님은 박사님이 홀몸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어떠케  
그렇게 잘 아십니까.

詩牟那 (당황해 하며) 검교사님께 들었어…….

ムラサキ (意味深長이 公主를 쳐다보고 웃으며)…… 그럼 제가 전해주  
올까요.

詩牟那 ムラサ키가?

ムラサキ 네.

詩牟那 정말 ムラサ키가 갔다와 주겠어?

ムラサ키 네.

詩牟那 그럼 미안하지만……

ムラサ키 염려 마세요.

ムラサキ 試婢한테 옷을 돌려 가지고 나간다. 역갈려 唐皇子 范知를 案  
內하고 滿月夫人과 金隱居 이야기하며 들어온다. 詩牟那 目禮한다.

滿月夫人 내일은 우리 신라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라 상감께서 金  
鰲山) 신궁에 제사를 올리시니 가치 구경가시지요.

范知 네.

滿月夫人 낮엔 신궁앞 넓은 마당에서 화랑들이 호반을 겨루고 밤엔 六부  
의 처녀들이 두 패로 갈리어 대궐 마당에서 길쌈짜기 뒷푸리들  
을 하니 그건 불만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 아까까  
지 처녀들이 노래와 춤을 연습했답니다.

范知 량편의 대장은 누가 됩니까.

滿月夫人 儒理王 때부터 딸 형제가 한 편씩 맡는 법인데 금대엔 저 애가  
형제가 업스므로 ムラサ키를 대신 시키기로 했답니다.

范知 ムラサ키라니 일본녀잡니까.

滿月夫人 네. 吉備眞備[キビノマビ]라는 학자의 딸입니다.

- 范 知 キビノマビ? 그 사람 저 잘 압니다. 우리 당나라에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十七年 있었습니다. 그럼 요새도 일본과 사신의 왕래  
가 있습니까.
- 金 隱 居 한동안 통 과견치를 안타가 금번 구리를 좀 구하려고 지난 五月  
에 급손 김초정이를 보냈습니다만.
- 范 知 그거 재미 없습니다. 이런 얘기 황제께서 들으시면 대단 엇잖아  
하실 겁니다.

이때 試女들 어름에 쟈 수박을 날려다 놓고 나간다.

- 滿月夫人 (王子의 氣分을 돌리려고) 맛은 업스나 이 수박 좀 드시지요.
- 范 知 (받아 먹으며) 지금도 신라엔 어름이 있습니까.
- 滿月夫人 겨울에 石氷庫에 채워 두었다가 여름내 쓴답니다.
- 范 知 (수박씨를 씹으며) 아주 맛이 훌륭합니다. (하고 껍질을 뽀는  
다)
- 詩 牟 那 (웃음이 터진다) 호호호.
- 范 知 (약간 위엄을 상한듯)…….
- 滿月夫人 시무나! (황자에게) 그거 아즉도 철이 없어서…… 덩지만 켜지  
아주 어린애랍니다.
- 范 知 천만에요.
- 滿月夫人 시집을 보내면서도 가서 또 무슨 실수를 할까 도무지 맘이 놓이  
지를 않습니다.
- 金 隱 居 더구나 대국은례절이 놀라운 나라가 아납니까.
- 滿月夫人 그러니까 공주가 허물이 있드라도 그제 덮어주시고 놀러 보아주  
십시오.
- 范 知 녀려 마십시오. 전 공주같이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때 試衛部監 들어와 階下에 부복한 後

- 試衛部監 섭정마마께 아뢰오. 상감마마께옵서 시중어른과 함께 잠깐 들시  
사는 분부입니다.
- 滿月夫人 便殿에 계시오?

試衛部監 대학감(大學監)에서 국학 대박사에게 강의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滿月夫人 곧 가마.

范 知 학문에 대단 진심하시는군요.

滿月夫人 尙書, 毛詩, 禮記를 벌서 떼우시고 요새는 左氏傳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滿月夫人 金隱居와 함께 나간다. 뒤따라 試衛部監 나간다.

詩 牟 那 (母后와 侍中이 나간 後의 그의 臺詞는 全部 揶揄요 弄調다) 당나라엔 楊貴妃같은 미인가녀가 허다하다는데……?

范 知 그래도 다 공주만 못합니다. 작약도 모란도 공주만 못한데 하물며…….

詩 牟 那 왜 해필 그런 꽃에다 저를 비하셔요?

范 知 작약과 모란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詩 牟 那 그런 살찐 음탕한 여인같은 꽃을 누가 좋아해요.

范 知 그럼 공주는 무슨 꽃을?

詩 牟 那 (웃으며) 옥수수.

范 知 (얼굴을 찡그리며) 옥수수요?

詩 牟 那 네 그 후리후리한 키와 강냉이에 달린 신선의 수염같이 복스런 털이 참 좋아요.

范 知 공주님이 사랑하는 꽃이라면 저도 좋아지겠지요. 궁전엔 작약과 모란은 모조리 뽑아버리고 앞뜰 뒤뜰에 뺑 둘러 옥수수를 심게 하겠습니다.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삼신산 불로춘들 못 구해 오겠습니다. (점점 흥분하여) 나는 신라의 반월성보다 더 큰 사방 십리의 궁을 짓겠습니다. 아닙니다. 벌서 락성이 됐을 것입니다. 뜰에다간 런못을 파고…… 연못 속엔 축산을 하고…… 축산에 다간 기화요초를 심고…… 아니 기화요초가 아니라 옥수수를 심고.

詩 牟 那 (苦笑를 참는다)

范 知 목욕은 우유로 하고…… 우유에다간 금가루를 타서 공주님 신이 밤이면 야광주같이 번쩍번쩍 비치도록 할 작정입니다. 순

금으로 사룬마차를 만들고 비취와 청석과 홍보석을 아로 사긴  
 걸상에 공주님을 태워가지고 명절날마다 시조묘(始祖墓)와 왕  
 릉을 돌겠습니다. (石階를 내려서며) 공주님 배 안 타시켰어요.

詩 牟那 입때 ムラサキ하고 댔어요.

范 知 그럼 호숫가를 한 바퀴 도시지 안했습니까.

詩 牟那 매일 도는 걸요.

范 知 그럼 저 루각에나 안내해 주십시오.

詩牟那 할 수 없이 范知를 따라 石階로 내려간다. 滿月夫人과 惠恭王이  
 이야기하며 들어온다.

惠 恭 王 (興奮한 語調로) 어마마마 누님은 꼭 당나라로 시집을 가야만  
 되요.

滿月夫人 그러타오. 꼭 가야만 된다고. 내야 남과 같이 그러케 아들딸이  
 만키나 하오? 차식이라고는 상감하구 공주하구 둘밖에 더 있  
 오? 딸 하나 있는 것을 말을 타고 룡로로 몇 千 리 배를 타고  
 수로로 몇 달을 간다는 만리타국에 보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소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력은 피폐하고 상감은  
 어리고 해서 밖으로서는 외적이 강토를 기웃거리고 안에서는 권  
 신들이 보위를 넘보고 있으니 사직을 안보할려면 큰 당나라의  
 힘을 빌지 않을 수가 업다오. 그래서 결국 시무나가 당나라로  
 시집을 가게 되는 게지요.

惠 恭 王 그러치만 속국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더구나 누님까지……(운  
 다)

滿月夫人 (따라 울며) 그러닛가 상감이 어서어서 자라서 국위를 떨치게  
 하오. 그 때가 되면 이 모후도 번잡한 섭정의 자리를 떠나 저  
 永明宮에서 편이 좀 쉬겠소. (幼主의 눈에 눈물을 닦여준다)

惠 恭 王 어마마마 알겠습니다. 어마마마 말씀 명심하야 신라로 하여곰  
 어느 나라에도 굽하지 않고 두려워 안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滿月夫人 (王을 세차게 안으며) 오. 착하신 우리 님군! (자기의 눈물을  
 닦고) 얘기를 너무 쏘이시는 게 좋지 않으니 그만 입전하시어  
 쉬시지요.

滿月夫人못마땅한듯한 王을 모시고 다시 나간다. 뒤를 이어 ムラサキ姫  
急히 들어온다. 公主가 없으므로 [공주님, 공주님] 부르며 이쪽 저쪽을 찾  
는다. 詩牟那 苑庭에서 달려온다.

詩牟那 ムラサキ, 갔다 왔어?

ムラサキ 네, 그런데 박사께서 일에 골몰하셔서 그런지 신색이 아주 안됐어  
요.

詩牟那 (놀라며) 박사께서?

ムラサキ 네, 사다다리 위에 스셔서 구리 가마를 되려다 보구 계시는데 까  
딱하다간 화염 속으로 쓸어지실 것 같겠지요. 어쩌케 맘이 조마  
조마했는지.

詩牟那 (애가 타는듯) 어데가 편찮으신가?

ムラサキ 꼭 실성하신 양반 같아요. 허공만 멀건이 쳐다보시군 걸음도 허  
청허청 걸으시고…….

詩牟那 그래 웃은 받으시어?

ムラサキ 네, 고맙단 말도, 좋다, 나쁘단 말도 없이, 그냥 두고 가라고 하  
시겠지요. 속으론 만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이 때 范知 後苑에서 나온다. ムラサキ 자리를 避해 나간다.

詩牟那 (工房에 갈 方途를 찾고져) 저 궁 밖으로 바람 쐬려 안 가지겠  
어요?

范知 (欣喜雀躍하며) 바람 쐬려요?

詩牟那 달이 이러케 밝은데.

范知 어데로 가지까요.

詩牟那 蚊내가로 거닐어서 日精橋, 月精橋로 가지요. 그리고 오는 길에  
봉덕사 주종공방에 들러 밤일하는 것도 구경하실 겐.

范知 그까짓거야 뭐 볼 게 있습니까.

詩牟那 지나오는 길이니까요.

范知 그럼 곧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詩牟那 저-제가 가지자구 했다지 마시구 동궁께서 더리고 가시는 것  
럼 어마마마께 말씀하세요.

范 知 네. 넘려마십쇼.

范知 滿足하야 달려간다. 이 때 뒤에서 가느단 ムラサキ의 悲鳴.  
이윽고 쿵하고 무엇이 담에서 떠러지는 소리. 公主 그 곳을 凝視한다.

ムラサキ (달려오며) 공주님

詩 牟那 ムラサ키,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어?

ムラサ키 김चे신 장군께서…….

詩 牟那 뭐 급손께서?

ムラサ키 담을 넘어오셨습니다.

副 使 (들어오며) 놀나지 마십쇼.

詩 牟那 (쏘는듯) 워 정문을 아니 들어스고……. 더구나 야밤에……

副 使 미취홀 박사가 구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詩 牟那 눈이요? (쓸어질듯 억지로 몸을 버티며) 그런데 어떡하다  
…….

副 使 열도를 되려다 보다가 현기증을 일으켜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詩 牟那 아주 멀었습니다까.

副 使 네.

詩 牟那 다른데는 상하지 않으시구요?

副 使 천행으로 뒤로 자빠졌기 때문에 허리를 좀 다쳤을 뿐 데운 곳은  
없습니다. 궁장 밖에 말을 매어 놔오니 빨리 저를 따라오십쇼.

詩 牟那 섭정마마께?

副 使 보시다싶이 궁장을 넘어 왔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검교사님께서  
아뢰시겠지요. 우선 빨리 저를 따라 오십쇼.

詩 牟那 옷을 챙겨 입고 나오다 뚝 발을 멈춘다. 自己의 心中을 이 젊은이  
에게 다 되려다 뵈는 것을 깨닫자 속옷이 흘러내리는 듯 羞恥에 얼굴이 확확  
단다.

詩 牟那 그런데 부사께선 어째서 비밀로 박사의 불상사를 저에게 알리십  
니까.

副 使 리유는 다음에 물으시고…….

詩 牟 那 그 분이 눈이 멀었으면 멀었지 저와 무슨 관계가 잇기에 저를 불러 오셨습니까.

副 使 공주님의 마음이 한결같이 박사를 딸코 있으시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詩 牟 那 네?

副 使 공주님을 먼발치로 흠모하고 동경하던 저는 누구보다 그것을 먼 점 알았습니다. 질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님이 나중에 박사의 눈 먼 것을 알고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리유는 그것뿐입니다.

詩 牟 那 (激하여)부사님!

金體信 詩牟那를 안어 담을 넘긴 後 飛虎같이 自己도 넘어간다. 果然 花郎의 代表에 부끄럽지 않은 快傑이다. ムラサ키는 自己 處所로 간다. 滿月夫人과 范知 들어온다.

滿月夫人 밤길이란 언제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니 시위부에서 기운센 장수를 열명만 딸케 했습니다.

范 知 잠간 갱변을 한바퀴 돌고 돌아올테니까요.

滿月夫人 그런데 애긴…….

范 知 아마 옷을 갈아입나 봅시다.

이 때 守門將 들어와 부복한다.

守 門 將 섭정마마께 알외오. 대각간 (大角干) 상대등 어른의 입궐이시 오.

滿月夫人 상대등께서?

守 門 將 네.

滿月夫人 빨리 들어오시래라.

守門將과 역갈리어 金鬘 들어온다.

滿月夫人 (不安하여) 또 무슨 변이 있었소.

金 甌 변이 아니옵고……. 주공이 현기증을 이르켜 가마의 증기에 안력을 잃었소이다.

滿月夫人 (驚愕하며) 아—니 어떡하다?

金 甌 어린애 바친 어머니가 매일같이 미취홀더러 「눈이 멀어 증을 못 만들게 내가 고사를 지낼 테다」구 방자를 하고 단것다 하오.

滿月夫人 저런 악독한 것이 있나.

金 甌 구리의 열도를 되려다 볼 때마다 가마 속에서 「엄마」 하고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난다구 나에게 루차 말했었소. 그런데다 요새는 그애 어머니의 방자소리까지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다구 하드니 오늘은 기어쿠 현기증을 일으키구 말었나 보오.

滿月夫人 쫓쫓 가엽서라. 그래 어떡하섯소?

金 擁 우선 승방에다 눕혀놓고 의(醫) 박사를 불렀으나 눈만은 고칠 길이 없다 하오. 모두가 이 각간의 불찰이오.

滿月夫人 운수 불길해 그러케 됐지. 각간에게야 무슨 과실이 있겠소.

金 甌 제가 어린애 히생안을 제의치 않았든들 이런 일은 없었슬 줄 아오. 처음부터 그는 반대를 했었던 것을 제가 욕이어서 그만…….

滿月夫人 해필 가배절 전 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꼬?

金 甌 한 해에 한 번인 명절이 파홍이 되겠소이다.

滿月夫人 (范知에게) 나도 어제 작고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늘은 외출 마시고 그대로 쉬시는 게 어떠겠소.

范 知 그럼 공주님에게 섭정께서 그러케 말씀해 주십소.

滿月夫人 아가 (대답이 없으므로) 어쩔갔나 아가 아가.

范 知 없습니까.

滿月夫人 거기 누구 없니.

試婢 「네!」 하고 들어온다.

滿月夫人 공주 어디 가셨니?

試 婢 지금 금새 계셨는데?!

范 知 먼저 나가시지 않았을까요.

滿月夫人 그럴리가 있겠어요. (侍婢에게) 수문장 불러라.

試婢 나간다. 이어서 守門將 들어와 부복한다. 金甬과 范知는 殿内外를 이쪽 저쪽 찾는다.

滿月夫人 공주 안 나가셨나?

守門將 지금 각간 어른이 들으신 외엔 아무도 출입한 분이 없습니다.

滿月夫人 (守門將에게) 빨리 시위부에 알려라. 경종을 치고 시위졸(卒)을 풀어 찾으라구.

守門將 네.

守門將 급히 나간다. 范知 後苑을 향해 「공주님, 공주님」 부르며 나간다.

滿月夫人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金 甬 글세요.

이쪽 저쪽에서 「공주님」「공주마마」하는 試女들과 試衛卒들의 소리. 精寂에 싸였던 後宮이 突然 騷亂해진다. 요란한 警鍾.

金 甬 공주가 후시? (攝政을 살펴본다)

滿月夫人 글세요. 그 애가 속이 넓어서 말은 안하지만 황자한테 시집가는 것을 여간 실려하지 않으니까요.

ムラサキ 읽든 冊을 든 채 들어온다.

滿月夫人 ムラサキ, 공주가 감직한 곳 어덴지 모르겠어?

ムラサキ 글세요, 전들…….

金隱居 怒氣 등등하야 들어온다.

金 隱 居 공주를 찾었다 하오.

滿月夫人 (기빠서 울듯하며) 어디 잇드래요?

金 隱 居 금손 김체신과 나란이 말을 달려 공방엘 갔었다 하오.

金 鬮・滿月夫人 공방엘?

金 隱居 그렸소. 뿐만 아니라 미취홀을 부들고 공주가 울었다 하오. 마치 자기 지아비나 정혼한 사람이 눈이 먼 것 처럼 슬퍼하며 의연에 게도 눈을 뜨게 해 달라고 부끄럼도 없이 애걸했다 하오.

金 鬮・滿月夫人 (啞然하여 茫然히 듣고만 있을 뿐)

金 隱居 그들은 벌써부터 상통했든 것이 분명하오. 일국의 공주로서 만인의 눈을 속이고 하천한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것은 국가의 치욕이오. 더구나 각간의 지휘하에 잇는 공방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오? (屹然히 金鬮를 쏘아본다)

金 鬮 …….

滿月夫人 국운이 이뿐인가. 전생에 죄가 많아 이런가. 이게 어찌된 노릇일꼬?

金 隱居 특히 용서할 수 없는 자는 김체신이오. 럽치를 귀히 여길 신라의 화랑으로서 주종검교의 직책은 제쳐놓고 공주와 주공의 중매를 하고 단기니 이는 국적이오. 래일 조회에 국문하기 전에 각간께서 선후책을 강구하시오.

金 鬮 …….

滿月夫人 좌우간 정전으로 나갑시다.

滿月夫人, 金鬮, 金隱居 밖으로 나간다. 舞臺에는 ムラサキ 뿐.

詩牟那 蒼白한 얼굴로 悄然히 들어온다. ムラサキ를 發見하고 「ムラサキ」하고 달려들어 안고 운다.

ムラサキ 공주님, 이러케 부들부들 떠시구…….

詩牟那 (理性을 잃은 사람처럼) ムラサキ, 박사를 구할 길이 없을까? 박사님의 눈을 뜨게 할 길이 없을까?

ムラサキ 공주님, 진정하세요.

詩牟那 ムラサキ, 박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줘요……. ムラサキ한테만……. 고백하지만……. 나는 그 분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분을 내 몸 보다 애끼게 됐어요. (운다)

ムラサキ 공주님, 그렇지만 내게 무슨 힘이 있어야지요? 내가 의박사라면

모를까…….

詩牟那 눈 잘 고치 의박사 누구 아는 사람 업서? 일본에는 의술이 여  
기보다 발달했다지 않어?

ムラサキ 공주님, 의박사라면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주 신통한 의박사  
를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詩牟那 정말?

ムラサキ 네, 小野博臣라구 안파에는 첫손 째는 박삽니다.

詩牟那 그러치만 일본까지 모시러 갈려면 두 달은 걸릴테니…….

ムラサキ 아니에요. 지금 서랏벌에 와 게서요.

詩牟那 서랏벌에?

ムラサキ 네, 寧樂[ナラ]에서 左大臣[サダイジン] 藤原仲麻呂[フヂハ  
ラナカマロ] 家の 侍醫로 게셨어요. 사정이 잇서 筑紫[ツク  
シ]로 내려가 있다드니 작년부터 서랏벌에 와서 개업을 하구 게  
신다는 군요.

詩牟那 ムラサキ. 그럼 그 분을 지금 곧 좀 불러 줄 수 없겠어?

ムラサキ 네. 가보지요. 그러치만 어명이 없이 가봤다가 나중에 책망듣지  
않을는지.

詩牟那 아—괴로워. 차라리 시골 기집애로 태났으면 이런 고통은 안받  
지…….

ムラサキ 공주님으로 태났으면 다 그런가요?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탓  
이에요.

詩牟那 내 얼굴이?

ムラサキ 그럼은요. 明眸皓齒あり, 美しからざらんこ. 공주님이 너무도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멀—리 당나라에서까지 칭혼을 하구 아래  
로는 주공까지가 흠모를 하지 않아요.

詩牟那 ムラサキ, 그건 그렇구. 어서 그 의박사한테로 좀 가봐 주어!

ムラサキ 네.

ムラサキ 나가려 할 때 뒤에서 사람들이 이 쪽을 尙해 오는 穢적한 騷  
擾.

ムラサキ (공주를 안으로 떠다 밀며) 공주님 빨리 숨으십쇼. 상감마마와

섭정마마께서 시중 어른과 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왕자께서도.

詩牟那 (떠밀여 들어가다가 발을 멈추고) 그게 옳아 내가 이쁜 게 사실이야. 내가 이쁘기 때문이야.

詩牟那 「얼굴을, 얼굴을」絶叫하며 火爐에 火箸를 집어 들고 房으로 뛰어어드러간다. ムラサキ 「お姫さま」하고 쫓아간다. 刹那 悲鳴. 쿵하구 쓰러지는 소리.

ムラサキ お姫さま, 何をなさるのです?

詩牟那 농아요.

ムラサキ め, (悲鳴) 誰か来て, 誰か来て.

이 소리에 满月夫人, 惠恭王, 金隱居, 唐皇子 달려와 房으로 뛰어 들어간다.

ムラサキ 빨리 典醫를, 典醫를……. 공주님이 화젓갈로 얼굴을 지지셨습니다.

金隱居 急히 밖으로 나간다. 满月夫人의 「어지여 내일이여」「어지여 내일이여」하며 우는 嗚咽 소리.

-幕-

#### 第四幕

惠恭王 六年 十月初旬

鑄鐘工房 内部. 正面에 粘土의 땀이(堆). 이 속에 鍾의 土型을 묻어놨다. 周圍에 鎔爐가 三個. 湯出口는 全部 土型 上部 旗挿部를 向해 있다. 爐 밑 아궁지로 바람을 보내는 풀무. (이것은 땅에다 묻고 발로 밟는 式) 爐 周圍에는 사닥다리가 거미줄같이 얽혔고 上口 옆에 指揮者가 熱度와 銅汁을 보는 假設의 발판. 左邊에 銅材를 올리는 起重機.

幕이 열리면 鑄丁들이 「어-허, 어-허」하며 풀무를 밟는 사람, 싯범언  
아궁이에 숯을 던지는 사람, 사닥다리로 資材를 運搬하는 사람들이 바쁘다.  
가마 입으로는 자주빛 불꽃이 올라갔다.

賦役꾼— 당황제 아드님이 욕을 보고 도라가셨다니까, 오래잖아 무슨 변  
이 있을거야.

鑄丁— 누가 혼인을 안한다구 했나? 제가 싫어서 뺄손일 찾지.

鑄丁二 공주님이 얼굴을 화젓가락으로 지지셨기 때문에 뺄손일 찾지.  
괜이 싫어서 파혼해?

鑄丁三 공주님도 무서운 분이시지. 어찌자구 얼굴을 지지셨을고?

賦役꾼二 애매한 도깨비로 욕본 량반은 김채신장군이야.

徒弟 욕개월 동안 근신을 하라고 하셨다지요? 부사님께선 모두들 그  
러는데 아무죄도 없다구 그러는데요.

鑄丁— 시키지도 않으신 일을 하셨기 때문야. 죄없이 근신하라 하시겠  
어?

賦役꾼— 아 박사님 눈멀었다고 공주님께 알려드린 게 뭣이 허물될 게 있  
어?

鑄丁二 누가 알려드린 걸 글르다나? 답을 넘어서 모시고 나온 게 글르  
단 말이지. 시키지 않은 중매노릇은 왜 하셨나는 거야.

賦役꾼— 그렇다면 박사님두 똑같이 처벌하시든지 해야지. 한 사람만 처  
벌하시고 짜장 죄인은 왜 그냥두는 거야.

鑄丁— 지금 박사님을 처벌했다간 중은 어떡허구? 아, 다섯해 동안 해  
내려오든 일을 중지해버리란 말야? 구리만 오면 끊여볼 판인데,  
지금와서 일을 작과해서야 되겠어?

賦役꾼— 그렇다구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법으론 우스  
운 일인데.

鑄丁— 종 다 만들어 놓거든 처벌하시면 되지 안허?

徒弟 공주님은 아주 딱 감금을 해버리셨대요.

이 때 李花女와 錄事 言爭하며 들어온다. 李花女는 몹시 瘦瘠해졌다.

錄事 글세 안된대두 그러네.

李花女 잠깐만 만나뵙고 가겠어요.  
 錄事 안되오. 글세, 당신을 공방에 드린 것을 검교사께서 아서보우. 내  
 목은 당장 대뜰에 굴를 거요.  
 李花女 나는 귀중한 자식까지 바친 사람이 아니예요? 어찌 들어갈 권리가  
 없단 말이오?  
 錄事 당신 때문에 일이 얼마나 지장이 된지 아오? 박사께서 눈이 머셨  
 다는 건 당신도 잘 알겠구료.  
 李花女 아-니 그럼 나 때문에 머셨단 말이에요?  
 錄事 그럼 당신 때문이 아니구.

判官 材料를 들고 나온다.

判官 (錄事에게) 누구 못살게 굴러구 이 안악넬 또 되렸소?  
 錄事 암만 붓들어두…….  
 李花女 (判官에게) 요새도 박사님은 매일 치료를 받으셔요?  
 判官 주야를 불고하고 의박사께서 전심전력해 주셔서 불일간 눈은 뜨시  
 게 될거요.  
 李花女 (반가운듯이) 그럼!  
 判官 눈은 완차케 되신다구 해두 요전 구리를 꿸였다가 탕출을 못했으  
 니 술만 몇 천 섬이 손해나말이야? 그것뿐인가? 일일이 들자면  
 …… 좌우간 돌아가시오, 박사께서 요새야 겨우 정신을 좀 수습하  
 셧소. 또 오늘은 마즈막 날인데 당신 때문에 요전같은 불상사가 일  
 어나면 어떡허겠소?

李花女 단념한듯이 울면서 허청허청 나간다. 彌鄒忽 圖面과 자(尺)를 들  
고 온다. 눈에는 눈목(繻帶)을 처맸다.

李花女 박사님.  
 彌鄒忽 누구요.  
 李花女 저……. 기집애 어미예요.  
 判官 (鑄丁들에게) 끌어내라.  
 彌鄒忽 (制止하며) 그대루 두슈.

録事와 鑄丁들 李花女의 팔을 뺏든 채 博士를 바라본다.

彌鄒忽 소원대로 눈이 멀었으니 이제 시원하지요?

李花女 (가슴이 찢려 말이 쿡 맥힌다)

彌鄒忽 인젠 저주 안 하시요 ?

李花女 …….

彌鄒忽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셨다지요 ?

李花女 (조용이 울다가 고개를 들고) 네.

彌鄒忽 무슨 말씀이시오.

李花女 저……. 저…….

彌鄒忽 무슨 말씀이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시요.

李花女 (가느단 울음 속에) 하로 바빠 종을 완성해 주세요.

彌鄒忽 (의아하야) 할 말씀이란 그거예요 ?

李花女 네.

彌鄒忽 그럼 축원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李花女 네, 축원입니다.

彌鄒忽 나를 그렇게 미워하시구 종이 안되지만 것처럼 바라시드니 오늘은 어찌 축원을 하십니까.

李花女 박사님겐 오늘이야 비로소 여쭙니다만 저는 새벽마다 신궁에 올라가 검님께 하로 바빠 종이 되기를 빌어 왔었어요.

彌鄒忽 내 눈이 정말 멀었으니 미안해서 그럼니까 ?

李花女 (고개를 흔들며) 아니에요.

彌鄒忽 그럼 ?

李花女 우리 기집에 목소리가 듣구 싶어서요. (突然 호소하듯이) 박사님 이번만은 기어코 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만은 기어코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혼자서 참말 외롭고 슬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곳은 비가 줄줄나리는 밤중이나 황등개가 멍멍 짖는 새벽에는 기집에가 보구 싶어서 이리 덩굴구 저리 덩굴구 하다간 옷을 주섬주섬 걸치곤 이 공방에 왔었습니다. 무덤이라도 있다면 뺏고 옮기나 하고……. 잔디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두 자식이 땅 속에 살아 있거나 생각이나 하겠지만……. 박사님과 일꾼들은 모두 잠들었을 때 나는 몇 번이구 구리가마만 어루만진지 모릅니다. 으스스껌한

이 공방을 왔다갔다 하다가는 그냥 돌아가군 돌아가군 했어요. (말끝은 李花女 獨特의 哀調 속에 嗚咽로 變해 간다. 判官 以下 하나씩 둘씩 눈물을 감추려고 들어가 버린다.) 박사님, 우리 기집에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종이 되면 틀림없이 우리 기집에 목소리가 들어 있을 것만 같아요. 내 자식은 죽었지만 혼은 종 속에 살아 있을 겁니다. 조석으로 종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도록 해 주세요. 그년 목소린 구슬을 굴리는 듯 맑았습니다. 지금도 밤이면 그년이 천자책을 읽는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러기가 날르는 달밤에는 노래도 참 잘 불렀습니다. 하로 바빠 종을 완성해 주십시오.

彌鄒忽 얘기 어머니 고맙습니다. 너무 설어 마십쇼. 오늘밤이라도 구리물만 부으면, 래일은 종이 됩니다. 어린애는 한 번 죽었지만 이 종과 함께 신라 천만 년 후세까지 살 것입니다.

李花女 (希望에 차며) 그럼 래일 새벽엔 종소리를 듣게 되겠군요?

彌鄒忽 네.

이 때 大和 醫博士로 慶州에 와서 開業하고 있는 小野博臣 들어온다. 뒤따라 醫療器具 箱子를 든 ムラサキ姫. 李花女는 한 편 구석으로 비켜 선다.

小野博臣 今晚は.

彌鄒忽 박사님 오셨습니까.

小野博臣 (李花女를 가르키며) あの方は?

彌鄒忽 어린애를 바치신 얘기 어머니예요.

小野博臣 あ,博士様を呪った例の?…… 外觀はどうしてしてなかなか優しい人ではござりませぬか? それがしはお伽話によく出る鬼婆を聯想してゐました. ハッハッハ.

이화녀 자기 얘기를 하는 눈치를 채고 避하는 듯이 나간다.

小野博臣 ところで今日は瞳孔がづきづき痛みはせぢやったか?

彌鄒忽 네.

小野博臣 涙は?

彌鄒忽 어제 보담 덜 나옵니다.

小野博臣 では, あちらの方へ参りませう.今日は新しい薬を持参仕つ夫.

彌鄒忽 오늘은 손을 땔 수가 없는데……, 하루쯤 넘겼다 래일 발르면 어떨까요?

小野博臣 何を言はれる? お仕事も大事ぢやが, お體は尤大事でござるぞ.實は, お眼の治療も今日が最後, 順調に参ると明日あたりより眼帯が外せるかも知れぬ.大事な瀬戸際でござりますぞ.

彌鄒忽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바다엘 꼭 좀 나가봐야 할 텐데, 오늘은.

ムラサキ 바다엔 뭇하시리오.

彌鄒忽 배가 들오나 좀 가봐야 하겠읍니다. 급손이 구리를 얻으러 귀국으로 가신 지 벌써 다섯달이 넘는데 이때껏 돌아 오시지를 앓으니…….

小野博臣 何を仰せられる? 博士はまだ聞きませなえだか? 金初正殿が熟銅三万斤を満載して無事に迎日灣の浦に上陸されましてござる.

彌鄒忽 (감격하야) 정말입니까?

小野博臣 本當も何も…….

ムラサキ 조금 아까 급손한테서 狀啓가 왔었어요. 검교사님하구 모두들 달려 갔으니 오래잖아 이리들 오실 겁니다.

彌鄒忽 (실례는 가슴을 진정치 못하며) 박사님 빨리 들어가셔서 약을 발라 주십쇼.

彌鄒忽, 도리어 小野博臣을 재촉하며 執務室 편으로 들어 간다. 뒤따라 ムラサキ姫. 이 때 멀-리서 長路에 지친 말의 울음 소리. 채쪽을 내리치며 強行을 재촉하는 叫喚소리. 金鬮 急히 달려 온다.

金 鬮 (안을 向하야) 判官!

判官, 錄事 「네-」하고 急히 나와 부복한다.

金 鬮 일본서 가져오는 구리를 실은 마차가 사장에 빠진 모양이다. 모두들 더리구 가서 조력하구 날르도록 해라.

判官, 錄事 對答하고 들어가 鑄丁, 徒弟, 賦役人夫들을 더리고 나와 歡呼聲을 치며 나간다. 彌鄒忽, ムラサキ, 小野博臣 치료를 끝마추고 나온다.

彌鄒忽 검교사님 급손께서 숙동을 三万 근이나 얻어 오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金 鬮 음, 일본국의 후의를 헛되이 하지 않게스리라도 이 번만은 실패 없이 해야 할 텐데, 네 눈이 그러니 걱정이야.

彌鄒忽 (性急히 博士에게) 언제나 이 눈이 완치되겠습니까.

小野博臣 もう大丈夫でござる。これですっかりよくなられたのぢや。

彌鄒忽 네? 그럼, 붕대를 풀러도 괜찮습니까?

小野博臣 (황급히 制하며) 無茶をなさるでない 今夜の丑滿時になって外す のでござる。きれいな清水で膏藥をすっかり洗落して臉をありらしい。ピカピカ光る銅を見ることが出来ませうぞ。

ムラサキ (金鬮에게 通譯한다)

金 鬮 (驚喜하며) 오늘밤에?

ムラサキ 네.

金 鬮 (小野博臣에게) 참으로 수고하셨소.

小野博臣 恐縮に存じまする.

金 鬮 그럼 난 이 길로 입궐해서 구리가 왔다는 것을 상감마마께 아뢰고 오겠소. 취홀의 눈이 낮게 된 것도 아뢰고.

金鬮 나간다.

彌鄒忽 웨 해필 삼경(三更)이에요. 지금 풀러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小野博臣 それはならぬ。清水は丑滿時の水が一番澄んで清く藥になるのぢや。それはさうと、此の附近に清らかな泉はござらぬか。

ムラサキ 博士さま, 泉だったら私, いいところを知ってをります。

小野博臣 遠い所ではござらぬか?

ムラサキ いいえ, 奉徳寺の裏山の竹藪の向ふでござります。それはそれ

は水晶のやうに澄んだ泉でござります。國王ママと 公主ママ  
には、鷹狩りよりのお歸りの節は、必ず一度はこの泉にお立寄遊  
ばされ、お咽喉をお濡ほしになら れまする。

小野博臣 それは何より。喜は急げぢや。早速下檢分に參らう。(가다가  
발을 멈추고) 今夜, お仕事は?

彌 鄒 忽 곧 착수해야겠습니다.

小野博臣 ぢ야가夜業はお眼に宜しくござらぬ。明日に伸ばされては ?

彌 鄒 忽 그건 안됩니다. 더욱이 가마 속엔 검님께 바친 어린애의 생령이  
들어 있으므로 한시가 급합니다.

小野博臣 その儀なら詮方ござらぬ。ぢ야が鎔鑪の側へは絶対に近寄  
られぬやう。吳吳も申置きまするぞ。銅汁の湯氣に當られた  
ら, その時こそもう二度と治すことは出來ませぬぞ。

彌 鄒 忽 멀직압치 떠러져서 지휘만 할 테니까, 넘려 마십쇼.

小野博臣 ではお姫さま, 泉へ行って見ることにしませうぞ。

ムラサキ はい.

小野博臣과 ム라사키姬 나간다.

—間—

말-리서 馬車를 밀고 오는 喧騒. 公主 詩牟那 木鐸을 든 채 周圍를 살  
피며 奉德寺 쪽에서 들어온다. 목에는 念珠를 걸었다.

詩牟那 (달려가) 박사님!

彌鄒忽 (半信半疑로) 네?

詩牟那 나예요. 시무나예요.

彌鄒忽 공주님이……. 어떡케.

詩牟那 독경을 하다가 창밖을 내려다 보니까, 구리를 실은 마차가 쪽 늘  
어서서 공방으로 가드군요. 오늘밤엔 구리물을 끓여 부실 것을 생  
각하니 앓았을 수가 있어야지요.

彌鄒忽 공주님 (손을 잡으려고 더듬는다.)

詩牟那 박사님 (긴장이 탁 풀리며) 참말이지 뵈옵고 싶었어요.

어느 듯 밤은 깊었고 멀-리 댜슌山城에 초생달이 흰하다. 떠러진 民家에서 들려오는 다드미 소리와 어느 나 어린 도련님이 읽나 보다, 千字冊을 더듬는 듯한 졸음 띤 소리.

詩牟那 종이 극성이 되면 박사님은 이 서울을 떠나시겠지요.

彌鄒忽 네, 그렇지만 죄진 몸이니 필시 귀양을 가게 될까 봅니다.

詩牟那 (울며) 박사님, 검교사님께서는 반듯이 요전 그 일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彌鄒忽 용서를 해 주신대두 신라 천지에야 갈 데가 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다는 우산국(于山國)으로나 그러치 않으면 아주 바다를 건너 大和[ヤマト]로 갈까 합니다.

詩牟那 ヤマト로요 ?

彌鄒忽 네, 일본 천황께서 조금도 민족적으로 차별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陸奥ノ國[ミチノクノクニ]라는 넓은 땅에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을 위해서 부락까지 건설해 주셨다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전답과 벼씨를 내리시고 앞으로 二十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셔서 평화한 생활을 하게 하신답니다.

詩牟那 (먼-未知의 나라에 對한 憧憬에 싸이어) 陸奥ノ國, 陸奥ノ國 (중요이 노래로 變한다)

天皇の御代榮えむと 東なる

陸奥山に 黄金花さく (大伴家持)

(突然 무슨 決心을 한듯) 박사님 저도 함께 더리고 가 주세요.

彌鄒忽 (놀래며) ミチノク로요.

詩牟那 네, 아무데라도 좋아요. 여기처럼 까다로운 제도가 없고 귀찮은 속박이 없는 데면 아무데라도 갈 테예요. 밭을 매고……, 사냥을 하고……, 송이를 따고……, (恍惚한 꿈을 꾸듯이)……, 김쌈을 짜고……,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면 떡을 찌서 추석을 차리고……, 봉선화가 피면 백반과 섞어 빠서 손톱을 뽑아케 물디리고……, 이러케 단 하로라도 살고 싶어요.

彌鄒忽 그렇지만 요전 공방에 한 번 들르신 것만인데두 것처럼 난리가 났었는데……, 어마마마와 중신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겠어요?

詩牟那 허락만 얻는다면 더리고 가 하시지요?

彌鄒忽 그렇지만 그건…….

詩牟那 제가 정식으로 청원해 보겠어요. 물론 당장 승락은 안해 주시겠지만……. 정 못한다면 도망해 나오지요, 뭐.

彌鄒忽 (감격하야) 공주님.

詩牟那 (무릎에 엎더진다)

彌鄒忽 공주님 우섯군요.

詩牟那 (微笑를 지으며) 아니요.

彌鄒忽 눈물이 흘르시는 데요.

詩牟那 (急히 닦으며) 박사님 제 얼굴이 봐어요.

彌鄒忽 아니요.

詩牟那 그런데 뭘 ?

彌鄒忽 봐진 않아도 제 마음 속엔 호수의 달과 같은 공주님 얼굴이 잠자고 있어요. 고대로 그럴 수도 있고 구리로 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며 影像을 虛空에 그린다)

詩牟那 (無意識中에 손으로 自己 볼의 傷處를 만져보고 소스라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 선다)

彌鄒忽 그렇지만 오늘밤 삼경만 되면 두 달 동안 그리워하던 공주님의 얼굴도 이 두 눈으로 똑똑이 보게 될 겁니다.

詩牟那 삼경요? (突然 무거운 돌로 정수리를 얻어마진 듯 비틀거리며 全身을 부르르 떠다. 將來할 무서운 結果를 앞둔 恐怖에 얼굴은 生氣를 잃고 蒼白해 간다. 간신이 呻吟하는 듯이) 삼경요?

彌鄒忽 네, 조금 아까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밤 삼경에 고약을 씻고 샘물에 눈을 닦으면 광명을 보게 될 거라구 했습니다. 지금 ムラサキ姫하구 샘물을 검사하러 가셨어요.

詩牟那 (自己도 모르게) 박사님, 그럼 전 어떡하면 좋아요.

彌鄒忽 네?

詩牟那 아, 아니에요.

이때 ムラサキ 「박사님」「박사님」 부르며 들어온다. 詩牟那 급히 숨는다.

ムラサキ 박사님, 의박사께서 샘터로 곧 오시라고 합니다.

彌 鄒 忽 네.

ムラサキ 주위에는 향긋한 냄새가 풍기구 물이 거울같이 맑은 샘이에요.  
빨리 가서서 눈을 씻으세요.

彌 鄒 忽 네.

ムラサキ 彌鄒忽을 부축하고 나간다. 詩牟那 不安과 焦燥 속에 쫓아갈  
까 말까 한참 망서리드니 理性을 잃은 사람처럼 「ムラサキ」하고 叫喚을  
치듯 부른다.

ムラサキ (돌아보고 놀란다) 공주님?! 이 밤에 어떠케 여길?

詩牟那 (호소하듯이) ムラサキ, 박사님을 샘가로 모시구 가지 말어요.

ムラサキ 네?

詩牟那 박사님 눈에 봉대를 풀르지 말도록 해줘요. 이 시무나의 원이  
예요.

ムラサキ (愕然하야) 원이라니 눈이 뜨시지 못하게 하는 게 원이예요?

詩牟那 박사님은 지금도 내 얼굴이 예전처럼 아름다운 줄 알구 계세요.  
만일 눈을 뜨셔서 내 미워진 얼굴을 보신다면 얼마나 놀래고 실  
망하시겠어.

ムラサキ (冷然히) 공주님 한 분의 승가진 얼굴을 안보실려구 박사님을  
일생 감감한 어둠 속에 잠겨버리시겠다는 말씀이예요?

詩牟那 (가슴이 찢려 全身을 떠다.)

ムラサキ 참된 사랑이란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얼굴의 곱고 미운 게 무  
슨 상관이예요. 신뢰와 존경이 제일이지.

詩牟那 그렇지만……, 그렇지만…….

ムラサキ 공주님, 그런 녀려는 다 버리시고, 기왕 나오신 길이니 저하구  
같이 박사님을 모시고 샘으로 가십시다.

詩牟那 (중용이 嗚咽하며) ムラアキ, 박사님이 실망하시기 전에 내가  
곱게 사라지는 게 좋겠어.

ムラサキ 공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詩牟那 꿈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리가 없어……. 내 한 몸, 이 말성  
많은 내 한 몸 죽어버리면 그만이야…….(허청허청 나간다)

ムラサキ (쫓아가며) 공주님 !

詩 牟那 빨리 박사를 모시고 갔다 와요.

그 동안에 彌鄒忽은 사닥다리를 올라가 용광로 우에 섰다.

彌鄒忽 공주님 저는 이대로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의 아름다운 공주님 얼굴을 가슴 속에 영원이 간직하겠습니다.

ムラサキ (당황해 하며) 아,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박사님은 나라의 큰 일을 맡으신 몸이 아닙니까. 오래잖아 구리 실은 마차가 다 올 거예요. 한시 바빠 눈이 뜨셔서 종을 만드셔야 합니다.

彌鄒忽 걱정 마시오. 눈은 멀더라도 머릿 속에 공방만은 환히 다 보이니 역사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가마 上에 얼굴을 내밀고 붕대를 풀려 한다.)

詩 牟那 아, 안됩니다.

ムラサキ 안됩니다.

두 여자의 悲鳴과 同時에 門前에 馬車가 到着한 듯한 辟적한 騷擾. 馬鳴, 채썩 소리. 人夫들의 떠드는 소리. 小野博臣 들어오다가 彌鄒忽을 보고 악을 쓴다.

小野博臣 何をなされるのぢや? 彌鄒忽殿それでは, 眼が, 眼が

彌鄒忽 (기어쿠 붕대를 풀었다)

小野博臣 え, このたわけ奴が…… ここな横道者奴が人の苦勞も考へずに, わざと目を潰すとは何事ぢや.

彌鄒忽 日本國의 의박사님, 박사님께 참으로 죄송합니다.

小野博臣 恩知らず奴, 何と申譯しても容赦はならぬぞ. 檢校師殿に申入れ, きっと糾明申し付けてくれる. (ムラサキ에게) そなたも一緒に來なされ.

小野博臣, ムラサキ를 더리고 大怒해 가지고 나간다. 구리 布袋를 메인, 鑿丁, 人夫들을 더리고 金甕 들어 오다가 이 光景을 目擊하고 茫然한다.

金甕 (大聲叱陀하며) 취홀이 네가 미쳤느냐? 눈을 또 가마에 댄단

말이나 ?

彌鄒忽 김교사님 조금도 넘려 마시고 빨리 구리를 좀 비주십시오. 눈은 다시 불편해졌습니다만은 그 대신 저는 이 푹푹 끓는 불꽃같은 정열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밤이야말로 이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미취홀이 일생일대의 영예를 걸어 천만 년 후세까지 남을 신종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金 崧 (茫然히 그를 바라만 보다가, 判官 시켜 銅을 彌鄒忽에게 쥐어 주게 한다.)

彌鄒忽 (구리를 쥐어 보드니) 관관 곧 일 시작합니다. 각기 부서에서 시오.

一同 博士의 말에 鼓舞되어 기운차게 일을 시작한다. 彌鄒忽 구리를 가마 속에 쏟으니 火焰은 冲天하여 指令臺에 선 博士의 紅潮면 얼굴을 비친다. 「에-, 호-」하며 풀무질을 하는 사람들. 숯섬을 통째 아궁지에 짚이는 사람들. 사닥다리로 구리 布袋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馬車에서 運搬하는 사람들. 鎔鑪에다 材料를 쏟는 사람들. 工房內는 異樣한 緊張 속에 役事가 進行된다.

—幕—

## 第五幕

惠恭王 六年 十一月 十四日

奉德寺 前庭. 大業이 完成되어 神鍾의 克成祝賀式이 盛大히 開催됐다. 假設의 鐘閣. 그 속에 新羅 最高 技術의 集中인 華麗, 典雅, 雄대한 神鍾이 달려 있다. 隻龍과 旗插이 달린 鍾頂으로부터 無數히 五色의 슬이 늘어져 있다. 中央에 一段 높이 玉座, 左邊에 攝政이 앉으셨고 그 옆에 詩牟那와 ムラサキ가 앉았다. 그 아래로 官位 順序로 金崧, 金隱居를 筆頭로 重臣元老들. 右邊에 外國 使臣席. 左邊에 樂人들과 宮女들. 下手 一隅에 彌鄒忽과 判官, 錄事가 보인다.

地心이 흔들리는 듯한 莊重한 朗讀 소리에 幕이 오른다. 檢校使 金邕이 御前에 한 걸음 나아가 朝散大夫 前太子司議郎 金弼奚의 撰한 鍾銘을 읽는 것이다.

金 邕 (鍾銘朗讀) 臣弼이 文은 拙하고 才는 없으되 敢히 聖詔를 奉하여 班超의 筆을 빌리고 陸佐의 言을 좇아 願旨를 述하여 銘을 鍾에 記하노라.

金邕 鍾銘을 朗讀하고 제자리로 돌아 온다.

金 隱 居 (式順 朗讀) 論功行賞. 鑄鍾檢校正使 上大等 兼 兵部令 大角干 金邕

金邕 御前으로 한 걸음 나아가 부복한다.

滿月夫人 상대등 수고했소. 오늘 신종의 완성을 보아 상감이 선대왕께 효성을 다하게 되는 게 오——즉 각간의 덕이오. 헌데 각간이 신하로 최고의 벼슬에 있으며 신라의 관직으로는 표창할 관위가 업구료. 국록으로 五백 석을 추가 하사하니 상감의 뜻을 받으시오.

金 邕 망극하옵신 성은을 무엇으로 감사오리까?

惠 恭 王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말하오. 신라의 주권으로 짐이 들을 수 있는 거라면 들어 주리다.

金 邕 신의 소원을 들어 주시겠소니까.

惠 恭 王 들어 주고 말고. 무엇이든지 말하오.

金 邕 부사 김체신과 차박사 미취홀의 죄를…….

惠 恭 王 (미리 말을 制하시며) 벌서 경의 뜻대로 했노라.

金 邕 (다시 이마를 조아리며) 망극하오이다.

金邕 自己 자리로 돌아 온다.

金 隱 居 鑄鍾檢校副使 執事部侍郎 阿漚 金體信.

金體信 꿈이 아닌가 두려운 듯이 御前에 나아가 부복한다.

滿月夫人 아손이 공주 시무나를 공방에 인도한 죄로 파직을 시켰었으나 부사가 상대등을 도아 신기화성(神寄化成)에 끼친 혁혁한 공로는 그 사소한 죄를 씻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지라, 이제 복직을 허하고 다시 위계 일등을 올려 大阿漚에 敍하노라.

金體信 망극하오이다.

金體信은 기쁨을 감출 길이 없나 보다. 金體信 제자리에 돌아 온다.

金隱居 신기화성 도중에 있어 실패를 죽임으로 사한 주종대박사 大奈麻 下典과 신종을 위하여 희생이 된 어린애의 령전에 합장 기도를 바치오.

一同 合掌 默禱를 한다.

金隱居 鑄鍾次博士 奈麻 彌鄒忽.

彌鄒忽 보이지 않는 앞을 더듬어 御前에 나와 부복한다.

滿月夫人 공주를 연모한 박사의 죄는 신라의 국법으로는 용서할 바가 업서 종만 완성되는 날이면 欲知島로 귀양을 보내기로 했었으나 오늘날의 경사가 오로지 박사의 공이어늘 박사를 귀양보내고 어찌 홀로 극성을 즐기리. 그러매로 죄를 용서하고 다시 일등을 올려 大奈麻에 敍하노라.

彌鄒忽 망극하옵신 성은으로 아뢰오. 惠恭王들은 즉 박사는 미치노크 나라로 가려고 한다지.

彌鄒忽 네.

惠恭王 무슨 소원은 없느냐.

彌鄒忽 소원은……. 소원은 없삽고 다만 아뢰올 것은 공주님의 격려와 후원이 없었든들 저 좋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惠恭王 공주가?

彌鄒忽 네. 소신은 몇 번이고 절망과 공포 속에 스승을 따라 자결하려고  
했삽고 더욱이 눈이 이러케 된 후로 몇 번이고 사임하려고 했었  
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주님은 소신을 격려하여 주시고 용  
기를 북돋아 주시고 자신을 갖게 해 주시고 희망을 얻게 해 주  
셨습니다.

惠恭王 (고개를 끄덕이신다)

彌鄒忽 御前을 물러나와 자리에 온다.

惠恭王 (侍仲에게) 論功行賞에 公主 詩牟那를 加하시오.

金隱居 公主 詩牟那 마마.

詩牟那 太后的 옆에서 내려와 王의 御前에 옆데인다.

惠恭王 누님, 누님에게야 부귀를 상한대야 무엇하겠소.

詩牟那 상감마마, 이 공주도 공로자의 한 사람에 들어 가나니까.

惠恭王 그것소. 그러나 짐은 무엇으로 누님을 표창해야 할지 몰르소.

詩牟那 상감마마, 저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惠恭王 소원이라니 무어요?

詩牟那 저를 평민을 만들어 주옵소서. (悲壯히 王을 바라 본다.)

惠恭王 평민으로?

滿月夫人 (떨적 뛰며) 시무나야, 네가 환장을 했냐? 그게 무슨 소리냐?

詩牟那 어마마마, 공주는 평민이 되어 미취홀을 따라 가겠습니다.

滿月夫人 무엇이?

詩牟那 얼굴도 이러케 흉하게 된 몸, 궁중에 있을들 무엇하오리까. 더욱  
이 미취홀은 앞을 못 보는 몸이 아니오니까. 눈이 뜰 수 있었는  
데도 저를 위해서 다시 눈을 멀게 한 그 분! 일가가 있는 게 아  
니오 천지가 있는 게 아니오 양천부지에 몸부칠 곳이 없다 합니  
다. 저도 기왕 버린 몸이니 그를 따라가 산간초옥에서나마 그의  
팔이 되고 그의 눈이 되어 남겨지 일생을 가치하고저 하옵니다.

左右에 있는 宮女들 속에서는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다. 滿月夫人도 얼굴

을 돌리고 눈물을 닦는다.

金隱居 상감마마께 아뢰오. 일즉이 이런 일은 신라의 국법에 없었고  
.....

惠恭王 (秋霜같이 말을 막으시며) 고만 두오. 말 안해도 짐도 그만한  
건 아오. (公主에게) 누님 따라가오. 짐이 허락하니 따라가오.

詩牟那 상감마마. (激하야 운다)

詩牟那 제자리로 간다.

金隱居 (왕의 역정을 and케 하려고 한층 크게) 奉德寺 住持 智照大師,  
遣日本使 級滄 金初正, 鑄鍾判官 忠封, 錄事 一桑 功勞에 依하야  
各各 賞賜함.

— 間 —

金隱居 神鍾 始撞  
鑄鍾 次博士 大奈麻 彌鄒忽.

彌鄒忽 (멀-리서) 네——

座中の 視線이 下手 一隅로 쏠린다. 이윽고 彌鄒忽 앞을 더듬어 文武百  
官이 綺羅星列로 늘어 앉은 앞으로 나타난다. 方向을 몰나 발을 멈추고 잠  
시 서 있다.

惠恭王 (그가 황감하야 서 있는 줄로 알고) 어려워 말고 앞으로 나오  
라. 그리하야 박사가 심혈을 경주한 그 신종을 신라 천지가 진  
동하도록 힘껏치라.

彌鄒忽 (方向을 잘못 잡아 金鬚 앞으로 간다)

惠恭王 (詩牟那에게) 가서 손을 붓들어 주오.

詩牟那 네.

詩牟那 彌鄒忽을 부엍하야 鍾 앞에까지 이끌어 준다. 彌鄒忽 손을 더듬

어 撞木을 잡는다. 가슴이 벅찬 모양이다. 한 번 흑 숨을 내리 쉬며 설레이는 感激을 진정한다. 座中の呼吸은 彌鄒忽과 똑같이 흘러 간다.

惠恭王 빨이 치라. 답답하다. 알천(闕川) 냇물이 멈추고 봉덕사 청기와 흥들뽀가 흔들리도록 힘껏 치라.

彌鄒忽 활시위를 켈기듯이 撞木을 힘껏 뒤로 잡아 단겼다가 全身의 힘을 쏟아 내리친다. 그러나 意外로 소리가 아니 난다. 晴天벽력을 맞은 듯 座中은 茫然히 입만 버리고 있을 뿐. 彌鄒忽 항급히 다시 撞木을 내리친다. 소리는 나뉘 울림(響)이 없다. 不安과 焦燥 속에 소리만 기대리고 있던 金甌은 絶望과 憤激 속에 칼을 빼어 「에이 해망한 녀석」—喝하고 彌鄒忽을 내리친다. 彌鄒忽은 보지는 못하되 찬기에 本能的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선다. 金甌 다시 치려 할 때 公主가 悲鳴을 發하며 彌鄒忽을 막아 선다. 金甌은 智照大師와 金隱居에게 두 팔을 붓들리고 몸부림친다.

- 金甌 (怒氣冲天하야) 시중 나를 붓잡지 마오. 저 놈을, 저 놈을 하늘을 대신하야 내가 벌하겠소.
- 金隱居 상대등, 어전이오. 그 칼 노시오. 일국의 재상으로 황감하게도 성상의 어전에서 이 무슨 망둥이오.
- 金甌 (미칠듯이 絶叫한다) 나를 붓잡지 마오.
- 智照大師 검교사님 어전이외다. 어전이외다.
- 金甌 스님 이 팔 노시오.
- 金隱居 상대등, 이 무슨 무엄한 행동이오. 더욱이 외국 사신들까지 빈대 한 이 자리에서 이 무슨 망둥이오.
- 滿月夫人 (激昂하야) 시중, 상대등을 붓들지 마오. 스님 그 칼을 붓잡지 마오. (다시 金甌에게) 빨리 그 칼로 저 맹인을 치시오. 어서 치시오.

金甌 쥐었던 칼을 툇 떨어트린다. 「상감마마」 한 마디 부르고 그 자리에 부복한다. 一國의 宰相으로 自己自身을 것잡지 못하고 이처럼 어저러운 행동을 한 金甌이 座中에겐 오히려 惻隱했다.

滿月夫人 (秋霜같이) 왜 못치오. 어째서 못치오. 상감이 보시는 눈 앞에서 당장 치시오. 주공의 목을 버힘으로서 상대등의 직책은 다 하게 되오? 상감은 고사하고 신라의 역조 창생에게 면목이 스오? (다시 마루를 발로 구르며) 물러가오. 소리도 나지 않는 종을 놓고 극성식이 무슨 극성식이요? 허새비를 세워 놓고 나라의 상하를 들어 제사를 드린 것과 무엇이 달르오? 만조백관 앞에서 나를 우세를 시킨 것도 용서할 수 없거늘, 칼부림이 무어요? 그리고도 신하의 으뜸으로 능히 창생을 거느릴 수 있겠소?

惠 恭 王 상대등 대관절 이게 어찌된 일이오?

金 邕 ……

滿月夫人 그 칼로 저 종을 깨트리시오. 나로서는 병어리종을 선왕께 바칠 수는 없소. 상감에게 유언을 남기신 채 편안이 승하하시지도 못한 선대왕의 령전에 저 폐물을 바치란 말이오?

金 邕 상감마마, 신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惠 恭 王 경이 죽는다니 국사는 어떠케 하란 말이오? 경은 하늘이 몇 백 년만에 한 번 나리신 인물이거늘 이 일로 죽는다면 신라가 가엽지 않소?

金 邕 상감마마. (느껴온다)

惠 恭 王 (彌鄒忽에게) 다시 한 번 쳐보라.

滿月夫人 당장 안 나든 종이 섰다 친다고 나겠소니까. (彌鄒忽에게) 바른 대로 아뢰라. 죄가 두려워 검교사와 부동하고 거짓을 아뢰는 게 아닌가?

彌 鄒 忽 천지신명께 맹서하되 이 두 귀로 똑똑이 들었사옵니다.

滿月夫人 정말로 소리가 났단 말이지.

彌 鄒 忽 네. 선대왕께서 바라시고 또한 소신이 내고저 하든 그 종소리가 분명히 났었습니다.

金 隱 居 금방 처서 안나는 소리가 언제 났었다고 그런 허위웃 소릴 하느냐.

彌 鄒 忽 아닙니다. 이 번에도 만일 실패를 하면 소인은 도라가신 스승을 따라갈 결심을 하고 틀을 뜯었던 것입니다. 또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까 두려워서 소인은 쳐보지도 못하고 우선 검교사님께 아뢴드니 검교사님께서 달려 오셔서 종을 쳐보셨습니다. 지금도

소인은 노래의 곡조를 외우듯 이 종의 울림소리를 외울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또아리처럼 돌아서 우이로 퍼져가는 이 종소리를 들을 때 소인과 가치 五年 동안 공방에서 고생한 여러 사람들은 너무도 느껴워서 종을 붓들고 목놓아 울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쥔 채 소리를 들었습거든 버리지같은 목숨이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을 아뢰겠나이까.

- 滿月夫人 그럼 밤 사이에 마귀가 들어갔단 말인가?  
 彌鄒忽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나이다.  
 惠恭王 두 달 동안 다듬고 가꾸는 사이에 혹 실수한 게 아닐까.  
 彌鄒忽 어제밤 이 종각에 매달 때도 분명이 울었습니다.  
 詩牟那 어마마마, 종소리는 이 시무나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金隱居 그럼 공주께선 근자에도 공방엘 드나드시었소.  
 詩牟那 제 침실에서 야밤에 들었습니다.  
 金隱居 침실에서?  
 詩牟那 네, 자다가 어렴풋이 슬픈 소리에 잠이 깎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고 종소리였습니다. 분명코 이 봉덕사 쪽에서 은은이 들려왔었습니다.  
 滿月夫人 이러구 앉았으면 무엇하는 건고.

滿月夫人 자리에서 일어선다. 金隱居 外國 使臣들도 따라서 일어선다.

- 詩牟那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막으며) 어마마마 종을 한 번 조사해 봄이 어땠소니까? 반듯이 무슨 곡절이 있거나 그러치 않으면 누가 해방을 냈나 봅시다.  
 惠恭王 참말 한 번 조사해 보는 게 좋겠소. (彌鄒忽에게) 박사가 세세히 조사해 보라. 혹 금이 갔거나 깨진 대는 없나?

彌鄒忽, 鍾體를 만져 보며 한 바퀴 돈다. 아무대도 傷한 곳은 없나 보다. 설음이 북바쳐 鍾 앞에 엎더져 운다. 이 때 ムラサキ姬의 비단을 찢는 듯한 悲鳴.

ムラサキ あれえ, 博士さま, 女が, 女が

- 彌 鄒 忽 (영문을 몰라) 네?  
 詩 牟 那 ムラサキ, どうしましたの?  
 ムラサキ お姫さま, 女の裳裾[モスソ]が 裳裾が  
 詩 牟 那 え?  
 ムラサキ あすこに, あの鍾の中に 女の裳裾がちらと見えましたわ.  
 金 隱 居 무어 말이오?  
 ムラサキ 저 종 속에 녀인내가 들어 있나 봐요. 치마끝이 뵈었어요. 제가  
 소리를 치니까 냉큼 끌어 되리겠지요.  
 金 隱 居 (종 앞에 가서 大喝한다) 누구냐, 그 안에 숨은 게 (칼을 빼며)  
 이리 나오느라. 냉큼 나오지 못하겠느냐.  
 惠 恭 王 그대로 잡아 끌어내오.

金 隱 居 밑으로 손을 넣어 치마자락을 잡아 끈다. 안나오므로 기어 들어가 女人을 끌고 나온다. 하얀 素服한 李花女다. 座中은 異樣한 興奮과 驚愕에 싸였다.

- 惠 恭 王 네가 누구냐?  
 李 花 女 (말없이 운다)  
 金 鬮 (경악하야) 너 梨花女가 아니냐  
 李 花 女 검교사님.  
 滿 月 夫人 상대등 리화녀라니?  
 金 鬮 검님께 바친 어린애의 어머니외다.  
 彌 鄒 忽 (李花女라는 소리에 愕然한다. 그의 앞으로 가드니 激昂에 떨리는 소리로) 거긴 왜 들어갔소? 무엇하러 거긴 들어갔소?  
 李 花 女 ……(울 뿐)  
 金 鬮 그만큼 했으면 살인을 했어도 용서할 거다. 벌서 몇 달 을 두고 이러는 거냐. 나랏일을 위하여 자식을 바친 게 그러케도 원통하냐.  
 李 花 女 검교사님…….  
 彌 鄒 忽 아니 당시는 날더러 어린애 목소리가 들구 싶으니 하로 바빠 종을 완성해 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어서 종을 만들어서 당신을 위로할려고 했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이오? 더욱이 어전에서……

李花女 박사님 용서해 주세요.

彌鄒忽 대관절 무엇 때문에 그 속에 들어 갔었소?

李花女 종이 울지 못하게 종에다 몸을 대고 있었어요. 종이 안울면 저 종을 바셔버리실 줄 알구요.

滿月夫人 오, 요망한 계집같으니. 지금 박사의 말을 들으니 하로 바빠 종 소리가 들구 싶다고 했는지 않나?

李花女 네.

滿月夫人 그런데 이제 와서 울지 못하게 할려는 건 무슨 리윤고?

李花女 섭정마마, 소녀는 종이 그러케 울 줄은 몰랐었습니다.

滿月夫人 무어랴? 그래 어떡케 울었기에 깨트리기를 바랐노?

李花女 어밀레 어밀레 하고 청승스럽게 읊니다.

滿月夫人 무어? 「어밀레」 하구 읊어?

李花女 네. 소녀는 종 속에 딸자식이 부처님 보호 아래 편안히 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소리도 그에 숨결같이 부드럽고 가끔 밖에 나갔다 로인네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듯 귀엽고 정다운 줄 알았습니다. (突然 미칠듯이 고향을 친다) 그 년은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에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에미 때문에 죽었다구 어밀레 어밀레 우는 겁니다. 그것은 종소리가 아닙니다. 저를 저주하는 소립니다. 섭정마마 저 종을 깨트려 주옵소서(운다)

惠恭王 (彌鄒忽에게) 종이 정말로 「어밀레」 「어밀레」 우는고?

彌鄒忽 절대로 그러케 울진 않습니다. 아마 애기 어머니한테만 그러케 들리나 봅니다.

惠恭王 박사 어데 다시 한번 쳐보오.

彌鄒忽 撞木을 잡으니 李花女가 귀를 막고 미친 듯 밖으로 나가 버린다.

彌鄒忽 撞木을 내리치니 新羅 千年 푸른 하늘에 雄大, 莊嚴, 和平한 종소리 흘러간다. 式場에는 이 쪽 저 쪽에서 歡聲과 함께 感激의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다. 樂部에서 풍악이 운다. 宮女들은 一齊히 鍾閣 앞으로 몰려와 늘어진 슬을 한 가닥 식 붓잡고 頌歌를 부르며 鍾閣을 빙빙 돈다.

惠 恭 王 오년만에 국업이 완성됐도다. 마음껏 갖거이 오늘을 즐기라.

詩牟那 御前으로 나아가 종용이 冠을 벗어 王에게 바친 後 彌鄒忽의 손을 잡고 御前을 나온다. ムラサキ姫 달려가 「お姫さま」 부르며 惜別의 懷를 禁치 못한다. 宮女들의 頌歌는 公主와 博士의 前途를 祝福하는 送別歌로 變해 간다.

滿月夫人 ムラサキ 돌아서서 종용이 운다. 단 한 분의 누님을 이처럼 슬프게 보내는 幼王의 玉胸은 臣下들이 참아 우러를 수 없을만치 悲壯했다.

—幕—



鐘のエミレエ

苦衷、汲み取つて呉れませうなう。

ムラサキ はい、公主さま。

百女たちの鐘は、公主と虜姫、この二人の前途を祝福して、分別語を鳴る。

鐘聲夫人とムラサキ姫、背を向けて静かに泣く。

ただ一人の姉を、悲しく見送る十四歳の幼主の胸中は、思ひやるに、再壯なものがあつた。

— 幕 —

頌歌 (鐘銘其詞曰)

紫極懸象 黃輿啓方 山河鎮列  
區宇分頂 東海之上 象仙所藏  
地居桃壑 界接扶桑 爰有我國  
合爲一鄉 元元聖德 曠大彌新

妙妙清化	遐而克臻	將恩被遠
與物雷均	茂矣千葉	安乎萬倫
愁雲忽脫	慧日舞春	恭恭孝嗣
繼業〇機	治俗仍古	移風豈遠
日恩嚴訓	常慕慈輝	更以修福
天鐘爲祈	偉哉我后	威德不輕
寶瑞頻出	靈符每生	主賢天祐
時泰國平	追遠惟物	隨心顯成
乃頌遺命	于斯寫鐘	人神齊力
珍器成容	能伏魔鬼	散之魚龍
震威鳴谷	清溜朔峰	聞見俱信
芳緣允種	圓空神體	方顯聖蹤
永是鴻福	恒恒轉重	

隱世感

まする。あれは鐘の音では御座りませぬ。

この身を呪ふ聲に御座りまする。攝政ママ

あの鐘をお潰し下さりませ。

彌那忽 この神鐘がそのやうな鳴りやうをす

る筈は夢さら御座りませぬ。

満月夫人 その女子を引立てよ。

惠恭王 博士。もう一度撞いて見るがよい。

彌那忽、再び撞く。

新羅千年の真容に、雄大、壯麗、平相な鐘の音が流れて行く。

式場のそこ、から、歡聲と共に感涙の泣聲がはげした。聖  
郭からは風雲の音、宮女たちは一齊に雛閣の前に降り立ち華  
れ下つたテープを手にして、頌歌を歌ひながら、ぐるぐる廻

る。

惠恭王 五年目に國の大業は成つた。心ゆく

まで今日の喜びを喜ぶがよい。

詩牟奈、王の御前に進む。

詩牟奈 上監ママ。この冠を……

詩牟奈、冠から冠を脱いで手に擦けた後、惠恭王の手を取つて御前を退下する。

ムラサキ (駆け寄つて撞く) 公主さま。

詩牟奈 ムラサキ姫。そなただけはわらはの

鍾のエレミエ

彌那忽 では、そも何のために鐘の中へなど

入られた?

梨花女 鐘が鳴らぬやう、鐘の内側に身を寄

せかけて居りました。鳴らねば、あの鐘は

錆潰されるに相違ないこと……。

満月夫人 こゝな痴れ者奴が!そちは一日も

早う鐘の音が聞きたいと博士に申したさう

ではないか。

梨花女 はい。

満月夫人 一日も早う聞きたがつてゐたその

鐘の音を、この場で鳴らぬやう計り居つた

は何故ぢや。

梨花女 攝政ママ。鐘があのような音を出さ

うとは夢にも存じませなんだゆゑに御座り

まする。

満月夫人 どのやうな音を出した?

梨花女 エミレエ、エミレエとら悲しく泣

聲のやうに響きまして御座りまする。

満月夫人 何ぞ?エミレエと泣聲が致した。

梨花女 あの兒は神佛の加護で、鐘の中で安

らかに寢て居るものとばかり存じ上げて居

りました。鐘の音もきつとあの兒の息づか

ひのやうに柔順しく、可愛ゆく、情のこも

つたものに違ひないと存じ上げて居りまし

た。(突然、氣狂ひのやうに呻叫する) あの兒はこ

の身を怨んで居りまする。この母を憎んで

居りまする。この母のために死んだと、エ

ミレエ、エミレエと泣きながら訴へて居り

世 威

梨花女 …… (泣く)

金龜 未だにそちの氣持は暗れなんだか。も

う許してくれてもよさうなものではない

か。男の子であれば、虎牌を帯びさせ國の

護りに戰の庭へ立たすべきもの、そのやう

な母が、新羅にいまだただけ居ると思ふ?

國の幸せのために、女兒を捧げてそちはそ

れほどまでに怨み居つたか。

梨花女 檢校使さま…

彌鄒忽 あれほどに私を呪ひ…私から光り

まで取り上げて置きながら、またそなたは

そのやうな眞似を…お國の大事をぶち壊

さうとしなさる。どうしたら、そなたのお

氣が済むのぢや。

梨花女 博士さま。お許し下さりませ。

彌鄒忽 鐘の出來上る前夜、そなたは工房を

訪ねて參つて、一日も早う仕上げてくれよ

と頼まれたではないか。

梨花女 ……

彌鄒忽 やゝの聲が聞きたいと申されて…

鐘の音を聞きながら、やゝと話しをする氣

で一生を送りたいと申されたではないか。

私はそれに力づけられ、一日ごころか一刻

も早う鐘を仕上げて、そなたを慰めようこ

存じて居た。さうしたそなたがこの期に至

つて何といふ情ないやり方…殊に御前を

も憚からず…

梨花女 博士さま…お許し下さりませ。

鍾のエレミエ

裳裾が：

詩牟奈 え？

ムラサキ あそこに、あの鐘の中に、女の裳

裾が見えます。

金隠居 何と申される。

ムラサキ 鐘の中へ女が隠れて居るに相違御

座りませぬ。裳裾の端がちらと見えまして

御座ります。わらはが聲を立てると引き

入れまして御座ります。

金隠居 (鐘の前に行つて大喝する) それに潜んで

居る者は何奴ぢや。(刀を抜いて) 出て参れ

つ、出て参らぬかつ：

惠恭王 (反腕がないので) 引きすり出すがよい

ぞ。

金隠居、鐘の下に手を入れ、裳裾を掴まへる。出て来ないの

で這ひ込み女を引きすり出して来る。白装束の梨花女である

一座は異様な騒動と團扇に伺まれてしまふ。

惠恭王 何者ぢや？

梨花女 (無言で驚く)

金隠居 (俯聞して) おつ、梨花女ではないか。

梨花女 檢校師さま。

満月夫人 上大等のお知邊か？

金隠居 いゝえ。いけにえを捧げましたる梨花

女と申す後家に御座ります。

彌郷忽 (梨花女だと聞いて愕然と驚く。梨花女の前に進

み、懼りに震へる聲) 何しに鐘の中へなぞ入り居

つた？何しに入つたのぢや？

感世隱

されましたか?

詩牟奈 臥床で夜半に聞きました。

金隠居 臥床で?

詩牟奈 悲しい音に夢を破られました。鐘の

音で御座りました。奉徳寺の方から殷々と

響いて参る鐘の音で、わらはは、神鐘が克成

したのぢやと悟りました。

満月夫人 引取りませうぞ。

満月夫人、席を立つ。

金隠居、使童たち、ついで立つ。

詩牟奈 (一足進んで遮りながら) 母上。鐘を今一

度お調べなさるがようござりませう。理由

なきこととも思はれませぬ。何かと邪魔立

て致して居るやも計られませぬ。

惠恭王 (安堵の色を見せて) よくぞ気が付かれ

た。(彌都忽) 博士が仔細に調べて見よ、

罽が入つたか、割れては居らぬか。

彌都忽、鐘體を撫でながら一廻りする。どこにも異状は見つ

からぬ。悲しみがつき上げて來て、鐘の前に打伏して泣く。

この時、ムラサキ姫の鋭い悲鳴。

ムラサキ あれえ、博士さま。女が…女が…

彌都忽 (わけが判らず) 何と仰せられます。

詩牟奈 ムラサキ姫。如何致しました?

ムラサキ 公主さま。あそこに女の裳裾が…

鐘のエレミエ

れて来るのを、私奴は長い間仰げずに平伏  
いたして居りました。土器のやうな音がせ  
ぬか、鯨が入つては居らぬかとそれが怖う  
御座りました。やつと無事な鐘の姿を見る  
より、直ちに檢校使さまにお報らせ申し上  
げますと、檢校使さまは直ぐさま驅けつけ  
られ、御自分で鐘を撞いて御覽せられまし  
た。いまでも私奴は歌の節を覚えてゐるやう  
に、この鐘の響きを暗んじて居りまする。  
下の方よりゆるやかに鐘體を押し包んで擴  
がり行くこの鐘の響きを聞きながら、五年  
の間私奴と苦勞を共にいたしました工房の  
者共は、嬉しさのあまり、聲を放つて泣き  
出しまして御座りまする。死を覺悟し、刀

を握り締めて鐘の響きに耳を傾けました私  
奴が、何とて嘘偽りを申し上げることが御  
座りませう。

満月夫人 では一晩の間に悪魔がこの鐘に乗  
り移つたごでも言やるか。

彌那忽 恐れながら如何なる次第か、心得ぬ  
ことに御座りまする。

惠恭王 仕上げのふた月の間に、何か失敗り  
は致きなんだか。

彌那忽 昨夕、鐘閣に釣ります時も、しかと  
鳴りまして御座ります。

詩牟奈 母上、鐘の音は詩牟奈もしかと耳に  
致しました。

金隠居 公主さまは近頃も工房へお出入りな

慶世威

啞の鐘を擽げることば叶はぬぞよ。

金隠居 上大等は音のせぬを承知の上で今日

のこの席を設けられたので御座らうがな。

金隠居 ……

惠恭王 上大等。よもやそちは嘘偽りを申

したのであるまい。

金隠居 上監ママ。罪萬死に當りまする。

惠恭王 そちが死んだとて、國の大事は残る

と申すもの。まつたそちは幾百年目に一人

有るか無きかの天の賜はつた偉大な人物、

そちが死ねば新羅の國が不惑ぢや。

金隠居 上監ママ。(嘆び泣く)

惠恭王 (彌鄒忽に) 今一度撞いて見よ。

満月夫人 間を置いて撞き直したとて、鳴る

道理はありませぬ。(彌鄒忽に) 有體に申上

げよ、そちは罪を怖れて、檢校使と口うら

を合せ、嘘偽りを申し上げたであらう。

彌鄒忽 天地神明に誓ひまする。しかごこの

耳で聞いたに相違御座りませぬ。

満月夫人 まこと音が出たと申すか。

彌鄒忽 は。先大王もお希み遊ばし、臣も願

つて居りました、鐘の音が出ましたに相違

御座りませぬ。

金隠居 現に鳴らなんだではないか。まあだ

口賢しく偽りを申すか。

彌鄒忽 この度も失敗りましては、亡き師匠

の後を追はむと、覺悟の上で鑄型を外しま

して御座りまする。鐘體が土の中から現は

鐘のエレミユ

前も御座るぞ。お場所柄を辨へられい。

満月夫人 (薄着して) 侍中、上大等を放しや、

和尚、その腕を放しや。(金毘) 早うあの

盲人を斬らぬか、斬れいと申したら。

金毘、開つてみた刀を昏ろりと落とす。「上監ママ」と一聲叫

んで、その場に打伏し咽び泣く。一國の宰相の身でありなが

ら、我を容れて取り亂した金毘の旁に、一座の者は同情の眼を

向けてある。

満月夫人 (秋霜の如く) なぜ斬らぬ！上監の御

前で直ちに斬り捨てませい。鑄工を斬るの

も上大等の務めで御座るぞ。上監を始め奉

り、新羅の人たちの前に、そなたは何の面

目あつて顔が向けられる？(再び板の踏み鳴らし

ながら) 退り居らう。音もせぬ鐘の前に、克

成式なぞとは以ての外ぢや。案山子を前

に、國の上下を擧げて平伏したのと變りな

いぞよ。諸外國の使臣の前で、わらはを恥

かしめたる罪、許せませぬぞ。それのみ

か、御前をも憚らぬ抜刀沙汰、それでよう

も宰相のお役が勤まりましたなう。

惠恭王 上大等、これはそも何としたことぢ

や？

金毘 ……

満月夫人 その刀で鐘を割りませい。鳴りも

せぬ鐘を先大王に捧げることば叶はぬ。上

監ママに御遺言も賜はらず、心を残してお

かくれ遊ばした先大王の靈前にあのやうな

威世體

惠恭王 早う鳴らせよ、もどかしいぞ。關川

の流れも止まり、奉徳寺の青瓦や紅柱が吹き飛ぶほど、力強く鳴らして見よ。

彌都忽、聲高を引きしほる時のやうに、掃木を力一ぱい引き寄せて全力をこめて掃く。しかし、聲外にも音が出ない。

一塵は茫然として口を開けてゐるばかり。彌都忽、降ていもう一度掃木を掃く。音はするが響かない。

不安と焦燥の中に彌の鳴るのを待つてゐた金世は、絶望と憤激の中に力を抜いて「うゝ、うゝ、うゝ、うゝ」と一喝して打ち下す。

彌都忽、目は見えぬが殺氣を感じて本能的に一塵飛びすさる。金世がもう一度打ち下さうとすると、公主が悲鳴を上げて彌都忽をかばふ。金世は智照大師と金隱居に両脚を掴まれ

てもがく。

金世 (怒り心腹に殺し) 放されい。あの痴れ者

をそれがしが天に代つて誅してくれる、放されい。

金隱居 上大等、御前で御座るぞ。刀をお捨

てなされい。一國の宰相の身でありながら、上監ママの御前をも辨へぬとは何事ぞ。御座る。

金世 (氣壯ひのやうに福叫する) ええい、放せと

申すに。

智照大師 檢校使どの、御前で御座るぞ。御

前で御座るぞ。

金世 和尚、放されい。

金隱居 鎮まれられい、上大等。外國使臣の手

鐘のエレミエ

の住持、智照大師。日本遣新羅使級後、金初正、鑄鐘助教、朴韓味、同判官、忠封、祿事、一桑。功勞によりそれぞれ賞を賜ふ。閉式後居残られませい。

——間——

金隠居 神鐘始撞。

鑄鐘次博士、大奈麻、彌鄒忽。

遠くで返音の聲。『ははあ』

一座の禰羅が一齊に下手の二張に集まる。彌鄒忽、手探りで文武百官が輪廻星の如く居並んでゐる前へ進む。方向が判らず、足を留めて暫く立ち竝す。

惠恭王

(恐懼して立ち竊めるものと思ひ) 苦しうな

い。近う。近う參つて、そちが五年の水い

年月、心血をそゝいで鑄上げた神鐘を、新

羅中に響けと力一ばい鳴らして見い。

彌鄒忽

(力首を避へて金隠の地へ行く)

惠恭王

(詩奈奈に) 手を引いてお上げなされ

い。

詩奈奈

恐れ入り奉りまする。

詩奈奈、彌鄒忽を助けて鐘の前へ廻く。

彌鄒忽、手探りで撞木を觸む。胸が一ばいなのであらう、ほとと息を吐らし、暫らく感激を押へることなし。一座の呼吸は彌鄒忽のそれに、知らずく彌子を合せてある。

威世德

詩牟奈 母上。わらは平民となつて、彌鄒忽に從ひ度う存じまする。

滿月夫人 何と？

詩牟奈 顔さへこのやうに醜う變り果てたわらはが、公主のまゝで居りましては、國の恥にもなりません。のみならず彌鄒忽には親兄弟も身寄りもなく、天地の間に身の置き所がないと申します。位一等を進められ罪を許されるよりも、流罪になつた方が彌鄒忽には、寧ろ願はしい事かも存じませぬ。その彌鄒忽に從ひ、目となり、腕となつて、苦樂を共にしながらわらはは埋もれて生涯を送りたいと存じまする。

左右に梅置んだ宮女たちの間から泣き聲が洩れる。彌月夫人も顔をそ向けて涙を拭く。

金隠居 上監ママに申し上げます。このや

うなことは、嘗て新羅の國法には御座りませぬし……

惠恭王 (鋭く語りながら) 待たれい。言はれず

とも承知の上で御座るぞ。(公主に) 姉上。

許しますぞ。心置きなく、参られませい。

詩牟奈 上監ママ。(離して泣く)

詩牟奈 自席へ戻る。

金隠居 (王の氣持を和めようと一きは大きく) 奉徳寺

エミレの鐘

を失ひましてからは、一層職を辭したう御

座りましたが、そのたびに、畏れ多くも公

主ママは、臣を御勵まし遊ばされ臣に力を

おつけ遊ばして下さりました。臣が力を落

さす、木目この神鐘を鑄上げましたるは偏

へに公主ママの御てがらに御座りまする。

惠恭王 (百貫づく)

御前を退き、白階に居る。

金隠居 神鐘始撞。

惠恭王 (侍下) 論功行賞に公主詩牟奈を加

へられませい。

金隠居 論功行賞。公主、詩牟奈ママ。

詩牟奈、攝政の傍より下り下つて、王の御前に平伏する。

惠恭王 姉上。姉上には何を進ぜよう。

詩牟奈 上監ママ、わらはも手柄を立てた一

人で御座りませうか。

惠恭王 姉上のお手柄にはどのやうにしてお

酬ひすれば宜しからう。

詩牟奈 折入つてお願ひが御座りまする。

惠恭王 申されい。

詩牟奈 わらはを一介の平民にして戴きたう

存じまする。(非壯な顔で手を掲げる)

惠恭王 平民?

満月夫人 (飛び上つて) 詩牟奈。何といふこと

を申すのぢや?

世 威

一同、駭動。

金隱居 鏘鎮次博士、奈麻、彌鄒忽。

一等を進めて大奈麻に進めさせられますぞ。

彌鄒忽、有難き御誼と拜しまする。

惠恭王 聞けばそちは陸奥の國へ參るとな。

何を望みはないか？

彌鄒忽 恐れながら望みごとで御座りませぬが

本目日出度く神鐘が克成いたしましたるは

これ臣の技術にばかり負ふものでは御座らな

く、ひたすら公主ママの御勵ましと御力添

えに依るもので御座りまする。

惠恭王 公主の？

彌鄒忽 怒れ入り奉りまする。臣は度重なる

失策に、師の後を追うて幾度自決を思ひ立

ちましたことで御座りませう。ここに視力

彌鄒忽、見よ、目をしぼたくまながら手探りで御前へ進み出て平伏する。

満月夫人 新羅の王女であり、婚儀を目前に

控へた公主に戀慕せし、そちの大罪は新羅

の國法を枉げても差し許すことは叶はぬ。

神鐘の克成と共に、直ちに欲知島へ流配申

し付くべきところ、今日の喜びは偏へに博

士のでがら、わらは一人にてこれを祝ひ度

うは無い。特にそちの罪を許し、功に依り

鍾のエレミエ

**金龜** (再び額をこすりつけ) 恐れ入り奉りまする

金龜、自分の席へ戻る。

**隠居** 鑄鐘檢校副使、執事部侍郎、阿奈

**金體信**

金體信、夢ではないかと、恐る恐る御前に進み出て平伏する。

満月夫人 阿奈が公主詩牟奈を工房へ誘ひ出したる筈に依り、閉門申し付けたるも、それとて、花郎に相應はしい仁義の心から出たこと、上大等より聞き及びました。上

大等をよく補佐し、神器化成に盡したる功

勞は、そのやうな些やかな罪を償つて餘る

ものと思ひます。こゝにそなたの閉門を解

き位一級を進めて大阿奈に叙します。

**金體信** 恐れ入り奉りまする。

金體信、御座の色を繕し切れの陣す。

金體信、白席へ戻る。

**金隠居** 神器化成途上において、死を以て失

敗の罪を謝せる鑄鐘大博士、大奈麻、下典

及び神器のためにいけにえとなれる幼き女

兒の英靈に黙禱を捧げまする。

感世徳

金隣居 (式贈爵)

論功行賞。

鑄鏡檢校正使 上大等兼兵部令 大角干

金巵。

金巵 御前に一足進み、平伏する。

満月夫人 上大等、御苦勞でありました。今

日、神鏡が出来上り、攝政が先大王に忠誠

の眞似事が出来ますのは、偏へにそなたの

お骨折のお蔭のみならず、一吉塗の謀叛

の節も、そなた無かりせば、上監ママにも

攝政にも、この座に坐ることは覺束なかつ

たと思ひます。上監ママの股肱であり、最

高の位にあるそなたを、新羅の官職では表

彰する道がありません。特に五百石の増加

を賜ひますゆえ、上監ママに一層忠勤を勵

みますやう。

金巵 聖恩の忝けなき、恐懼感激の極みに御

座りまする。

惠恭王 望みが有らば、躰らはずに言うて見

るがよい。ならうことなら叶へて取らす

ぞ。

金巵 恐れながら、お聞け届け下さりませう

か。

惠恭王 聞き届けて遣はす。申して見い。

金巵 副使金體信、まつた次博士彌鄒忽の…

惠恭王 (驚) 言はれぬ先に沙汰したぞ。

鐘のエレミエ

の行か憺ち有らん乃ち遺言を願ふて遂に宿  
意を成すこと爾り其の有司は事を辨じ工匠  
は模を講し歳は大淵に次り月は惟れ、大呂

是の時日月輝り、借し陰陽氣を調へ風和ぎ  
天靜かに神器化成し狀は岳立の如く聲は龍  
吟の若し、上れば有頂の嶺に徹し潜めば無

底の下に通ず、之を見る者は奇と稱し、之を  
聞く者は福を受く、茲に妙因を願ふて尊靈  
に奉翊し、普聞の清響を聴いて無説の法筵

に登り三明の勝心を契ふて一乘の眞境に居  
む乃ち瓊蕊の叢に至り金柯を共しくし以て  
永く邦家の業を茂くし鐵圍を將めて而して

彌々昌んに有情無識慧海波を同ふして成ことごとく  
く塵區を出て並に覺路に昇らん、臣彌文拗

く才無きも敢て聖詔を奉じて班超の筆を貸  
り陸佐の言に隨ひ其の願旨を述べ銘して鐘  
に記すものなり。

右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駟府  
令、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竝檢校  
眞智大王寺使、上相、大角干、臣、金盛

副使 執事部侍郎 阿奈 金體信  
判官 右司祿官監 級奈 金彼得  
判官 級奈 金忠封

祿事 奈麻 金一桑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

鑄鐘大博士 大奈麻 下典  
次博士 奈麻 彌鄒忽  
助教 奈麻 朴韓昧

## 感世

で、禮樂を崇んで以て風を觀ひ、野には農  
 を本とすることを務め、市には物を濫りに  
 することなく、時は金玉を嫌け世は文才を  
 尙び、子靈を意はずして心老の誠有り、四  
 十餘年邦に臨み政を勤め、一たびも干戈の  
 百姓を驚擾すること無し所而に四方隣國、  
 萬里實に歸し、唯欽風の望有りて未だ曾て  
 飛矢の窺あらず、燕秦の人を用ひ、齊晋の  
 鞠を替ふると、豈に輪を並べ轡を雙つて言  
 ふべけんや然かも雙樹の期は測り難く、千  
 秋の夜は易らかく長へに晏鶯已來今に三十  
 四なり、頃者孝嗣景德大王在世の日本業を  
 繼守して庶機を監撫し早く慈規を隔て星霜  
 に對し而して戀ひを起し、重ねて嚴訓に遣

へ闕殿に臨み以て悲ひを増し、追遠の情轉  
 た悽しく答魂の心更に切なり。  
 敬て銅十二萬斤を捨て一大鐘一口を鑄んと  
 欲し志を立てて未だ成らず、奄かに就世を  
 爲す、今我が聖君行は祖宗に合し意は至理  
 に符ひ殊詳千古に異り今德常時に冠たり、  
 六街の龍雲は蔭に玉階に灑き九天の香鼓は  
 震つて金闕に響き葉米の林は外境に離々乎  
 たり、非煙の色は京師に換々乎たり、此れ  
 即ち效に誕生の日に報ひ其の臨政の對ひ應  
 するなり、仰ぎ惟るに大后の恩は地平の若  
 く黔黎を仁教に化し心は天鏡の如く父子を  
 孝誠に獎めらる、是れ朝に元舅の賢夕には  
 忠臣の輔言として擇らざるなきを知る。何

エミレエの鐘

な神鐘がかつてゐる。響龍と鷹捕がある鐘頂より、五舌の  
テープが無数に張り廻らしてある。

式場の周圍には幔幕。

中央に一段高く玉座。左に攝政が座し、その横に語申奈とム  
ラサキ姫が並んでゐる。その下の段から、官位の順に金世、金  
驛尉を筆頭に重臣元老たち。

右側に外國使臣の席。

左側に聖人と宮女たち。

下手の一段に彌都忽と孫助昧の姿が見える。

御師も揃くやうな壯軍左衛門尉の聲の中に轟騰く。

神祇使金喜が王の御前に一足進み、朝敵太夫、前太子、金喜  
雲が誓言を奏して押したる鐘銘を讀み上げてゐる。

金喜居

夫れ至道は形象の外を包含し、之を  
視れども其の原を見ることが能はず。大音は

天地の門に震動し、之を聴けども其の響を  
聞くこと能はず。是の故に假説を憑開して  
三真し奥載を觀はし、神鐘を懸擧して一乘  
の圓音を悟らしむ。

夫れ其の鐘たるや之を佛士に稽ふれば、則  
ち謂臚に驗在し、之を帝郷に尋めれば、則  
ち鼓延に始制し、空にして而して能く鳴り  
其の響竭きす、重くして爲に轉じ難く其の  
體委げられず、所以に王者の元功は克く其  
の上に銘し茲生と離苦は亦た其の中に在る  
なり。

伏して惟るに聖徳大王、徳は山河と共しく  
而して並び峻に、名は日月に齊しく而し  
て高く懸る。忠良を擧げて而して俗を撫

德世威

### 第五幕

幕

梨花女。

智照大師。

唐皇子の使者。

其他 重臣元老。文武百官。

樂人たち。宮女たち。

惠恭王。

滿月夫人。

詩牟奈。

ムラサキ姫。

金慈。

金隱居。

金體信。

彌鄒忽。

朴韓昧。

大伴伯彌伯麻呂。日本國の勅使。

惠恭王六年十二月十四日。

神懸舞成典。

丁房の中へ臨時に設けられた京成式場。

國樂が完成されて、神懸落成儀式が盛大に催されてゐる。

中央に假設の舞臺。

朱唐鐘やく四木の四柱。

その中に、舞臺最高の技師が凝つて成つた舞臺、舞臺、雄大

鐘のエレミエ

正せざる。

朴韓味 何といふことをなされたので御座り

ます、博士さま。

彌鄒忽 判官。銅が着きましたか。

朴韓味 はい。……こんなことなら、私奴が

お側について居りましたのに……

彌鄒忽 銅を見せなされ。

朴韓味 此處に御座ります。

彌鄒忽 (天を仰いで、深い淵息を洩らしながら) 仕事

にかゝりませう。いま一息で御座りませう

儂は目こそ潰れはしたがその代り、初き立

、つこの銅汁のやうな力と勇氣が出て参りま

したぞ。早くなされ。何をぐづぐづしてお

出でぢや。

一回、自分の部屋につく。

彌鄒忽 一刻も早う銅を熔かしなされ。今宵

こそ、この體に充ち満ちる感激と情熱を以

て、彌鄒忽一世一代のほまれをかけた、千

萬年後までも残る神鐘を鑄上げるのぢや。

一回、彌鄒忽の言葉に元氣づき、力強く仕事にとりかゝる。

天に伸する火花が、梯子の上に立つて招撞する奇聲と前道の

鷲びに輝やく博士の顔を照らし出す。鑄を融し者、鑄口に炭

灰を放り込む者、銅液を運ぶ者、場内の異様な騒動の中に鐘

殻の消遣譜が勇ましく奏でられる。

隱 世 威

この時、命初正二行が馬車を牽いて近づいて来る。秋空に響く馬の嘶き。種々の音車輪の軋みなどが、段々と近密つて来る。彌那忽、手探りで密羅壇の梯子を登る。醫博士小野博臣、入つて来て、これを見るや大喝する。

小野博臣 あつ、何としたこと。あれでは目

が……

彌那忽 日本國の醫博士さま。何とも申譯御

座りませぬ。

小野博臣 えい、たはけ奴が！これまで療

治したそれがしの苦勞も考へずに、わざと

目を潰すなど、以ての外ぢや。たはけ奴

が！何と申譯しても、容赦はならぬぞ。檢

校使殿に申し入れ、きつと糾明申し付けて

くれるわ。

小野博臣 何をなさるのぢや、博士どの、氣

が狂はれたか。

彌那忽 (泰然と梯子を降りぬ)

小野博臣 博士、お降りなされ。熱氣に近づ

いてはならぬと申すに。

彌那忽 引き止める小野博臣を振り拂ひ密羅壇の上に顔を突き出して、目の翳障を解く。

小野博臣、かゝかんに怒つて出て行く。隨行員と一緒に胸の袂を熱いであつて来た鎗丁、賦役の夫夫たち、これを目撃して茫然と彌那忽を眺めやるのみ。やがて林崎が、その前に

鍾のエレミエ

は、人を戀ふる道では御座りませぬ。

詩牟奈 (胸が一杯らしく、體を震はせる)

ムラサキ 可愛しきは顔形にばかり依るもの

では御座りませぬ。このことばは公主さま

が幾度もわらはにはにお聞かせ下さりました

答……

詩牟奈 それちやとて……それちやとて……

博士にこの醜いお顔をお見せするよりは、

いつそわらはが死んでしまつて……ムラサ

キ姫。それより他に術は御座りませぬな

う。

この時、馬車の近づく音が聞える。

ムラサキ 追つけあの馬車がこれへ参るで御

座りませう、さ、さ、ひと先づお寺へ、戻

られませう。

詩牟奈、ムラサキ姫に引きずられて、樹陰の中に悄然と出て

行く。公主が出て行くと直ぐ彌那忽が「公主さま」と叫んで

入つて来て、後を追ふ。ムラサキ姫と詩牟奈の話を聞いてゐ

たものと見える。突然何を患つたか、急に立ち止り、引き返

して来る。

彌那忽 (公主の出て行つた方に向いて) 公主さま。

この胸の中には、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

公主さまのお美しい面影のみを刻みつけて

置くで御座りませう。

成世彌

公主さまをお訪ねに参じますと申し上げました所、では博士に言傳を頼むどのお言葉に御座りました。

彌郷忽 忝う存じまする。

詩牟奈の顔かに頓ひ泣く聲が聞える。彌郷忽、外へ出るやうな振をする。

ムラサキ、あたりを真射す。誰も見えないので、出ようとする。詩牟奈、泣きながら飛び出してすがり付く。

詩牟奈 ムラサキ姫。

ムラサキ まあ、公主さま。こんなところに

詩牟奈 (細くて訴へるやうに) ムラサキ姫、博士をお留めして給も。詩牟奈の頼みぢやほど

に、博士を泉へ行かせぬやうして給もれ。

ムラサキ (愕然として) 何を仰せられます。

詩牟奈 (泣きながら) 博士のお目の細帯を外さ

してはなりません。博士は今でもわらはの顔が、昔のやうに美しいと思つて御座るのぢや。博士のお目が明いて、この醜い顔を見られたら、博士はどのやうにがっかりなさることであらう。

ムラサキ (愕然と) 公主さま。それはなりません。

せぬ。

詩牟奈 (詰め寄りながら) 何故ぢや?

ムラサキ 公主さま。傷ついたお顔をお見せ

したくないとて、博士さまをいつまでも首ひのまくで置かれようとお思ひなさるの

鍾のエレミエ

出来ませうし、そのまゝ銅で鑄上げること  
も叶ひませう。

詩平奈、無意識の中に手で頬の處に觸る。潤滑なげな顔。

彌鄒忽 したが、今宵の丑滿時ともなればふ

た月もの間、胸の底に秘めてゐた公主さま

のお面影を、この兩の目ではつきり見るこ

とが出来ます。

詩平奈 丑滿時？（突然、大石にでも打たれたやうによ

るめくもう一度身を離はせる。迫り来る悲しい結果を目の

前にして、恐怖に血の氣が引き蒼白くなる。呻くやうな聲で

やつと）丑滿時？

彌鄒忽 はい、丑滿時に泉の水で薬を洗ひ

落せば、目が明くこのことに御座ります  
る。

詩平奈、立ち上る。身の置き場に困る風情ももう一度學ぶ。

戸隔らず、また立ち上る。

この時、ムラサキ嬢が「公主さま、公主さま」と呼び附けな  
がら入つて来る。詩平奈、急いで踵の後へ隠れる。

ムラサキ嬢、入つて来る。

ムラサキ （彌鄒忽を肩付け） 博士さま。醫博士

さまがお待兼ねで御座ります。早うお越

しなされませ。

彌鄒忽 どちらでお會ひ遊ばしました？

ムラサキ 奉徳寺へお見えで御座りました。

世 威

の詩牟奈が可愛い女子であるよりも新羅の女性の範となり、平和の使者になるのをお希みで御座りませう？

彌鄒忽 公主さま。(優しく公主を抱き寄せる。公主も

その胸の中に身を委ねて、くつくつと囁ひ泣く)

彌鄒忽 公主さま、お泣き遊ばしますな。地の果てまでも、お伴申しまする。

詩牟奈 (舞を上げて) 何れへでも、何れへでもお連れ下されませ。

彌鄒忽 (詩牟奈の涙を試いてやりながら) もうお泣

き遊ばしてはなりません。

詩牟奈 (微笑んで見せながら) わらはは泣きませぬ。

彌鄒忽 お涙の痕が、ほれ、このやうに……

詩牟奈 (急いで涙を試ひ) そのやうに、嬉しい存じまする。

存じまする。

彌鄒忽 公主さまのお涙は、どうやうなお涙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まあ、博士さまには……

彌鄒忽 公主さまの清らかなお目から流れる

涙は、さぞ露玉や水晶のやうに濁り氣のないもので御座りませうなう。

詩牟奈 博士さま。わらはの顔がお見えになるので御座りますか。

彌鄒忽 いゝえ、なれども、胸の中には、湖

心に浮べる月のやうに、公主さまのお面影

が宿つて居ります。そのまゝ描くことも

鍾のエレミエ

その一日にても生きて見たう御座ります。

彌鄒忽 公主さま。公主さまは？

詩牟奈 (涙りながら) わらはは上監ママの姉、

博士は一介の鑄工……それゆえ所詮添ふこ

とは叶はぬと、仰せられるので御座りま

う？

彌鄒忽 公主さま。公主さまは、御自分で御

自分をどうする事も叶はぬ位置に居られる

お方で御座ります。一舉一動、悉くが新

羅の女性の範となり、龜鑑とならぬばなら

ぬお方で御座ります。公主さまが鑄工の

後を追はれるなど……千萬年の後までも新

羅の恥ぢやと、攝政ママは云はすもがな、

重臣元老の方方もお許しになる筈は御座りませぬ。

詩牟奈 (すつくと立ち上り) 生れ落ちるよりこの

方、耳に臍脈が出来るほど聞かされて来た

その説法、お措きなされませ。博士にまで

それを言はせるつもりは御座りませぬ。

彌鄒忽 公主さま。

詩牟奈 博士さま。わらはを可愛いものに

思召せばお連れ下されませ、お連れ下さり

ますれば、わらはは凡てを捧げます。

彌鄒忽 公主さま。

詩牟奈 おさらばで御座ります。

彌鄒忽 公主さま。(と公主の手を握る)

詩牟奈 お離し下さりませ。博士さまにはこ

世 傳

彌鄒忽、その人たちは今武藏野と申す所を高

麗村を作つて居ると申します。

詩牟奈

(未知の國に對する憧憬をこめて) 陸奥ノ國

陸奥ノ國。

(彌かに) すめらぎの御代榮えむと

あづまなる

陸奥やまに黄金花咲く

彌鄒忽 何のお唄で御座りますか。

詩牟奈 ムラサキ姫に教はつた大伴家持と申

すお方の歌で御座ります。(突然、何かを決心し

たやうに) 博士さま、わらはをお連れ下さり

ませ。

彌鄒忽 (驚いて) 何れへで御座りますか。

詩牟奈 陸奥へで御座ります。日本のことに

びいてはわらはは、ムラサキ姫と三年も一

緒に起き伏し致して居りましたゆえようく

心得て居ります。陸路を通らず瀬戸の海

を船で参りませう。三月には櫻が咲くと申

しますゆえ、寧樂の都で春を迎へ、更にみ

月六月までには陸奥に着くで御座りませ

う。陸奥には、この國のやうに煩はしい制

度も、殿しい規律もない筈で御座ります

る。畑を耕したり、釣りをしたり、松茸を

取つたり、機を織つたり……菫が熟れれ

ば、お餅に入れてついて秋夕を祝ひ、鳳仙

花が眞赤に咲けば明礬を入れて漬して、爪

を染め……これまで、宮中では眞似さへ出

來なかつた、色々な楽しい風習の中で、た

旅のエレミエ

羅伐をお去りになるので御座りませう。

彌鄒忽 立去るには立去りますものゝ、島流

しにでもされるやうな氣持で御座ります。  
る。

詩牟奈 いゝえ。あゝは仰せられても、鐘が

出来れば檢校使さまは屹度、以前のこゝな

どはお許しなさいます。

彌鄒忽 たどへお許し下さりましても、新羅

の天地にはこの身を容れる所が御座りませ

ぬ。私奴は海を渡つて大和に行きたいと考

へて居ります。

詩牟奈 大和で御座りますか。

彌鄒忽 はい。両親がそちらに居りまするゆ

え私の故里と變りは御座りませぬが、見た

ことも、馴染んだこともない、遠い故里で

御座りまする。

詩牟奈 大和のどのあたりで御座りませう。

彌鄒忽 陸奥と申すくに御座りまする。太

宰府から寧樂ほどの道のりを、寧樂から更

に東北へ向つて迎らねばならぬと申します

る。

詩牟奈 まあ。

彌鄒忽 日本國では百済や新羅から渡海して

参つたものたちに陸奥の廣い土地を興へて

耕やさせ、部落が出来上つて、みんな幸せ

に暮して居る由に御座りまする。

詩牟奈 高句麗の人たちも澤山参つて居ると

聞き及びましたが……

世 威 體

彌鄒忽 どうしてこれへ?

詩牟奈 銅が着きました由、まことで御座り

ませうか。

彌鄒忽 はい。

詩牟奈 讀經に疲れて、ふと目をやりますと

馬車の列が蜿々と工房に向つて居りました

ゆえ、嬉しさの餘り、我を忘れて飛び出し

て参りました。もつと早う、お目もじ致し

たう存じて居りましたなれど、始終侍中さ

まが側につきまきり、出口は衛兵が固めて居

りますゆえ、まるで囚人のやうなくらし

彌鄒忽 その中を、どうしてお脱け遊ばしま

した?

詩牟奈 御佛の加護でがな御座りませう、和

尙さまが侍中さまに碁の勝負を挑まれお二

方とも僧房にお退りになりました隙に脱

けて参りました。

彌鄒忽 (殺して) 公主さま (手探りする)

詩牟奈 (博士の手を握ると、張りつめた氣が強んで)

博士さま。お會ひ致したう御座りました。

詩牟奈、博士の手を引張つて傍の火石の上に坐らせ、自分も

脚んで坐る。

何時の間にか夜は更けて周囲は雁奴に囚まれ、遠く融川に

吐き出しの山城の上へ、驟ろに月がさす。離れた臣家からの

砧の音、竈の中の鐘の音、二人の覆辭の間を時々流れ去

る。

詩牟奈 鐘が出来れば、博士さまは、この餘

鍾のエレミエ

を待つてゐる。鐘たち、仕馬を止めて一齊に彼の方へ駆け  
集まる。

御座りませうゆえ、そのまゝお留まり下  
りませ。私らだけでも事足りります。

遣日本使隨員 博士さまは何れぢや？

朴驢味、先に立たうとする博士を引き止め、隨員に促ひ、

彌鄒忽 こゝに居ります。

一回を引き連れて勇ましく飛び出す。

遣日本使隨員 銅を運ぶ馬車が紋川のほとり

の川の畦にはまりまして御座ります。馬

は疲れ果てゝどのやうに鞭ちましても立ち

ませぬし、一行の皆の者も長の道中に力盡

き果て困却致し居ります。御助力をお願

ひ申します。

詩牟奈 博士さま。

彌鄒忽 本當に御苦勞様で御座りました。

彌鄒忽 (半信半疑の體) 公主ママに遊ばします

(朴驢味に) 判官。力をお貸し申さう。

か。

朴驢味 博士さまは何かと御不自由なことで

詩牟奈 はい。詩牟奈に御座ります。

世一 間

小野博臣 それは何より。善は急げちや、早速下檢分に參らう。(行まかけて再び足を止め) 今夜も夜業で御座りますか。

彌鄒忽 はい。太宰府より銅を持ち歸りましたゆえ……

小野博臣 太宰府から? それは重燃。(突然懸念) 懸念はれたらしく、東方に向つて瓢箪を捧げる) ぢやが夜業はお目に宜しく御座らぬなう。明日に伸ばされては如何で御座る。

彌鄒忽 延引致してはなりません、釜の中には、いたいいけないけにえまで捧げられて居りますゆえ、一日も、一刻も早う仕上げねばなりません。

小野博臣 その儀なら銚方御座らぬ。ぢやが

銚鑪の側へは近寄られぬやう、吳々も申し置きますぞ。銅汁の熱氣に當られたら、その時こそもう二度と目を開くことは叶ひませぬ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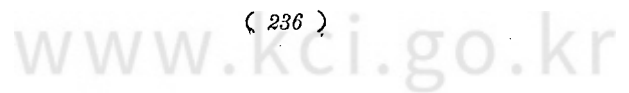
彌鄒忽 遠く離れて指圖するばかりゆえ、御放念下さりませ。

小野博臣 ではそれがしは泉の檢分に參らう。清らかな水なら直ちに人を寄越しますゆえ、御一諸にお出で下さい。

彌鄒忽 はい。

小野博臣、笑ひながら出て行く。

飛脚の命初正一行の一人、急いで入つて来る。「新羅酒日本使節船金初正一行百八十七人、異船者三十九人」と書いた旗



鍾のエレミエ

彌鄒忽 (驚いて) 熱銅を?

朴韓昧 はい。

彌鄒忽 どれ、何處に?

朴韓昧 馬車はまだ都へ着かず、級傘さまだ  
けが先にお着きなされましたさうに御座り  
ます。

彌鄒忽 もう綯帯を外しましても大事ござり  
ませぬか。

小野博臣 お承け合ひ申す。大事ござらぬ。そ  
なたはもうすつかり瘵くなられたのぢや。

彌鄒忽 (急いで脚帯を外さうとする)

小野博臣 (慌て、止めながら) 無茶をなさるもの  
では御座らぬ。今夜の丑滿時に至つて綯帯  
を外すので御座る。先づ清らかな水で薬を

洗ひ落し、それから夜空を仰がれい。久方  
振りに美しい星空が見え申さうほどに。

彌鄒忽 丑滿時で御座りますか。

小野博臣 さやうぢや。丑滿時の水が一番清  
らかに澄み、目のためになるのぢや、それ  
はさうと、此のあたりに清らかな泉は御座  
るか?

彌鄒忽 奉徳寺の裏山に竹籤が御座ります。

その竹籤の向ふに水晶のやうに澄んだ泉が、  
湧いて居ります。山木蓮が周圍を取り巻き  
山人蔘の味が致しまする、上監ママと公主  
ママには、鷹狩のお歸りの節、必らず一度  
は此の泉にお立ち寄り遊ばされ、咽喉をお  
濡ほしになられまする。

感世

金初正 さやうに御座ります。

金壘 有難いことぢや。

金初正 のみならず、おじくなり遊ばした檢

校使さまの御祖父の金順貞(前上天守)さま

の御靈前に香を賜はりましたして御座ります

る。

金壘 (受け取つて感に觸へず東方を拜む)祖父は大變

なお氣に入りやうぢやつた。

金初正 立歸る節は上監ママに純二十五匹、

絲百紵、綿二百五十屯を贈られ、それがし

らにもそれぞれ引出物を賜はりましたして御座

ります。

金壘 急げば九月までには歸れたものを、何

故遅れたのぢや？

金初正 歸途暴風に遭ひ昏岐、對島に立ち寄

りましたる所、防人たちが宴を設けてそれ

がしらを款待し、船を繕つてくれるなど言

ひ盡せぬほどの世話になりましたして御座りま

する。

金壘 早う閣下に奏上致せよ。上監ママがこ

の次第、お聞き遊ばせば、どのやうにお喜

び遊ばすであらう。

金壘と金初正、急いで出て行く。

入れ違ひに小野博臣と彌助、探泊を終へて出て來る。

朴韓味 (鑿け密つて)級倉さまが熟銅を三萬斤

もお持ち歸りなさいました。

鍾のエミレエ

金龜と旅裝をした金初正、雨しながら入つて来る。

金初正 急ぎに急ぎましたゆえ、七月七日七

夕の夜、筑紫大宰府に着きまして御座りま  
する。日本員太宰大貳が直ちに寧樂へ使者

を送りましたところ、半月目に天皇陛下に

おかせられては、外右中辨大伴宿彌伯麻呂

及び攝津大進津ノ連眞麻呂、左大臣堅部ノ

使主人主をお遣はしになり八月四日、會見

いたしました御座ります。

金龜 うむ。それで？

金初正 入國の理由を尋ねられましたゆえ委

細を詳らかに物語り、勅書と持ち参りし小

馬五匹、狗三頭、金塊千兩、布六十四、頭

髪八十兩、海豹の皮十張、虎の皮三十張、

牛黄二十兩、人參二百斤を贈りましたる所

思ひの外に喜ばれ、今後とも益々固く手

握り合つて力になり合はうと申されまして

御座ります。

金龜 有難いことぢや。

金初正 日本國でも佛像建立のため、金の必

要に差し迫られ、使ひを遣はさうかと思

てゐたこの事にて山から堀り出した銅塊で

は持ち歸つても手間取らうと申し東大寺の

大佛建立の際、使ひ残りがあつた山にて、製

鍊済みの熟銅を正味三萬貫も賜はりました

御座ります。

金龜 では、そなたの持ち歸つたは熟銅か？

世 殿

彌都忽 はい。

小野博士と彌都忽、出て行く。

鑄丁一 いつまでこの躰踏みさせねばならぬ

のぢや。

鑄丁二 日本から銅が参るまでぢやよ。

鑄丁三 その日本國の銅とやらは、何時にな

つたらお出でるんぢや？

鑄丁四 銅どころか、釘一本貰へずに、空船

で歸るとなると、どうぢや？

この時、彌事、忿いで入つて來る。

彌事 檢校使さまは何れぢや。

鑄丁一 たつた今、お寺へ行かれました。

彌事 博士は？

鑄丁二 お部屋で目の療治をなされて居ります。

彌事 日本國に赴かれた級進さまが、銅三萬

斤を積み込まれ、一行百八十七名、恙なう

一昨日の夜、迎日灣に歸り着かれたさうぢ

や。

鑄丁たち 一昨日の夜？

彌事 さやう。それ故、もう程なく都へお着

きで御座らう。

鑄丁一 あれ。あれへ、もう檢校使さまとお

越して御座ります。

鐘のエミレ

彌鄒忽 冷めるまでひと晩置いて置き、夜明けには鑄型を外します。

梨花女 では明日参ることに致します。

彌鄒忽 お大切になされ。

梨花女、黒箱を下したやうに身軽く出て行く。

小野博臣 ところでお目の具合は如何で御座

る？涙が出はせちやつたか。

彌鄒忽 出ませぬ。

小野博臣 痛みもせぢやつたか。

彌鄒忽 痛みませぬ。晴々致します。

小野博臣 ではお部屋へ参らう。新らしい薬

を持参致したゆえ……

彌鄒忽 あの……甚だ申し憎うは御座ります

が……本日は至つて多忙ゆえ、一日ほど延

引いたしては叶ひませぬか。

小野博臣 何を言はれる。お仕事も大事ぢや

が、お體も大事で御座るぞ、鐘の方も最後

の鑄上げと承はつたが、お目の療治も今日

が最後、順調に参ると明日あたりより細帯

が外せるかも知れぬ、大事な瀬戸際で御座

りますぞ。

彌鄒忽 申し譯御座りませぬ。

小野博臣 博士お一人につきゝりのため、病

人たちが僕の門前で待ち草被れて居り申す

ぞ。早う博士の療治が済まぬと、他の方々

に申譯ない次第で御座る。さ、さ、お部屋

彌 鄒 忽

ました。一日も早う鐘を土上げて下さりませ。

彌鄒忽 お出でなされませ。  
小野博臣 いや、今日は銅汁の流込みで御

せ。

座るな。

彌鄒忽 相判りました、忝う御座ります。そのやうにお嘆きあるな。今夜銅針を流込め

彌鄒忽 はい。

ば、明日は鐘が出来上ります。お娘御は

小野博臣 (梨花女を見つ) こなたは?

一度死なれたのぢやが、その鐘と共に新羅

彌鄒忽 娘御をいけにえに捧げられた方に御

千萬年の後の世までも、生きて御座らつし

座ります。

やるのぢや。

小野博臣 うむ。博士が盲ひになられるやう

梨花女 (希望に充ちて) では明日の夜明けには

呪はれたと申すあの寡婦で御座るか。

鐘の音が聞けるので御座りますか。

彌鄒忽 はい。

小野博臣 思つたより柔しいお人ぢや。僕は

この時、大和の醫師士で、慶州で町醫者をしてゐる小野博臣

恐ろしい鬼婆かと存じ居つた。

が入つて来る。梨花女、一瞬へ身をよせる。

梨花女 (自分の頭を話して辱ると氣付き) 明日の夜

明けには鐘が出来上るので御座りますか。

エミレエの

(突然寐へるやうに) 博士さま、今度こそは屹度失敗らずに、鐘を仕上げて下さりませ。お願ひで御座ります。あの兒を失つたこの身は悲しうて、淋しうて、生きる空は御座りませぬ。しどく雨の降る夜半にも、犬が遠吠えする曉方にも、あの兒を思ひ出すこの身は矢も楯も堪らず、着物を着更へて工房へかけつけました。奥津城でもあればこの身を投げ出して思ひ切り泣いても見ようものを……草が伸びるのを眺めながらあの兒はこの下で眠つてゐやると思つても見るものを……博士さまや鑄丁たちが寝まれてゐる時この身は幾度あの銅金を撫で廻したに、この工房の

中をうろつき歩いた揚句、そのまま、幾度この身は心を残して立ち去りましたことで御座りませう。(言葉尻は鐘鐺の真鍮の中に囁くと響く) 博士さま。あの兒の聲が聞きたう御座ります。出来上つた鐘の中にはきつとあの兒の聲が隠されて居るに違ひありません。あの兒は死にましたが、あの兒の魂魄は鐘の中で生きて居りませう。朝晩鐘の音を聞きながらあの兒の聲が偲べるやうにして下さりませ。あの兒の聲は鈴を振るやうな美しい聲で御座りました。今でも夜になると、あの兒の千字文を讀む聲が、はつきりと耳の端で聞えます。雁渡る秋の夜半にはあの兒は澄んだ聲で歌を歌つてもくれ

世

彌鄒忽 (胸が一ぱいで言葉が出ぬ) 何ぞいふことが私に?

彌鄒忽 お望み通り旨ひとなりました。お氣

が晴れてか?

梨花女 (胸が一ぱいで言葉が出ぬ)

彌鄒忽 お怨みは消えましたか。

梨花女 ……

彌鄒忽 私に何の御用?

梨花女 (靜かに濡れた額を上げる)

彌鄒忽 何の御用で御座りませう。

梨花女 あの——あの……

彌鄒忽 聞きませう、申されい。

梨花女 (小さく泣きながら) 一日も早う、一日も

早う、鐘を仕上げて下さりませ。

梨花女 はい。

彌鄒忽 私のために、さう思はれるので御座

るか。あんなにも私を憎み、鐘を失取るや

うにあんなにも呪ひの言葉を口にされたそ

なたが……

梨花女 今こそ博士には申し上げますがこ

の身は毎朝神宮へ詣り、一日も早う鐘が出

來上りますやうお祈り申して居りました。

彌鄒忽 この目が潰れて、佛心を起された

か。

梨花女 (顔を筒に振りながら) いゝえ。

彌鄒忽 では?

梨花女 やゝの聲が聞きたうござります。

エミレエ의 鍾

て居らう。博士が盲ひになられたのは、何者<sup>の</sup>せむぢや?

梨花女 (力なく) この身のせむと仰せられま

するか。

朴韓昧 言はずと知れたこと。

梨花女 (首振れながら) 毎日治療に通つてゐら

れますか。

朴韓昧 晝夜を分たぬ醫博士のお骨折りで遠

からずお目は開きさうぢや。

梨花女 (驚しげに) あの、お目が?

朴韓昧 お目が治つたにしても、先達の銅

は役に立たぬゆえ、幾千俵の炭が無駄に費

えたと思ふ? 一々數へ上げたら、きりがあ

りませぬぞ。早々に立ち歸られるがよろし

からう。博士さまもどうやら氣が落付かれ

た頃ぢやし、今日は仕上げの日ゆえ、また

ぞろ先日<sup>の</sup>やうな間違ひがあつては大事ぢ

や。

梨花女、諦めたやうにふらふらと出て行かける。

彌鄒忽、圍圍と物置しを手に持つて、入りたに梨花女とが  
ち合ふ。目には彌鄒忽が狂つてゐる。

梨花女 博士さま。

彌鄒忽 誰方ぢや?

梨花女 あの兒の母に御座ります。

朴韓昧 (鑿りながら) そ奴を引きさり出せ。

彌鄒忽 (制止する) そのまゝ、そのまゝ。

世 威 節

めることは叶はぬ。

智照大師 侍中さまが公主ママをお連れ申す

時刻で御座れば。

金鬘 早く参られるがよい。

梨花女 兒まで擲げたこの身で御座りまする

ど。工房に通れぬとは解せぬ申しやう。

鑄丁一 成らぬ。成らぬと言つたら成りませ

ぬ。

智照大師と金鬘、別れて出て行く。

この時、大門の方で騒がしい入聲。

梨花女、鑄丁をつき飛ばして入つて来る。子鼠をなくした悪

しみのために非常に焦れてゐる。朴韓味、窮婦を押し出す。

鑄丁一 通れぬと申しました。お控へなされ。

梨花女の聲 ちよいと遅くだけで御座ります

ゆえ。

鑄丁一 通ることは成りませぬ。そなたを工

房へ通したと聞えたり、博士さまからまた

大目玉ぢや。

朴韓味 何しに参つた？

梨花女 博士さまにお會はせ下され。

朴韓味 お忙がしうて、ならぬ。そなたのた

めにどれだけ工事が遅れたと思ふ？博士さ

まが旨ひになられたことは、そなたも存じ

エミレエの鐘

鑄丁一 いま博士をお仕置きなされたら、鐘

はどうなる？五年も續けて来たこの工事を

取止めるとても云ふのか。銅さへ来れば鑄

込む間際に。出来ない相談さ。

賦役の夫人一 博士を處断すれば鐘が出来ぬ

と言つて、罪を咎めぬとは、新羅の國法に

は無いこと。

鑄丁一 鐘が出来てから處断しても、大した

變りはないぞよ。

徒弟 シーツ。檢校使さまのお越しで御座り

ます。

金世と智照大師が入つて来る。

金世 公主ママはまこと御自分の過ちを後悔

なされて居らるゝ様子で御座るか。

智照大師 佛の道をお究めなさるに從ひ、男

を慕ふといふことが女をどのやうな煩惱へ

引きずり込むかに、御氣付きの模様で御座

る。

金世 では讀經も念佛も忽せにはなさりませ

ぬな。

智照大師 大仰に申せば、血を吐くまでに南

無觀世音を唱へ續けて居らせられる。今が

峠で御座る。この峠さへ事無く越せば、俗

世の凡ての絆から解き放たれ、佛の御慈悲

の中に抱かれうと存する。

金世 あの御年頃では……過ちがあつても咎

威世體

たり、眞赤な養口へ炭を放り込んだり、櫛子で資材を運んだりしてゐる。釜の口からは紫色の火花が散る。

徒弟 半年の間閉門を仰せつけられたさうで

すね？ お可哀想な副使様、副使様に罪はな

いと、皆そのやうに申して居りますよ。

賦役の人夫 唐の皇子が恥をかいて逃げ歸つ

鑄丁一 餘計な眞似をされたからちやよ。罪

たのちやから、たゞ事では收まるまいな

咎なくして閉門を仰せつかる筈はないわ。

う。

賦役の人夫一 博士のお目が潰れたとお知ら

鑄丁一 誰も婚禮を取り止めるとは申さなん

せしたのが何の罪咎？

たぞ。自分で逃げ出したまでさ。

鑄丁二 お知らせただけなら悪うはないわ。

鑄丁二 公主ママが鎧でお顔を焼かれたから

壁を乗り越へてお連れ申したが悪いわさ。

さ。でなければ破談になる筈はない。

平たく言へば、取り持ちされたのが不可な

鑄丁三 公主ママも激しい御氣性ぢやなう。

いのちやよ。

御自分でお顔を焼かれるとは。

賦役の人夫一 なら博士と同じやうに虚断さ

賦役の人夫二 飛んだ飛ばつちりを喰つたは

れるのが當り前。將軍だけがお咎めを蒙る

金體信將軍ぢやよ。

とは片手落ちなお仕打さ申すもの。

### 第四幕

彌羅忽

公主諱李奈

金 邑

ムラサキ姫

小野博士

日本の醫博士

金初正

新羅遣日本使

智照大師

梨花女

朴韓昧

祿 事

金初正の隨行員たち。鱗丁たち。賦役の人夫

たち。

二個月後。

惠恭王六年十月十五日。

鐘室の内部。

正面に粘土の環まわりの中に鐘の十型が埋めてある。周圍に鐘鐃蓋が三つ。湯出には哲士型の土器。鐘室に向つてある爐の下の方の開口には、風を送るための櫛（これは土に埋めて、足で踏むやうになつてゐる）櫛子が蜘蛛の巣のやうに立て倒され、上り口の所には捐冊者が熱度と銅汁を見るための足場が設けられてある。下手に銅材を引き上げるための起重機。

聲が明くと鐘丁たちが「えーはい、えーはい」と、櫛を踏ん

世 威

どの、その尊いお美しさのゆえに、唐の皇子も強て婚禮を望み、鑄工までがお慕ひ申上げるので御座りまする。

詩牟奈 さうかも知れませぬ。わらはが美しく生れつゝいたせるかも知れませぬ。さうぢやわらはは美し過ぎるのぢや。

美しき美しいゆえ、美しいゆえにと緋問しながら、火鉢の火箸を抜き取り部屋に駆け込む、ムラサキ嬢、仰天して後を叩ひかける刹那、小さな悲鳴。どしどし何かと倒れる音。

ムラサキ 公主さま。な、何を遊ばします。

詩牟奈 放して給も。

ムラサキ あれえ。(悲鳴) 誰か。誰か。

この聲に觸目夫人、翌蒸主、金隠居、皇子、駆けつけて、部屋に飛び込む。

ムラサキ、一刻も早う醫博士を、醫博士を……公主さまが火箸でお顔をお焼き遊ばしました。

金隠居、慄て、外へ出て行く。  
觸目夫人の、何のいふこの身の不幸せであらう」と顔振りながらの嗚咽の聲。

幕

鐘のエレミエ

満月夫人 そなたは何といふふしたらな真似

をしてくれました。下賤の者と、不義をす

るなど正氣とは思へない沙汰……。

満月夫人、首肯いて、また出て行く。

詩牟奈

満月夫人・そなたは許婚のある體ですぞ。そ

の許婚を目の前に置きながら、何といふ大

それたことをするので。わらははそなた

を、そのやうな不したらな娘に育てた覚え

はありませぬぞ。

ムラサキ 攝政ママ。今日のところは、何卒

そのまゝお引取遊ばしますやう。何事も凡

て明日の日にお伸ばし願ひたう存じまする

そのやうにお貴め遊ばしては公主のお心も

益々こぢれる道理。さすればまたどのやう

な禍ひを招くやも計られませぬゆえ。

詩牟奈 下賤の身の生れであれば、このやう

な苦しみはせざつたものを……

ムラサキ 公主にお生れ遊ばしたゆえばかり

でも御座りませぬ。

詩牟奈 では、どうしたわけで御座りませ

う。

ムラサキ 公主さまが人並勝れてお美しくあ

らせられるゆえで御座りまする。

詩牟奈 わらはが美しい？

ムラサキ さやう。この世の方とは思へぬほ

世 戚

ムラサキ まあ、公主さまには、このやうに

お慄へなされて……。

詩牟奈 ムラサキ姫。博士の眼は、眼は治り

ませうか。

ムラサキ お傷はしう存じまする。

詩牟奈 お頼み申します、博士の眼を治して

下さりませ。治して下さいませ……今こそ

お打ち明け申しまする。わらはは心から博

士を慕うて居りました。

ムラサキ 公主ママ、お鎮まりなされませ。

わらはが優れた醫師を存じ上げて居りま

する。

詩牟奈 ムラサキ姫。それはまことで御座り

ますか。

ムラサキ 小野博臣と申す古今無雙の名醫。

詩牟奈 まあ、その方は日本の醫博士で御座

りますか。

ムラサキ はい。もと左大臣藤原仲麻呂のお

抱へ醫者で御座りましたが、事情あつて都

を離れ築紫に來て居られましたが、昨今徐

羅伐に見えられ、町醫者をして居られます

る。小野さまならきつと博士の眼が治せる

に相違御座りませぬ。

詩牟奈 ムラサキ姫。その方にお繼り申すよ

り他に望みは御座りませぬ。何卒、何卒……

この時、蘭月夫人、入つて來る。



威 世 謝

及びましたか……

満月夫人 公主の行きさうな所を、ムラサキ姫、そなた存じ寄りませぬか。

ムラサキ さあ。わらには一向に……。

満月夫人 はて……皇子様には何れへお越しなされたかの。

ムラサキ 池の端にゐらせられます。『余の生涯もこれまで、喜びも希みも見失うてしまつた』と、泣いて居られます。

金隠居 怒り心頭を破して、入り来る。

金隠居 公主さまをお見付け申上げました。

満月夫人 (驚しさに泣き出しながら) 何れへ居や

つた?

金隠居 緞袋、金體信と馬を並べて、工房へお出ましで御座りました。

金隠居 工房へ?

満月夫人

金隠居 御意。のみならず。彌鄒忽に取り廻

り公主が涙に暮れてゐたと申します。人目も憚からず醫博士に、『どうあつても開眼は叶ひませぬか』と、取り亂して訴へられてゐるに御座ります。

金隠居と満月夫人は黙然として聞くばかりである。

金隠居 どうより相許してゐた仲に相違御座

鍾のエレミエ

守門將 急いで出て行く。蒲扇は後席の方へ回つて「公主ママ、公主ママ」と呼びながら出て行く。

満月夫人 何とした事であらうなう。

金壘 心得ぬことに御座ります。工房へお出

ましの筈は御座りませぬし……

万々で「公主ママ」と呼び立てる侍女たちと、侍隨部省、隨、項、御らの聲。

御寝の伺まれてみた後箱一帯が騒然となる。搖立たしい驚

金壘 公主ママには若じや? (攝政を顧る)

満月夫人 さやう。口に出してこそ申しませ

なんだが、姫は唐皇子をきつう嫌うて居りましたゆえ……

金壘 夜分、どうして外へなど出られるお氣

持になられたものが……

満月夫人 姫が言ひ出したのでは御座りませ

ぬ。皇子が誘うたのぢや。

金壘 いろいろお心を惱ませられて居らるゝ

所へ、何かと煩はしうせがまれ、つい我れ

を忘れてふらふらと、城の外へお出ましに

なられたのは御座りませぬか。

ムラサキ卿 目をこすりながら出て来る。

ムラサキ 公主ママが城を脱けられたと聞き

感世體

侍婢 今まで此方にゐらせられた筈に御座り  
ます。

范知 一足先に出られたのでは御座るまい

か。

満月夫人 さやうなことは御座りませぬ。

(侍婢は) 守門將を呼びや。

侍婢、出て行くやがて 守門將が入つて来て坐伏する金

幣、范知は宮殿の内外を探ね廻つてゐる。

満月夫人 公主ママがお出ましではなかつた

か。

守門將 たゞ今、大角干様が入闕された他は

どなたもお通り遊ばしませぬ。

金壺 (蒲団に) 何れへ行かれるお積りに御座  
りました!

范知 日精橋、月精橋を渡り、蚊川のほとり

を歩行ふて見る積りに御座つた。歸途鑄鐘

工房に立ち寄りたゞと仰せられてで御座つ

たが……

金壺 鑄鐘工房へ?

范知 火花の散るのが仲々の見物ぢやと仰せ

られた。

満月夫人 (守門將は) 一刻も早う侍衛部へ知

らせて給も。鑄鐘を鳴らし、侍衛卒を四方

へ派して、公主の行方を探れるやう。

守門將 はつ。

エミレエの鐘

士に按檢いたさせましたところ、眼だけは本復叶はぬところに御座ります。悉くが角干の不徳の至すところ、お詫びの上上げやうも御座りませぬ。

満月夫人 前世の定めでがなあらう。大角干の罪には御座りませぬ。

金巻 いけにえを捧げようなど、と申し出たそれがしの過ちに御座ります。博士は最初よりいけにえを拒み居りましたを、それがしが押しつけて……かゝる仕儀……

満月夫人 嘉俳節の前夜、こんな兇事が起るとは何事であらう。

金巻 世上で傳入聞きますれば、不吉な思ひに驅られて、年に一度の大祭も火の消えた

やうに淋れるで御座りませう。

満月夫人 (范知に) わらはは胸騒ぎがしてなりませぬ。外出は思ひ止まられて、このまゝ御寝なさるが宜しうござりませう。

范知 では公主には縣政ママから左様お傳へ下さるやう。

満月夫人 姫。(息事がないので) 何れへ参つた。姫。姫。

范知 御不在に御座りますか。

満月夫人 誰ぞ参れよ。

侍婢 「はあ」と答へて入つて来る

満月夫人 公主は何れへ参られた?

威 世 徳

守備將を入れ遣ひに金壘が入つて来る。

満月夫人 (不安な面持で) 何か、變事でも御座

りましたか。

金壘 變事でも御座りませぬが……鑄工が銅  
釜の熱氣にあてられ、旨ひまして御座りま  
する。

范知 夜業を續けるゆえ、誤ちも出来申す。

金壘 疲勞のためでは御座無く、女兒のせる  
のやうに御座ります。

満月夫人 女兒のせるちやど。

金壘 いけにえに捧げた女兒に御座ります  
る。女兒の母が毎日のやうに工房のあたり

を逍遙ひながら「そなたの目を潰して、  
が作れぬやう呪うてやるのちや」と呪咀し  
て居たげに御座ります。

満月夫人 執念深い女子よなう。

金壘 銅の熱度を計るたびに、釜の中から

「母様」と女兒の泣き聲が聞え申すと、そ  
れがしに幾度も博士は訴へまして御座りま  
する。この節に至りましては、その子の母  
の呪咀の聲までが背後から聞えるなどと、  
心弱いことを申して居りましたがどう  
目舞ひを起したらしう御座ります。

満月夫人 (不意になり) それで、如何しやつ

た?

金壘 取り敢へず工房の中に臥せさせ、醫博

鍾のエレミエ

申上げませぬ。なれど、後から博士が盲ひ  
 られたと聞えた時の、公主ママの悲嘆をお  
 察し申しました時、それがしの胸はかきむ  
 しられるやうに御座りました。公主ママに  
 眞先きに御注進申上げるわけは、これだけ  
 に御座ります。

詩牟奈（辨して）副使さま。

解衣を脱ぎ上げて、威嚇を馴えさせ、自らも飛馬のやうに飛  
 び駆る。花郎の代表にふさしい快傑である。  
 満月夫人と范知、入つて来る。

満月夫人 夜道にはどのやうな變事が待ち構  
 へてゐるやも計られませぬゆえ、侍衛部よ

り選りすぐつた壯丁十名ばかりをお護役に  
 お付け申し上げました。

范知 暫らく河べをひろひ歩くだけに御座り  
 ます。

満月夫人 詩牟奈は何れへ？  
 范知 お着替えなさるので御座りませう。

この時、守門將が入つて来て半伏する。

守門將 攝政ママに申上げます。大角干、

上大等殿の入闕に御座ります。

満月夫人 上大等が！

守門將 御意に御座ります。

満月夫人 早うこれへ。

世 威

副使 は。

詩牟奈 ほかにお怪我は御座りませぬか。

副使 幸ひに後ろ向きに轉倒なされましたゆ

え少々腰を打たれたばかり；他に火傷はな

さりませぬ。城壁の外に馬を引いて御座り

ますゆえ、一刻も早う御仕度遊ばしませ。

詩牟奈 攝政ママには？

副使 委細は檢校使殿が言上仕るで御座りま

せう。それがしは御覽の通り城壁を躍り越

えて参つた者、さ、一刻も早う。お作仕り

まする。

燕雀 手早く身仕度して降り立つ。ふと鼻を留める。自分  
の心の中を、この若者に見透かされたやうで、下衣を戻られ

た時のやうな聲が顔が火照る。

詩牟奈 副使さまは何ゆえ博士のことを、わ

らはへ先きにお報せなされました？

副使 何れ、申し上げる時も御座りませう。

詩牟奈 博士が旨ひられようと、歿からうと

わらはを呼びに來られる道理はない筈。

副使 公主ママはひとすちに博士を慕うてゐ

らせられまする。

詩牟奈 えゝつ？

副使 恐れながら、遠くから公主ママをお慕

ひ申し上げて居りましたそれがしにはわが

ことこのやうに公主ママの心中、お察し申上

げることが出来ます。嫉む心がないとは、

鍾のエレミエ

詩牟奈 東宮さまがお誘ひ遊ばした風に母上

には申上げて下さりませ。

范知 心得ました。

酒匂、糊足して驅け去る。

この時、微かな侍婢の悲鳴。やがて、どしんと何かが壁から  
とび降りる音。

公主、涙のする方を屏辭める。

侍婢 (走つて來ながら) 公主ママ。級食さまが

詩牟奈 何と、級食さまが……

侍婢 城壁を飛び越えられて……

副使、金體筒、入つて來る。

副使 御驚愕なされてはなりませんぞ。

詩牟奈 (申るやうに) 何事ぞ、正門から参らす

に……しかも夜半……

副使 彌鄒忽博士が銅汁のため盲ひられて御

座ります。

詩牟奈 盲ひられた…… (倒れんとする身體を解く

支へ) まあ、如何遊ばしたので御座りませ

う。

副使 熱度を計られる最中、目舞ひを起さ

れ、轉倒なされたので御座ります。

詩牟奈 本當に盲ひになられたので御座りま

せうか。

世 威 詞

侍婢 梯子の上で鑪釜の中をのぞいて居られ

ましたが、あのまゝ踏み外されては大事ぢ

やど、氣が採めまして御座ります。

詩牟奈 (氣に押るらしく) 何處かお悪いのでは

あるまいなう。

侍婢 正氣の方とは思へぬほどに、虚空を見

凝められ、足取りも力無うゆらゆらと……

詩牟奈 着物はお受けなされてか。

侍婢 お受け取り下さりましたが、お心うち

ではあらぬことを、思ひ詰めて居られるら

し。御座りました。

この時、范知、後苑から出て来る。

侍婢、席を外す。

詩牟奈 宮殿の外へお歩行ひ遊ばしては如何

で御座りませう。

范知 (廣瀬を踏みながら) 宮殿の外へ？

詩牟奈 月がこんなに清らかに……

范知 何れへ参られますか。

詩牟奈 蚊川のほとりから日精橋、月精橋ま

で参りたう御座ります。歸りには奉徳寺へ

立ち寄り。鑪鐘工房の夜業も見たう御座り

ます。

范知 それしきの工事、見るほどのことも御

座りますまい。

詩牟奈 ちやと申して、歸り途で御座ります

ゆえ……

范知 では、直ちに仕度して参りませう。

鐘のエレミエ

鳳王、悄然と去る。  
詩牟奈、後列から出て来る。

満月夫人 皇子さまは何れぢや？

詩牟奈 池の端で鶯鷲に餌をやつて居られま

する。

この時、侍婢、入つて来る。満月夫人に驚付き、叱咤して立  
ち止る。

満月夫人 そちは何れへ参つて居やつた？

侍婢 ……

満月夫人 宮殿の外へ参つたであらう。

侍婢 奉、奉徳寺へ……

満月夫人 奉徳寺へなど、何しに参つた？

詩牟奈 (濡りながら) 母上さま。わらはが使ひ

に出しました。つぶれた鑪器が有ると申し

ますゆえ、それを持たせて出しました。

満月夫人 今夜も仕事を続け居つたか。

侍婢 はい。

満月夫人、廻廊を道つて水筒宮へ戻る。

詩牟奈 恙なくお届け申上げましたか。

侍婢 はい。お仕事に精出されるせぬか、一

向にお顔色が勝れませぬやう御見受け致し

ました。

詩牟奈 きつう憔悴して居られたか。

威 並 體

滿月夫人 (ついで遊きながら) 強くならねばなり

ませぬ。勝たねばならぬので御座ります。

詩牟奈が唐國へ興入れするのも上監ママが

御若年であらせらるゝゆえに御座ります。

一日も早う御成人遊ばされ唐國が新羅の前

に俯伏いたすやう、國威をお上げ下さりま

せ。この母も、もう煩はしい攝政の位を退

き、永明宮で静かに暮したうなりました。

惠恭王 母上、相判りまして御座ります。母

上のお言葉、しつかと心に刻み、ごのやう

な國の前でも怖ぢ恐れぬ、強い、強い新羅

に作り上げます。

滿月夫人 (惠恭王をしっかりと抱き) お聰明な我が

大君。……わらはにはは上監ママと公主のお

二人きり。その公主を、馬で陸路を幾千

里、船で大海を幾月も辿るといふ遠い他國

へやると思へば、この胸も張り裂けるやう

……

惠恭王 母上。姉上が唐へ赴かすに、唐皇子

がこの宮中へ來て住まはれては如何で御座

りませう。

滿月夫人 それではまるで人質に類しますゆ

え、それも叶はぬこと。殊に皇子は東宮に

あらせられ、やがては皇帝の御位に即かせ

られるお方、詩牟奈は御妃になられること

ゆえ、それも叶はぬ道理。

惠恭王 臥床に入りたうなりました。

鍾のエミレエ

ました。高句麗は亡びましたなれど北に勃  
海國を打ち建てて虎視耽々新羅を窺ひ、百  
濟の殘黨もいつ再舉を計るか期せられませ  
ぬ。内にあつては上監ママの御年若年にわ  
たらせられ、いつ何時寶位を脅やす者が出  
ぬとも限りませぬ。昨年の七月も一吉倉大  
恭及び阿倉六廉が叛き奉り、ひと月もの間  
宮城を押し包み參らせました。金邕と金體  
信がこれを平定いたさすば、社稷も危殆に  
瀕したでござりませう。今後もこのやうな  
事がないとは申せませぬ。大阿倉金融、前  
侍中正門、伊倉廉相、金志貞など、悉く油  
斷のならぬ者たちに御座ります。侍中、  
金隱居さまも、表面忠誠を勵むやに装ひま

するが、どのやうな企らみを包んで居らる  
るか、計られぬ次第に御座りますぞ。

惠恭王 叔父上も？

満月夫人 宮中にあつては兄弟なりとも心を  
許してはなりません。さればこそ王位を薄  
氷にさへ喻へるので御座ります。我が國  
は、上監ママが御成人遊ばすまで、どうあ  
つても唐國の庇護を借りねばならぬので御  
座ります。

惠恭王 いつになつたら新羅は唐の范屬國で  
なくなるのでありませう。父王の位を繼  
ぎ王位に上つても、唐皇帝の冊封があるま  
では王になれぬなど……このやうな道理が  
御座りませうか。殊に姉上まで……(泣く)

世 成

粉を混せて、公主のお體が、夜になると夜  
光珠のやうに光り輝くやう致させます。

純金にて四頭立の馬車をこしらへ翡翠と青

石と紅玉を鑲めた椅子に公主を掛けさせ

て、始祖墓と王陵を經廻りたいと存じます

る。(石階を降りながら) 公主さま。船遊びなど

なされませぬか。

詩牟奈 さいぜんまでムラサキ姫と致しまし

た。

范知 では湖水のほとりなど、お歩行になら

れては如何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毎日のやうに歩き廻つて居りますも

のを。

范知 では、あの樓閣へでもお連れ下さりま

せ。

詩牟奈、已むなく范知に從ひ石階を降りる。満月夫人と惠  
王、何か話しながら入つて来る。

惠恭王 母上。姉上はどうあつても唐國へお

興入れなさらねばなりませんか。

満月夫人 (幼王の目にはおんな涙を拭いてやりながら)

御意、どうあつても行かねばなりませんか。

新羅の幸せのために、大きないけにえにな  
るので御座ります。

惠恭王 新羅の幸せと仰せられると?

満月夫人 新羅は三國を統一致しましたもの

の、已に疲れ果てて無力なものになり果て

鍾のエミレエ

丹も公主には及びませぬ。まして、唐の女子など……

詩牟奈 わらはは芍薬と牡丹が最も嫌でござります。

范知 は？

詩牟奈 ぶくぶく肥え太つた、淫奔女を見るやうな心地が致しまする。

范知 早々宮殿の庭にある芍薬と牡丹を悉く抜き捨てさせます。では公主は、どの花が最もお氣に召しますのでござりませう。

詩牟奈 玉黍蜀を好みまする。

范知 (顔をしかめながら) 玉蜀黍？

詩牟奈 すらりと伸びたあの莖を好みまする。殊にあの鬚が氣に入つて居りまする。

范知 公主さまのお好きな花なら、それがしも好きになりませう。宮殿の庭中にぎつしり玉蜀黍を植ゑ込ませ、鉢にも玉蜀黍ばかり植ゑ込ませます。公主さまのお爲めなら、三神山の不老草にてもきつと求めて御覽に入れまする。(段々幽雅して) 新羅の半月府より遙かに大きい四方十里もある宮殿を築造致しまする。あいや、今頃は己に峻功致して居るやも知れませぬ。庭には池を堀り、池の中に築山を設け……奇花瑤草を敷きつめ……奇花瑤草では御座らぬ、玉蜀黍を植ゑ込み……

詩牟奈 (苦笑ひを囁み殺してゐる)

范知 牛乳で風呂を立て……牛乳の中には金

世 威

葉に御座りまする。

満月夫人 うむ。

范知 上監ママは毎日講義の席へ御出まして

御座りますか。

満月夫人 國學の大博士が御進講申上げて居

りまする。尙書、毛詩、禮記などを終へさ

せられ、春秋左氏傳にとりかゝられたと聞

き及びまする。

范知 お精が出られますなう。

満月夫人 では暫らく席を外させて戴きます

る。

満月夫人、俵障を先に立て、行く。

詩牟奈

(大層母なくなつてからの公主の壽辭は、悉く侮

蔑と嘲弄に充ちてゐる) いつ頃、御歸國遊ばしま

すか?

范知・三四日して發ちたいと存じます。それ

がしがお側に居ては、お目障りで御座りま

すか。

詩牟奈

そのやうなことは御座りませぬ。

范知・公主のことがなければ、萬里の道を遠

しとせずして、こゝまで参る道理が御座り

ませぬ。

詩牟奈

唐國には楊貴妃のやうなお奇麗なお

方が、幾らでも御座りませうに……わらは

如き新羅の小娘など……

范知 公主に及ぶ者は居りませぬ。芍薬も牧

鐘のエミレエ

詩牟奈

(笑ひながら) まあ、西瓜の種子を……

范知

(幾分感觸を拍ねた風で) 公主はこれがお嬢

ひで御座りですか。

詩牟奈

(たうとひ吹き出してしまふ)

満月夫人

まだねんねえで、物心つきませぬ

ゆえ……體ばかり大きくても、まるで子供

で御座ります。店の皇室へ参りました

も、不仕鱈な真似は致すまいかと、一日も

心の休まる日とて御座りませぬ。殊に唐國

は禮儀の國で御座りますゆえ……過ちが御

座りましても、どうぞ妹のやうにお慈しみ

下さいますやう、今からお願ひ申して置き

ます。

范知 心得申しました。

満月夫人

では、おしるに一盞……

酒を酌いで公主に勧める。

満月夫人

お流れ頂戴仕りませ。

詩牟奈

戴きたう御座りませぬ。

満月夫人

大國の皇子さまの、お流れちやぞ

恐れ多い仕儀。お受けなされ。

詩牟奈

(厭々ながら受けて飲む)

この時、一人の侍婢が入つて来る。

侍婢 攝政ママに申し上げます、直ちに大

學監へお越し遊ばすやう、上監ママの御言

威世隱

詩牟奈

(不快な童詩を誦そめたが) 唐國の銅は、

日本國のものに比べて、甚だしく見劣り致

す由に聞き及びました。

范知 何者がさやうな事を！ 我が大國の銅

は、日本の銅などと比べ物にならぬほど秀

れて居りますぞ。(満月夫人) 以後日本へ

勅使を遣はされることは御無用に願ひます

ぞ。

満月夫人 お言葉に従ひまする。

范知 日本國は何の足しにもならぬ無力な國

で御座る。文物も見るべきものは御座ら

ぬ。

金隠居 御尤なお言葉。

詩牟奈 寧樂を御存じでゐらせられますか。

法隆寺の正倉院と壁畫を御覽遊ばせば御一

驚なざるで御座りませう。東大寺の大佛は

唐國にも見られぬほどの大きな御佛で御座

りまする。

范知 ムラサキ姫とお友達になられてから公

主はすつかり日本びいきになられました

な。もしもそのやうなお言葉が、大國の皇

帝のお耳に達しますると、御不興を蒙り

ませうぞ。

満月夫人 (目で細しながら) そのやうに無遠慮

なことを申し上げるものではない……(王守の

氣持を和めようと、酒を酌いで勧めながら) 一盞お過し

なされませ。

范知 (受けてくつと飲み干し、西瓜の種子を啣む)

鍾のエレミニ

満月夫人 御意。負けた組が新清酒と新米糬  
と取り立ての果物を振舞ひ、金蘇の歌と踊  
りを見せるので御座ります。

范知 組頭は？

満月夫人 儒理王の御代より、公主姉妹が一  
組づゝ分け持つききたりに御座りますが、

御存知の如く、詩牟奈には姉も妹も御座り

ませぬゆえ、一組は詩牟奈のお友達ムラサ

キ姫にあづけて御座ります。

范知 日本の女子ぢやと申しますな。

満月夫人 吉備眞備と申す學者のお娘御に御

座ります。

范知 キビノマキビ、存じて居ります。我が

大國に留學生として、十七年間も留まつて

居つた御仁。では、この頃も日本とは勅使  
の往來が御座りますか。

金隠居 金體信が二百十一名の隨行員を隨へ  
て行つて參じましてより一時途絶えて居り  
ましたなれど、このたび、銅を手に入れん  
ものと級食金初正を五月の初めに遣はしま  
して御座ります。

范知 何故日本に銅なぞを貰ひに參るので御  
座らう。我が大國に掃き捨てるほど有るで  
は御座らぬか。さうと知ればそれがしが持  
つて參つたものを……心外に思ひまする  
ぞ。何ゆえそのやうな場合、我が大國に御  
相談召されぬ。

金隠居 その間が御座りませぬゆえ……

成世德

は數限りなく御座る。

金隠居 范屬國の書詰と致しましては、それ

位が分相應、仲々に大國に及ぶ段では御座

りませぬ。

満月夫人 明日は新羅第一のお祭、喜俳節に

御座ります。上監ママは神宮にお成り遊

ばされ親しく御拜なされます。お出まし

遊ばしては如何で御座りますか。

范知 金釜山の中腹ださうに御座りますな。

満月夫人 さやうに御座ります。そののみか

神宮前の廣場では花郎たちが、鍛へに鍛へ

た劍術、弓術、馬術の業を競ふげに御座り

ます。仲々の見物で御座ります。

金隠居 大國の御猛き東宮ママの御前にて業

を競ふなど、花郎たち一代の譽れに御座り  
ます。

この時、侍婢たち、膳部を連れて來て去る。

満月夫人 一獻、おすごしなされませ。

范知 (西瓜の上を密り上げた水を見て驚きながら) 新

羅には、こんな時分にも水が御座ります

か。

満月夫人 冬の間に取り入れ、石水庫に貯め

置きます。

范知 夜分には、六部の乙女たちが二組に別

れて御殿のお庭で機織りを致すと申します

るな。

鐘のエレミエ

推を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わらはそのやうな氣持から……

ムラサキ ほんなお氣持ともまた申上げませぬに……(笑ふ)

詩牟奈 (侍婢に) 中へ入らずに、門番に渡し

や。

侍婢 はい。

詩牟奈 人目につかぬやう、氣を付けて給

も。

侍婢 心得まして御座りまする。

侍婢 外へ出る。

この時、廊下を渡つて来る人々の足音。

ムラサキ 攝政ママと皇子さまのお出ましに

御座ります。わらははこれにて退らせて戴

きまする。

詩牟奈 關はぬほどは、居て給も。

ムラサキ 皇子さまに憎まれまする。

ムラサキ、出て行く。ムラサキは宮中の一聞をあてがはれそこで起居してゐるのである。留いて、唐の皇子范知と、幽月夫人、金蘭侍、出て来る。

詩牟奈 如何で御座りました？

范知 金侍中の嘔吐きには呆れ果て申しまし

た。皇龍寺の壁に畫いた率居の松には鳥が

飛んで参るとのお言葉に、つい誘はれ申し

たが、何の、あれしきの繪なら我が大國に

徳 世 威

なされました。その途中で博士を呼び寄せられた父君は、そちは成人すれば必らず、この怒みを返さねばならぬ、怒みを返すに

は秀れた刀劔が必要ぢや、唐へ渡り天晴れ刀鍛冶になつて参れよ、さう仰せられて唐へ赴く商船に乗せられたげに御座ります。

ムラサキ ……

詩牟奈 唐に着かれた博士は、三年ほどの間刀鍛冶になりたいと、一心に勵まれたと申します。そのうちに、祖先を同じうし、土地を同じうする、同族同志で斬り合ふ刀劔を造られるのを厭はしく思はれ始めたと申します。その時から博士は詩と彫物と鑄物を習得なされたので御座ります。

ムラサキ ……公主ママは博士のことを、ど

うしてそのやうに、仔細に御存じ遊ばすので御座ります？

詩牟奈 (備て) 人傳てに聞いたばかり。

ムラサキ 誰方にお聞き遊ばしました？

詩牟奈 聞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

ムラサキ まあ…それにしても、公主ママ

が着物を賜はつたと、攝政ママや檢校使さまのお耳に入りましたは、容易ならぬことで御座りますぞえ。

詩牟奈 それゆえ、人に隠して持たせます。

ムラサキ 思ひ入る心一つに迷ふらし

野にも山にもあらぬ戀路を

詩牟奈 (驚て) ムラサキ姫。そのやうな邪

エミレエの國

ムラサキ お祝ひで御座りますか。

詩牟奈 着替へもお待ちにならぬ様子、襟や

袖口がきつい汚れやう……見るに見兼ね

て……

ムムサキ まあ。博士はまだお一人なので御

座りませうか。

詩牟奈 そのやうに申します。國の大事を一

身になうたお方が、餘りにもむさくるし

い御様子では、嘉俳節を迎へて神宮へお詣

りなさる節も如何と思ひ、これを縫はせま

した。

ムラサキ 博士は百済のお方なので御座りま

せう。

詩牟奈 さやう。

ムラサキ 鑄工とは申せ、何處やらに漂ふ高

貴な人品、きつと卑しからぬ家門の出で御

座りませう。

詩牟奈 義慈王の直系後裔だと申します。

ムラサキ そのやうな方が、何故鑄工などに

なられたの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我が國が扶餘城を改め落しました時

百済の王さまを始め、太子、王子たちを生

擒にして唐の國に送りました。その時博士

の父君は、乳香兒の博士を乳母に負はせ、

宮中を脱け出られて、乳母の故郷なる彌鄒

忽へ落ちられ、博士はそこで育てられたと

申します。博士の父君は大きな船を造ら

れ、部落の者たちを引き率れて日本へ渡海

傳 世 感

ムラサキ 留めて戴いても張り合ひが御座り

ませぬ。公主ママは、お近い中に新らしく

造られた五百人乗の遣唐船を四隻も従へさ

せられて唐の國へお興入れ……わらはは一

人で寧樂へ。公主ママ、今生に於ては、も

うお目もし叶はぬかも計られませぬ。

詩牟奈 (腹を細めて泣く)

ムラサキ 公主ママのお慈しみの蔭で、樂し

い三年を送らせて戴きまして御座ります

る。この欄干に凭れて公主ママさかうして

並び、中秋の明月を仰ぐのも、これが最後

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ムラサキ姫、泣けて來ますゆえ、悲

しいことを申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ぬ。

兩人、抱き合つて細かに泣く。

侍婢、入つて來る。着物の入つた包みを抱せてゐる。

詩牟奈 火のしを掛けてか。

侍婢 はい。

詩牟奈 これへ。

侍婢、包みを解き、二個への着物を取り出す。

ムラサキ 誰方の着物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あの……鑄鐘博士に……

ムラサキ 鑄鐘博士ので御座りますか。

詩牟奈 明日が嘉俳節で御座りますゆえ、お

祝ひにさし上げようかと……

鍾のエミレエ

詩牟奈 そなたには屹度意中の方が有るに違

ひありませぬ。聞きませう。どのやうな

方？お心やさしい方？

ムラサキ まあ、公主ママとしたことが……

わらはのことよりも公主ママのいとしい皇

子さまは、大變なお心意氣に御座ります

る。思うただけで身體も震へるやう。公主

ママをお迎へに、遙々唐から渡を渡つて來

られるなど……まるで草紙紙でも讀むや

うな心持が致しまする。

詩牟奈 (言葉しながら)そなたは何と、たはけた

ことを言やる。

ムラサキ それに絹が百反、紫袍綿が百匹、

練素が二千匹、金銀銅器が五十個、瑞紋綿

五色羅彩が三百反。金の氈には大判がぎつ

しり、銀の氈には小判がぎつしり。これだ

けが當座の引物で御座りませう？お羨しう

存じ上げまする。

詩牟奈 それほどに羨やむなら、わらはの代

りに、そなたに行んで戴きまする。

ムラサキ 遙々海を渡つて來られた皇子さま

をお泣かせ申すものでは御座りませぬ。皇

子さまは公主ママにいかい御執心の御様子

今日の臨海殿の御宴にも、昨日の崇禎殿の

引見宴にも皇子さまは公主ママのお顔ばか

り見つめて居られました。

詩牟奈 そなたは、それでくに歸りたうな

つたのでせう？

感世御

めながら、三笠の山を懐かしまれ、お咏みなされた山に御座ります。

詩牟奈 そなたもくにに歸りたうなりましたか。

ムラサキ 歸りたう御座ります。

青丹によし寧樂の都は咲く花の

にほふが如くいま盛りなり

詩牟奈 そなたは何かに憑かれて居ります

いま歸つたら、お父上や大臣たちから叱ら

れませうぞ。

ムラサキ 何故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そなたにはまだお役目が残つて居り

ますぞ。そなたは三年の間、新羅の言葉

習得するために、遣はされたのを忘れたの

ではありませぬか。あと四月の辛抱、いま一息で御座ります。そなたの新羅の言葉はまだ頼りないと思ひます。郷歌の吏讀も充分とは申せませぬ。

ムラサキ 公主ママの所爲で御座ります。

公主ママに、やれ船遊びちや、やれ伽倻琴

ちやと、お伴を仰せつかり、書見の暇が御

座りませぬ。それに公主ママは日がな一日

鐘のお話ばかり。

詩牟奈 わらはの所爲では御座りませぬ。博士の講義には耳も稽さず、そなたはあらぬ

事ばかり考へて居る様子。

ムラサキ まあ、公主ママには、御自分の事は柳に上げて、何を仰せられます？

鍾のエレミエ

惠恭王六年、庚戌、八月

嘉俳節(譯註 秋夕)の前夜

内殿。

護美を請した公主護筆奈の居間。

朱組の柱列。軒望階瓦。今にも飛び立ちさうに艶やかな曲線

を間いた屋根の反り。擦き上げた珠履。額。石階。絳闥。翠

な新羅の娵筆美を、これ等を通して、窺ひ知ることが出来る

石階の前には、宮殿の階側により、楓の扇が立つてゐる。

中央は板の間。下手に二軒の樓間。

上手は舞廊を通つて、太后の居處永明宮に通じてゐる。

宮殿の周圍には、丹塗を纏らした欄干が廻らしてある。

板の間の向ふには清園館の極致を示した苑庭。木屐、離簾、

菊、山茶花などがこぼれ咲き亂れてゐる。

雁鴨池には翠山と四阿と石橋。清園は醜齊たる露と露塵。

板の間の一隅に火鉢。その上に紫湯が載せてある。

城壁越しに秀麗な吐音山と、十五夜近きを思はせる清らかな

月。

鼻が止ると、

公主護筆奈とムラサキ卿が欄干に凭れて月を眺めてゐる。

激にすたく鐘の音ひとしきり。

ムラサキ (櫻籠の雫に騙られたらしく、口ずさむ)

天の原ふりさけ見れば春日なる

三笠の山に出でし月かも

詩筆奈 誰方がお咏みになつた歌でせう。

ムラサキ 父と一緒に唐に行かれた阿部仲麻

呂さまのお歌で御座ります。長安で月を眺

威 世 體

副使 行つて参りました。

金 邕 何と御沙汰あらせられた?

副使・上監ママ、攝政ママにおかせられました

ては、殊の外御満悦の體にて直ちにお駕籠

を召され、御親ら神宮で祭祀を執り行ひ遊

ばされる由仰せ出されました。

金 邕 行列の向きを變へよ。神宮へ参るぞ。

梨花女 まここで御座りますか。

金 邕 泣くでないぞ。泣かずに身共について

参れよ。

金 邕 女郎の手を引いて去る。

梨花女 泣きながら後を追ふ。ついで駕籠かきのかけ聲。強

忍、悲しみがつき上げて來て柱に顔を撞めて泣く。

第三幕

幕

惠恭王 新羅第三十六代王

滿月夫人 太后・攝政

詩牟奈 王の姉

ムラサキ姫 日本遣新羅留學生

范 知 唐の皇子

金 邕 鑄鐘檢校使

金隱居 侍中

金體信 鑄鐘檢校副使

詩牟奈の侍婢

守門將

か。

**金龜** 多くの子の中から一人を捧げたのでは  
まことが通じぬといふもの、そなたのやゝ  
によつて新羅の國は易失つた喜びが取り返  
せるのぢや。そなたのまごころは必らずと  
もに上監ママに言上、供養米五百石を賜は  
るやう取り計らつて遣はさう。まつた女兒  
の靈を慰さめんため、神鐘の完成と同時に  
に、孝女門を建て、緑の松の間で永住出来  
るやう、計らひ遣はす。

**梨花女** 無益なお心遣ひで御座ります。

**金龜** 男の子であれば如何致す？ 花郎にさ  
し出し、虎牌をつけさせて、國の護りにつか  
せねばなるまいではないか。國民の身體は

悉くこれ上監ママよりのお預かりもの。國  
に捧げ、お返し申すのがわれわれの務め。  
左様に嘆くでないぞ。

**梨花女** (諦めたやうに、出て行かされて、強易察を睨みつ  
けながら) そもしぢやな。七度も失敗り居つた  
のは……力及ばずば申譯御座りませぬと、  
身を引くのが當り前、この身のやゝを鑄込  
んだとて、そもしの未熟な腕で仕上げた鐘  
から、金輪際よい音は出ませぬぞえ。覺束  
ないぞえ。

強易察、ぎくりと身を震はせる。神宮の方からは太鼓の音が  
一入轟まる。間使、入つて来る。

鐘のエミレエ

世 威

身を先に亡き者にし給へど、襦籠に縋つて泣きわめき、散々手古摺らせたげに御座りまする。

金壘 已に宮中への言上も済み、神宮では祭

祀の用意を整へて居るのみならず、先大王の御靈前にもお告げ奉つた後ぢやぞ。今に至つて取り止めることは叶はぬ。早々これへ引立てい。

この時襦籠かき兵のかけ聲と、空聲の音が響いて来る。何處やらに哀龍がこもつてゐる。

托鉢僧 どうやら召し連れて参られた様子に御座りまする。

襦籠が門前に着いたらしい騒ぎ。

判官、白薬束を背けさせた女兒を伴つて入つて来る。その後から泣きながら追つて来る梨花女。人音から約二十五六の歳。

梨花女 (金壘に) やゝを歸して下さりませ。やゝを歸して下さりませ。

金壘 泣くでない。新羅の大きな幸せのために、いけにえが所望なのぢや。

梨花女 天にも地にもこの身にやゝはあれ一人に御座ります。子を持つ親が新羅にはこの身ばかりでは御座りませぬ。五人も六人もの子福者もたんと御座りますのに、あの子を限つて召されるわけが御座りませう

鐘のエレミエ

詩牟奈と鐘物奴が頭んでゐるのに氣付き氣まひ照がる。

ムラサキ あれは何の音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太鼓の音に相違ありません。祭祀の

時刻が迫りました様子。

ムラサキ 何の祭祀で御座りませう。

詩牟奈 この鐘にいけにえを捧げるので御座

ります。

ムラサキ 公主ママ。わらは達も参りませう

ムラサキ嬢、詩牟奈を促して去る。

金鬘と托鉢僧、物籠がしく入つて来る。

金鬘 この場に及んで何を申すか。

托鉢僧 御意に御座ります。どうあつても

女兒はやれぬと手を焼かせて居ります。

如何取り計らひませう。

金鬘 わけを聞いて参つたか。

托鉢僧 先日は、あまりに煩さく泣きさがみ

ますゆえ、つい心にもないことを申し上げ

たとはざき居ります。

金鬘 では、戯れ言と申すのか。

托鉢僧 戯れ言には御座りませぬが、ふと口

をこらせたと申して居ります。

金鬘 國を擧げての大事を蔑ろにする不届者

奴が。

托鉢僧 判官さまが女兒を駕籠に乗せられま

すと、その兒を連れて行くほどなら、この

彌 鄒 忽

彌鄒忽 ……

詩牟奈 女兒を鑄込んだとて、その骨や肉か

ら、音を發するなどは、上大さまも思

つておいではなりませぬ。新羅建國以來

指折りの學者、兵法家であられる上大等さ

まも、悉ての力を出し盡され、思案の餘

り、下々の風説に過ぎぬよしなき事にまで

頼られる氣を起されたに違ひありません。

彌鄒忽 ……

詩牟奈 世にいけにえほど美しいものが御座

りませうか。自らを捨てて、他の幸せを祈

るといふ、この心より以上に清らかなもの

は御座りませぬ。いけにえに捧げた女兒の

魂を無駄にすまいと、固くお心を定められ

たら、この度こそは屹度首尾よく参りませ

彌鄒忽 公主ママ、まこと、こたびこそは首

尾よく参るで御座りませうか？

詩牟奈 わらはは固く信じて居ります。こ

とに博士には天賦の才能が備はつて居られ

ますゆえ……。

彌鄒忽 ……

詩牟奈 (拍撃めてゐた拍輪を外して考へながら)これ

はわらはが永い間大事にして來たもの、こ

れを銅と一語に鑄込んで下さりませ。

この時金羅山の中腹にある神宮の方で大鼓が鳴る。

ムラサキ姫が「公主ママ」と呼びかけながら入つて來る

鍾のエレミエ

は樂は御座りませぬ。

彌鄒忽 何と仰せられましたも、いけにえばかりは……

詩牟奈 わらはもそれはよしなき事このみ存じ上げて居りました。さりながらさうごばかりも申せぬわけが御座ります。人の力や技だけでは及ばぬ、もつと大きな力が所望される時は、目に見えぬ何かに頼らうとするのも、無理とは申されませぬ。

彌鄒忽 ……

詩牟奈 わらはは夢の中で虎や蛇などに追はれ逃げ場を失ひますと、そのまゝ草叢の中に跪き、お救ひ下さりませ、と神様にお祈り致しました。それから、必らずお救ひ下

さるに相違ないご固く信じ始めます。すると、もう少しも怖う御座りませぬ。わらはは泰然と坐つて居られたので御座ります。

彌鄒忽 それと、これとは……

詩牟奈 (同じなを) われわれ、人間は小さい哀れなもので御座ります。われわれの上には、もつと大きな力を持たれる方が居られます。何故に失敗するやら何處で失敗するやら、それも究めずに、同じ失敗りを返されるのは、無益で御座ります。もう不思議な、目に見えぬ力にでも頼る他御座りませぬ。博士のお言葉通り、情ないやり方かも存じませぬが、また、ひたむきな心でも御座ります。

世 感

御佛に非障消滅を祈り、極樂往生を願ふの

もこれ悉く迷信では御座らぬか。

彌鄒忽 ……

智照大師 檢校使さまには拙僧が宜敷く取り

なして置かうほどに、もう一度考へ直して

御覽じろ。

居ります。

詩牟奈 只今上大等様よりあらまし承はりま

した。なれど、この期に及び身を引くこと

はなりません。

彌鄒忽 私奴には何が何やら判らなくなりま

して御座ります。焦れば焦るほど失敗りば

かり繰返します。私奴の腕の未熟から、

いけにえを捧げるなごど、私奴には堪えら

れぬことで御座ります。

詩牟奈 では、この大事を誰に任せませう？

彌鄒忽 唐の鑄工なら仕遂げられませう。

詩牟奈 それでは博士の取捨……

彌鄒忽 ……

詩牟奈 御辛抱なされませ。苦しみが無うて

彌鄒忽、金也、後を遁つて出て行く彌鄒忽、大地に伏し  
て頭を掻く。彌鄒忽、どうしたら好敷いので御座います  
う？

詩牟奈、入つて来る。

詩牟奈 博士さま。

彌鄒忽 公主ママ。私奴はこの大任を辭し唐

へ渡つて今一度修業し直したいと、考へて

鍾のエレミエ

憂色は、自體、何者のなせる業かつ？

彌鄒忽 人の力で成らぬものを、いけにえに頼らうなどと、お情けないなされ方と存じます。よしなき迷信を信じられ、上監ママの赤子たるものの命をいけにえに捧げることはなりません。

金壘 迷信ぢやと？ 口幅つたいことを申す奴。かほどに國費を費やし、匙・箸類に至るまでかき集めて置きながら、今度もまた失敗れば、如何なる仕儀に立ち至るやも計られぬ時ぢやぞ。五年もの間、炭焼きばかりに追ひ廻されて、金化の百姓たちは炭焼きを嫌ひ、夜逃げを致すといふ風説もそちは耳にせぬか？この上大等を殺すと、處々

方々から脅かして參つてゐるほどぢやぞ。

これらは悉く何奴のせむだ？ 出來ぬと申せばお役替へを言ひ渡すばかり。新羅の天地にその方のみが鑄工ではないわ。彌鄒忽の他に人は居ぬと申すのかつ？

智照大師 上大等さま、お鎮まりなされ。

金壘 退り居らう、不屈者。九族を滅してもあきたらぬ奴。

金壘、出て行く。

智照大師 博士、何といふことを申されるぞ。人命を尊ばれ、迷信を信じぬ博士の心中、お察し申すが、と申せば、石で造つた

世 威

金龜

(魯莽な態度に覆いか盛、無味だが、再び負けて) 副

使が今その女兒を連れに參つて居る。明朝

神宮で祭祀を執り行うた上、銅の中に鑄込

むやう、手筈を整へい……

彌鄒忽

(驚と) それはなりません。

金龜

(怒り心頭を發して) 何と？ならぬと。

彌鄒忽

恐れながら、いけにえを捧げること

はなりません。

金龜

わけを聞かう。

彌鄒忽

いけにえを捧げて見ても、得る所は

御座りませぬ。

金龜

あるかどうか、そちに判るか。

彌鄒忽

ある道理は御座りませぬ。金や銅は

金物を作りましても、貨幣を作りましても

打てば鳴ります。それは、自らの中に音

を潜めてゐるからで御座ります。人間は

生物ゆえ生きて居る間は口より聲を立てま

しても、死ねばそれまでに御座ります。

人間の骨や肉は、それらの中に音を持たぬ

ためで御座ります。人間の體は煮え立つ

銅の中に混ざれば錆けてなくなるばかりで

御座ります。

金龜

つべこべと、その方は身共に向つて鑄

鐘法の説法か……

彌鄒忽

物の道理を申し上げたに他なりません

ぬ。

金龜

それほど物の道理を辨へてゐるなら何

故に幾度も失敗り居つた？ 國に漲るこの

鍾のエレミア

の御靈前にこのことをお報せ仕つた上立ち  
戻らう。

金龜 一足先へお歸りなされ。身共もおつ  
けそちらへ參る。

智恵天使、出て行く。入れ違ひに彌鄒忽が出て來て、腰をか  
どめる。

彌鄒忽 お召して御座りませうか。

金龜 幾日か會はぬ間に、随分やつれ居つた  
なう。ぢやが、氣を落すものではないぞ。

不斷の希望と勇氣が無うては大事は遂げら  
れぬ。

彌鄒忽 有難き仰せ、身に泌みまして御座り

まする。

金龜 宮中ではそなた一人を頼りに思うて居  
らるるゆえ、こたびの御落膽も大きかつた  
と申すもの。なれど何處までもそなたを信  
じて、やれる所までやらして見よとの有難  
き御誼であつた。

彌鄒忽 比ぶべくもない御鴻恩、心身を投げ  
うつてお酬ひ申し奉る所存に御座りませ  
る。

金龜 ところで、そちも已に聞き及んで居ら  
うが、宮中に於ても廟議に上つたし、下々  
でも色々取沙汰致して居るゆえ、女兒のい  
けにえを鑄込むことに決したぞ。

彌鄒忽 (愕然として金龜を仰ぎ見る。)

威 世 德

て置きながら、更に失敗りを量ねたとあつては、申辭が立つまいではないか。身共はそれを思ひ、この最後の道を選ぶことに致したぞ。

副使 博士は何と申して居るので御座りませう。

金龜 未だ話して居らぬ。ぢやが、應じぬやうなことは、よも有るまい。判官に申し付け、この道師に案内を頼んで、その女兒を連れ歸るやう、計らつて呉れい。

副使 は。

金龜 母なる者に嘆きをかけぬやう、美々しく襪籠を飾り、新らしい着物も用意するやう傳へてくれい。それから、樂部に手筈

して、行例には奏樂を附するやう。

副使 は。

金龜 そなたは直ちに參内し、宮中にもこの由言上致すやう。典祀署にも廻り、早々神宮にも祭祀の仕度を致すやう、申し付けくれい。身共は女兒が參つたら、直ちに伴ひ行くぞ。

副使 は。

金龜 出がけに、博士を呼んでくれい。

副使 は。

副使、托鉢僧、出て行く。

智照大帥 それでは拙僧は寺に歸り、先大王

鍾のエレミエ

中、難船して相果てた由に御座りまする。

家の内外に梨の木を植ゑ廻らし、春ともな  
りますれば、村中が明るくなるほど咲き揃  
ひますので、梨花女と呼んで居りまする。

金壘 して、子供は？

托鉢僧 一粒種の娘に御座りまする。

金壘 その兒を差し出すと申すのだな？

托鉢僧 私奴が門前で喜捨を乞ひますと鉢盂  
などは一片もない、お米とて一匙も御座ら  
ぬ、この兒など差し上げませうかき申まし  
たゆえ、兒など貰うても詮ないことぢや  
と、そのまゝ立歸りまして御座りまする。

この時、金體僧の延馬が門口で止まる、副使が入つて来る。

副使 只今、行つて参りました。

金壘 級塗は何と申し居つた。

副使 及ばすながら、心魂を傾けて大任に當  
りますると申して御座りました。委細は  
後刻お傳へ致すゆえ、取急ぎ出發の仕度な  
と致し置かれますやう申し置きまして御座  
りまする。

金壘 うむ、それはそれとして置き……今和  
尙と談合の上女兒のいけにえを捧げること  
に致したぞ。

副使 宮中では？

金壘 攝政ママがそのやうに計らへと仰せら  
れたのぢや。女兒を差し出すと申出た奇特  
な女人も居る。これまで苦心して銅を集め

世 誠 齋

金龜 年頃は?

智照大師 七つ、八つかなう。

金龜 なれど、兒を差し出す者が御座るま

い。攝政ママに言上出来申さなんだのもそ  
れを憂へたればこそぢや。

智照大師 そのお氣遣ひには及び申さぬ。國

の大事を憂へ、我が娘を差し出すと申した

奇特なる女人が御座る。

金龜 それはまことか。

智照大師 寺の道師が、托鉢に出た道中でそ

の話しを聞いて來申した。

金龜 その道師にお合はせ下さるまいか。

智照大師 同道して參つた。(外に向つて) 圓覺

それに控へ居るか、これへ參れよ。

托鉢僧が入つて來る。コカル(譯註 僧の衾りもの)を衾り、  
頸には數珠をかけ鉢を手にしてゐる。

金龜 近う。

托鉢僧 はつ。

金龜 兒を差し出すと申した女人が居ると

な

托鉢僧 は。

金龜 何れに住まひ居る者ぢや。

托鉢僧 明治山の麓に住む女人に御座ります

る。

金龜 連れ合ひは何を致して居る。

托鉢僧 村人たちの話によりますと、船府大

舎として勅使に隨行、唐國に渡ります途

鍾のエレミエ

智照大師 宮中では御允許下さらうか。

金壺 今日もそれについて御下問あつたのぢ

やが。

智照大師 何と仰せられた?

金壺 太后ママ、満月夫人におかせられ

は、かく失敗りを繰り返すやうでは頼りな

い、傳へ聞くいけにえとやらを捧げて見て

はどうであらう、と仰せられた。

智照大師 侍中さまには?

金壺 最初の中こそ反對せられたが、今では

どうやら御同意の様子で、他の重臣たちも

賛意を表し居つた。

智照大師 上大等様は如何やうに言上いたさ

れた?

金壺 今少し考へさして下さりませ、後刻言

上仕りますると申上げて御前を退下して参

つた。まことは、今日和尙が歸られると聞

き、お訪ねして御意見を伺ひたい所存で御

座つた。和尙の御意向は?

智照大師 拙僧はいけにえを捧げて見たいと

存ずる。

金壺 して、方法は?

智照大師 神宮で祭祀を執り行ひ、銅を鑄る

時一詣に鑄込みたいと存ずる。

金壺 男の子で御座るか?

智照大師 女の兒が宜しからう。男はむくつ

けき者ゆえ、幼き者といへども累を及ぼす

憂ひが御座る。

威 世 離

智照大師 いけにえで思ひ出したが、上大等

殿に折入つて御相談申上げたいことが御座る。まことはそれにつき、沙梁部のお邸まで出向いたのぢやが、御不在と聞き、こち

らへ参つた次第ぢや。

金壘 何かよい思案でも御座るか。

智照大師 行く先々で『これは天帝のお怒りの所爲に相違ないゆえ、いけにえを捧げて、お怒りを解くより他に方法はない』などと申してで御座つた。

金壘 いけにえとな？

智照大師 左様、汚れなき子供をいけにえに捧げて、天帝のお怒りを解くと取沙汰致して居るので御座る。

金壘 では天帝にいけにえを？

智照大師 如何にも。盛んな祭祀を執り行ひたる後、子供の魂を鐘の中に鑄籠めよと申すので御座る。

金壘 ……

智潤大師 その昔、秦の始皇が阿房宮を建立致せし節も、幾度かの失敗りを重ねた擧句、壁に少女のいけにえを塗りこめてあの輝やかなしい宮殿を造り上げたと傳へて居り申す。して見れば、満更よしなきことども申されぬ。

金壘 まことは、已に何者かゞそれを聞き傳へて、京師でもいけにえを捧げよと沸き立ち居るのぢや。

鍾のエレミエ

智照大師 只今着到致して御座る。

金曇 都を發たれて、ひと月あまりも經ちましたなう。

智照大師 四十日目に御座る。

金曇 して喜捨の様子は？

智照大師 行く先々で、拙僧の姿を見るより

早く、餘器を取り揃へて差し出し申した。

金曇 ひとへに和尚の高徳のたまもの。

智照大師 一方、未だ鑄鐘の山來を解せず怨

みがましいことを申す者たちも御座る。

金曇 それは如何なる次第で御座らう。

智照大師 國庫は枯れ、民は塗炭の苦しみに

呻いて居る、國税の取立ては嚴しく、鑄鐘

は失敗り續きで、もうとても我慢がなら

ぬ、速やかに鑄鐘工事を中止致さねば、檢

校師金毘羅様と彌鄒忽を斬るばかりぢやと、

敦固く者も御座つた。その度に拙僧は町方

の者たちをかき集めて、この鐘を鑄るは五

穀豊穰を祈り民草をして鼓腹せしめ、平和

な日日が長く續いて安隱な暮しが出来、國

威を輝かせて新羅の社稷を無窮ならしめん

がためぢやぞ、と説き申した。

金曇 和尚自ら諸國を遊説されながらのお骨

折り、それにお報ひするためにも、この度

こそは凡てをいけにえにしてこの鐘を鑄上

げねばなるまいと存する。銅が足りなく

ば、各寺刹の大小の鐘を召し上げ銅錢を鑄

潰してでも成し遂げる所存で御座る。

威 世 徳

んどが我が國人に御座まする。

金 巖 ならば人を遣はして今一度頼み見るか

なう。

副使 それが宜敷う御座りませう。

金 巖 そちが一番適任なのぢやが、そちが居

ぬと工事が捗らず……誰をやつたものかな

う。

副使 級役、金初正は如何で御座りませう。

金 巖 うむ、初正なら勤まりさうぢや。

副使 侍中、金隠居さまが唐より御歸國なさ

れる節、在唐日本國大使藤原河清より寧樂

に送る便りを言傳かつたと申すでは御りま

せぬか。

金 巖 ついでが無うて送れずにあると思ふ

が……

副使 とてもものに、それも送り届けます

れば……

金 巖 うむ。よい所に氣が付いた。それでは

級役にこの事を申し傳へ、夜分にでもそれ

がしの許へ参るやう、計らつて呉れぬか。

副使 畏まりまして御座りまする。

副使、外へ出て行く馬の咄き、馬蹄の音、遠ざかる。奉徳寺の住持、智恵法師が入つて来る。袋を背負ひ、杖をついた托鉢者。

金 巖 (喜んで迎へながら)これは、これは。いつ

戻られた……

鍾のエミレエ

込むのも申譯ない仕儀ぢや。

副使 日本國には金が少いと聞き及びます。金と取り換へて貰へば宜敷う御座りませう。先年、寧樂の東大寺で大佛を建立いたしましたる節も、百濟の敬福王が金を贈つて金箔をかぶせたと申します。古へより日本國と我が國とは、國の交はりに於きまして親密な間柄に御座りますが、さらに佛の道を通じて切つても切れぬ縁に結ばすれ居りまゆえ、神鐘鑄造に用ゆる銅と申せば喜んで用立てるに相違御座りませぬ。

金龜 東大寺の大佛を創建した行基と申す大師は、我が國の人ぢやと申すの？

副使 お言葉に御座ります。そののみか漢

山時代の阿真岐と王仁が論語と經典を持ち渡りましてより、數知れぬほど易博士、曆博士、醫博士、採藥士、樂人たちが、彼國に渡りまして御座ります。

金龜 日本國に於ても佛の道があまねく弘まつてゐる様子ぢやの？

副使 それがしが先大王二十二年二月、隨行員二百十一名を隨へ、親交を計るべく渡海致しましたる節も目にして歸りましたが、坂田寺、法隆寺、法起寺、法輪寺、百濟大寺、峰岡寺、慈凝寺、難波の天王寺など、大寺大刹が數多く創建されて居ります。

これらの膏請に力を添えまして造寺工、造佛工、瓦博士、壁畫工、鑄師等が、殆

威 世 勝

判官 先大王には副使様を駙馬になさるお積りでゐれたのぢやよ。それを知らぬ者はない筈。こたびのお興入れは悉く金持中さまの差金で定まつたこと……

祿事 副使様のお顔色が勝れませぬのは、そのせいで御座りませうか。

判官 國是を楯に、宮中でお取り極めになつた事ゆえ、副使さまは黙つてお引下りぢや。(人の氣配がする)

副使が入つて来る。料丹を二枚折つて匂ひを嗅ぐ。奥所かぬか投げ捨てる。この時金龜が入つて来る。一回迎へる。

判官、資材見積書に御座ります。

金龜 (身分したる後、署名する)

判官、祿事、見積書を持つて出て行く。

金龜 それでも銅が足りぬやうぢやの。

副使 總體で三萬五千斤に御座りまする。

金龜 唐からでは運ぶのが大儀ゆえ、どうあつても間近な太宰府へ赴き、取り換へるか、借りるか、せねばならぬが……

副使 日本國へ直ちに人を遣はしては如何で御座りませう。

金龜 用立てゝくれるか、どうか。神鑄鍾造については、日本國から己に三萬斤の銅を贈られて居る。それを使ひ果してまた頼み

鐘のエミレ

副使、判官、祿事、再び出て来る。

詩牟奈 (副使が差し出す紙片を取りながら) これは

何で御座りませう。

副使 鑰匙を喜括して頂きましたる禮狀に御

座ります。

詩牟奈 博士は何れへ行かれましたか？

副使 料上の鑄型に觀世音昇天像を刻んで居

られます。

ムラサキ・見に參つても大事御座りませぬ

か。

詩牟奈 お仕事の妨げになつては相済みませ

ぬ。それよりも道師たちが立ち歸つたと申

すゆえ、寺に参じませう。喜捨を受けた品

々も見たいもの……

ムラサキ 公主ママのお言葉に従ひませう。

二人 微笑んで出て行く。侍衛部監が後に履き、副使は遠りに出る。

祿事 御覽じませ。公主ママと副使さまがあ

のやうに並ばれたところは、何とお似合

ひな……

判官 新羅に男の数も多いが、公主ママのお

婿がねは、金體信將軍を措いては有るまい

なう。

祿事 それぢやのに、何故唐などへお興入れ

なさるので御座りませう。

感世題

も覺えて居られますか、大博士が自決なされた時、この鐘は新羅の鑄工が是非とも仕上げねばなりません、母上を説かれた時のことを……

ムラサキ 覺えて居ります。

詩牟奈 宿衛王子の叔父上が、唐から歸られてからといふもの新羅の國には唐を崇め唐に頼る風潮が漲り、わらはは女ながらも、苦々しく存じて居りました。そのやうな

時、博士は始めて新羅の國柄をはつきりさせ、他國に阿ねることを戒められたので御座ります。それまでは我が國は唐のものを真似ることのみ考へて参りました。三國が統一されて後、一度に唐の文物が、生の

まゝで押し寄せて來て整へたり選び取つたりする暇がなく、そのまゝ受け入れて参りましたゆえ。それを續けてゐては新羅の文物は滅びると、博士は言はれたので御座ります。取るべきものは取り、捨つべきものは捨て、新しい新羅の文物を創り出さねばならぬと、博士は言はれたので御座ります。わらははそのお言葉に胸を打たれました。

ムラサキ お賢しい公主さま！

詩牟奈 博士なら必らず首尾よくし遂げるであらうと、わらはは博士を頼もしく思うて居ります。それゆえ、わらはは母上にお願ひしたばかり……

國のエレミエ

る。

ムラサキ 京師八百八十八個寺の寺僧たちが

隅なく諸國を經廻つて喜捨を受けた鐘器は

屹度山ほども御座りませう。

詩牟奈 奉徳寺の住持さまが、眞先に立たれ

たと申します。

ムラサキ それでは、わらは違のも奉納いた

ませう。

詩牟奈 わらはたちも少しばかり持つて参じ

ました。

副事 公主ママにも？

詩牟奈 ムラサキ、姫と二人して、宮中にあ

るものを寄せ集めて参じました。(侍頭監)

に こちらへ運んで給も。

副使 いえ、いえ、私奴らが致しまする。

副使、判官、祿事、出て行く。判官と祿事は鐘器の入つてある袋をかついて戻つて来て、副使の後から倉庫へ運び入れる。

ムラサキ 民百姓の誠がこもり、こたびこ

そ、きつと首尾よく参るで御座いませう。

詩牟奈 御佛の加護が無うては叶ひませぬ。

ムラサキ 公主ママには何故そのやうに彌那

忽博士のことをお心に掛けられるので御座

りませう。

詩牟奈 わらはは……たゞ、博士の至誠に打

たれたばかり……心に掛けるなど……姫

威 世 禮

ちなんぢや。

祿事 一字位、どうでもよろしいでは御座ませ

ぬか。

判官 檢校使様のお耳に入れば、立ち所にお

役御免ぢやぞ。

この時馬籠の音と車輪の軋みが裏の方で傳る。侍衛部監が入つて來る。

侍衛部監 公主マヤのお出ましぢやぞ。

判官 慥て、執務本館の方へ行く。やがて副使と共に出て來る。一同、平伏。公主詩牟奈とムラサキ姫が入つて來る。

詩牟奈 餘器の集まりは如何で御座ります

か。

副事 民草たちが先を争ひ國を擧つて奉納い

たして居ります。それに積みあるのがそ

れで御座ります。

ムラサキ まあ、澤山な餘器……

詩牟奈 花郎の若者たちが、諸國を經廻りな

がら奉納を勸めて廻つてゐると聞き及んで

居ります。

副事 民草の赤誠は誠に涙ぐましいばかりに

御座ります。眞新らしい子供の匙や箸ま

でも持ち寄つて參ります。

詩牟奈 托鉢に出た道師たちは如何致しまし

た？

副事 本日揃つて立ち歸る筈に御座ります

鍾のエレミエ

一、扁材 五〇〇枚

一、木炭 四〇〇俵

祿事 何ゆえ、檀の炭でなければ不可ないの

で御座りませう。

判官 ほかの炭では火力が弱いんぢや。

祿事 書き取することは書き取りますが十二

萬斤の銅が集まるで御座りませうか。

判官 國中を擧げてかき集めるんぢやよ。瀬

戸物を使つて、鋸器はお國に拵げよと郡ご

とに高札が出てゐるさうぢやから、集まる

には随分集まるぢやろ。

祿事 錫を入れねばよい音色が出ぬさうぢや

が、今度は一つ思ひ切り混ぜて見ては如何

で御座ります。

判官 混ぜ過ぎれば、割れ易いと申すんぢや

そんな事は博士にお任せすればよい。

祿事 それでも亦失敗されましたでなう。

判官 侍中さまのお言葉通り、唐から名工を

呼び寄せれば、立ち所に成し遂げようも

のを……

祿事 氣位ばかり高く、慢心が昂じて、唐の

工手では金輪際出来ぬと、高音を吐いたと

申すでは御座りませぬか。

判官 今度の失敗りは以前のやうに、罅が入

つたとか、よい音色が出ぬとか申すのでは

なかつたのぢや。朝散大夫、前太子司議郎

様が上監ママの教撰を奉じて書かれた鐘銘

に死んだ羊蟲が挟まつて字が一字潰れたか

世 成

一 桑 〃 祿事

詩牟奈 王の姉

ムラサキ姫 日本遣新羅留學生

智照大師 奉徳寺の住持

托鉢の僧

梨花女 寡婦

その女

金初正 遣日本使

侍衛部監

惠恭王六年、庚戌、五月

文箱、椅子、厚子、襦の標、花瓶等適宜に。

腰には編織設計圖、下手には鑲嵌を入れた俄が山積してゐる。

庭には牡丹、水仙、石竹、石壁等の花園。

判官忠利と祿事一桑、再鑲嵌材見續編を讀み上げ、聞き寫ししる。

判官 一、熟銅十二萬斤(約七)

祿事 一、熟銅十一萬斤(受けて書き取る)

判官 一、金銀 二〇〇〇斤

一、錫 五〇〇斤

一、亞鉛 一〇〇斤

一、粘土 五〇〇石

一、角材 五〇〇本

神鏡遺蹟成典、執務室。

聖德太子廟續修成典と書かれた扁額。

鐘のエレミエ

は大幣石ちやと侍中さまは仰せられました  
わらはは侍中さまと重臣たちのお言葉に従  
ひ、新羅の宗社を無窮ならしむるため目を  
つぶつて唐の國へ嫁ぐ積りで居ります。こ  
の上にも、唐の皇室に倣ねり、追従するわ  
けが何處に御座りませう。

金隆居 御婚儀と、鑄工を呼び寄せることと  
は、何の關はりも御座りませぬ。

詩牟奈 鑄工を呼び寄せて、親交とやらを厚  
うなされませ。わらはは他國へ嫁がすとも  
濟みませうほどに……

鑄工、役けつぐるやうに言つて出でしまふ。

満月夫人 姫、姫、何としたこと……  
(金世に) その若者に再度の重任、申し付け  
られよ。

金世 恐れ入り奉りまする。

金世以下關係者一同の顔に安堵の色澤も彌鄒忽の高潮せる  
興奮と、侍中の不服氣な面持。

第一一幕

幕

- 金 世 鑄鐘檢校使
- 金體信 // 副使
- 彌鄒忽 // 次博士
- 朴韓味 // 助教
- 忠 封 // 判官

隱世風

れど、この工房の構へ、鑄鏡の秘術に至りましては、憚りながら唐國に倣ひし所は些さかもこれ無く、これ悉く師匠と私奴が案出致したものに御座ります。

金隱居 唐國の流れは汲んで居ぬと申すの

か？

彌鄒忽 恐れながら、仔細にお調べ下さいませ

すれば、お判りのこと存じます。唐國

の鐘の音色は彼の國の地形にも似てただつ

廣く一本調子、外側の姿形も大らかでは御

座りまするが美しいとは申されませぬ。一

撞き致しますれば花郎の血を湧かす雄壯な

響きを傳へ、二撞き致しますれば聖壽萬歳

を壽ぐ民草の唱和となり、三撞き致します

れば嬰兒を眠りに誘ふ子守唄ともなる、森羅萬象悉くを押し包む御佛の慈愛にも似た音色は、唐國の鑄工の手にては到底現はし盡せぬと存じます。

強烈な、情熱的な思想に詩牟奈と、ムラサキは感激し共鳴す

る。金隱居は頷に満足せる様子

金隱居 大國と親交を厚ふせんとするは、先

祖代々よりの新羅の國是ぢやぞ。

詩牟奈 (一足進み出) 國是の機へはわらは一

人でこと足りると思ひます。

金隱居 機へ？

詩牟奈 わらはが唐皇室に嫁げば新羅の社稷

鍾のエレミエ

か、み月で仕上げ居つた下典が……

彌鄒忽、悲憤な顔で、悄然と入り來り、下手に平伏する。

彌鄒忽 上監ママに伏して申上げます。こ

の大業を私奴に今一度お申し付け下さりま

せ。骨を碎き身を粉にするとも必らずとも

に見事成し遂げ、師匠の冥福を祈りたい所

存に御座ります。

金隠居 師弟の情愛にかけまて、國家の大事

を忽せに致すわけには參らぬぞ。

彌鄒忽 何卒、何卒今一度お申し付け下さり

ませ。必らずともにし遂げて御覽に入れま

する。このまゝ私奴らが工房を退出致しま

しては、心を残して相果てました師匠が不  
愍でなりませぬ。

金隠居 (攝政に) 鑄工を大國より招きますれ

ば、速やかに大業の成就を見るのみならず

唐皇の御信任も一入深かるべく、一舉兩得

の妙策かと心得ます。

満月夫人 ……

彌鄒忽 攝政ママ、恐れながら、唐の鑄工の

手にては、先大王のお希み遊ばした音色が

出せませぬ。

金隠居 何と申す？

彌鄒忽 師匠も唐の國には二十餘年留まり居

りましたし、私奴も二十年の間阿真と申す

當代隨一の鑄物師に入門致し居りましたな

世 威

金龜、憤然と歸つて來る

金龜 博士が自決致しまして御座ります。

副使 不首尾と聞き、直ちに割腹して上監マ

マと攝政ママにお詫び仕ると敦園くをそれ

がしが取り押へて置きましたに……

金龜 上監ママに奉る博士の遺書が御座りま

する。

惠恭王 (龍心の神廟から) 何と書いてある。早

く讀み上げて見よ。

金龜 (遺書を讀む)

大罪人下典、忝けなくも上監ママの聖旨を

體して神鐘鑄造の大任を拜し、徒弟らと共に

鴻恩の萬分之一にも報ひ奉らんものと粉

骨碎身仕候、なれど、生來の鈍物加ふるに

技拙く、あたら、五年の歲月を浪費し、六

度も不首尾を重ねて、宸襟を惱まし奉り候

段正に罪萬死に當り候。

臣 下典、八歳にして父に伴はれ唐國に赴

き二十年間鑄物の技を學び、歸國の後と雖

も専心技を練ること四十餘年に及びしも、

鈍才遂にその名を成す能はず、剩さへ叡慮

を惱まし奉り、恐懼身の置き所知らず、一

死以てお詫び仕候

戊申三月 鑄鐘大博士 大奈麻下典

滿月夫人 (涙を拭ひながら) 不惑な者ぢや

惠恭王 皇龍寺の四十八萬斤の巨鐘を、僅

羅のエレミエ

るか?

金毘 石窟庵の石佛、佛國寺の石橋、石塔を  
始め新羅の國八百八十八寺の鐘と塔の悉く  
が、新羅の國の技工の手で作られまして御  
座ります。今に至りこの鐘一つを持って餘  
して大國より鑄工を招いたとありまして  
は、御威光にも拘はるかど存じ奉ります  
る。

満月夫人 それぢやとて、この期に及んでは  
言譯にむらぬ。わらはは攝政として申し付  
けますぞ、早々に鑄鐘使を罷免致すやう。

金毘

満月夫人 そなたが申し聞けすば、わらは親  
ら沙汰しますぞ。博士をこれへ呼びやれ!

この時、工房の裏手から小さな女の悲鳴が聞えて来る。一  
同、聲のする方を凝視す。「誰か!」「これへ参れ!」等々。■  
て、公主とムラサキ姫が、恐怖に戦きながら入つて来る。  
翌朝、やつと下手に平伏してゐる人たちの中に師匠が居な  
いと氣付き、不吉な聲に觸られて、驚立たく工房の裏へ  
觸れ入る。

「誰かが河の畔りで刺殺して拘束されましたぞ」

遠くで「お師匠さま、お師匠さま」と呼び聲が段々と慄え  
る。

やがて「お師匠さま」と叫ぶ聲、震いて嗚咽の聲、勳美の  
聲、金毘、副使、徒弟たち、一齊にかけつける。

詩牟奈

(恐怖に戦きながら) 母上。

満月夫人 公主、氣を鎮めやれ!

威 世 御

老子や孔孟の徒が入り込んで始めて學問への道が開け、佛の道が傳はつてこの方漸く

工藝なども進んで參つたと申すもの、文物

然り、制度然り、寺院の建て方より古墳の

壁畫に至るまで大國のそのの見様見真似で

ないものは御座りませぬ。何とて、新羅の

古いしきたりなど...

満月夫人 大國には優れた鑄工が居りまする

か。

金隱居 數へ切れぬほど居りまする。

この時、金龜、走り出でて平伏する。

金龜 畏れ多くも上監ママの行幸にお出迎へ

も仕らず、恐縮至極に存じ奉りまする。

満月夫人 この度こそ、お役替へ申し付けて

は如何ぢや？

金龜 は？

満月夫人 これまでに失敗りを重ねては、そ

なたも納得致したであらう。己に大博士も

寄る年波、若手の腕の立つ者に差し替へて

は如何ぢや。

金龜 新羅には下典に及ぶ鑄工が御座りませ

ぬ。

満月夫人 新羅に居らば大國より召し連れ

よう。

金龜 先大王の御遺志に御座りませぬ。

満月夫人 鐘一つに五年の歳月を費し、六度

も失敗ることが先大王の御遺志ぢやと言や

鐘のエレミオ

だされるが至當と存じ奉ります。

満月夫人 (副使に) 京師の優れた鑄工にはど

んな者が居やる?

副使 芬皇寺の鐘を鑄ましたる蘇工、栢栗寺

の鑄師如來を仕上げましたる白徐匠が居り

ますなれど、下典に比べますれば、下典の

弟子にも及ばぬ者どもに御座ります。余

の者はたゞの釜造り、鑄物師に過ぎませぬ。

満月夫人 そのやうな者どもに申し付けても

下典が仕損じたこの鐘を鑄上げるとは叶

ふまい。

金隠居 新羅の鑄工ばかりお選りになること

は御座りませぬ。

満月夫人 兄君には唐の國から招けどのお言

葉で御座りませう。

金隠居 宿衛王子として唐の國に留まり居り

し頃より、幾度も上奏致しまして御座りま

するぞ。攝政ママには、それをお取り上げ

遊ばされず、今日が日まで失敗りを重ねら

れて居られます。

満月夫人 わらはもその度に、上大等に侍中

のお言葉を申し傳へましたなれど、先王御

在世の頃より神鐘鑄造の凡てをお任せあつ

た上大等が聞き入れぬとあつては致し方も

御座りませぬ。

金隠居 上大等の頑なさが禍の種に御座りま

する。新羅の古いしきたり、新羅の誇るべ

き文物と、口辭に申しては居りますなれど、

成世齋

副使 (ひれ伏したまふ) 恐れ入り奉りまする。

恭恭王 何かの祟りで、もあらうか。

満月夫人 まるで使ひ物にはなりませぬか。

副使 もう一度鑄直さねばなるまいかと存じ

奉りまする。

詩牟奈 入つて見ても大事ありませぬか。

副使 はつ。

副使、一行を案内して工房に入る。

金隠居は、見ても始まらぬ、と言つた風に立ち俯してゐる。

副使、恭恭王、満月夫人、工房から出て来る。

満月夫人 上大等には如何取り計らふ所持で

ありませう。

副使 未だ何とも申しては居りませぬ。

満月夫人 副使、そなたはどう思ひます。

副使 今一度申し付けたいと愚考致しまする

金隠居 (副使を眺みながら) このまゝ續けさせて

は恐れ多い次第には御座りますれど、お手

許すら不如意になるやも計られぬ所に御座

りまする。

惠恭王 父王の御遺言ゆゑ、何れにしても取

り止めることは叶はぬ。

金隠居 畏れながら、先大王の御遺志にお背

き遊ばすやう言上致した次第では御座りま

せぬ。國力の一切を傾けて、鑄直される思

召に御座りますれば、鑄造大博士下典以下

徒弟、鑄工に至るまで悉くお役替へ仰せ出

鐘のエレミエ

副使 (上房内に向つて) 上監ママの御臨御ぢや

ぞ。早々取り片付けませい。

副使、お迎へのため外へ出て行く。彌勢と徒弟、鐘上、

あたりを掃き清める。

鑄丁一 いよく、大事ぢやぞ。

鑄丁二 それにしても、お國を出られる公主

ママのお顔が拜めれば、死んだとて思ひ残

すこともないぞよ。

徒弟 公主ママは何れへ行かれます?

鑄丁一 春になれば唐の皇子様へお輿入れぢ

や。

徒弟 お輿入れ?

鑄丁二 公主ママが乗られる駕籠代りの遺唐

船の組立てに、船府では夜を日についての  
目の廻るやうな忙しさ、こいふ時こそちは

耳にせざつたか。

徒弟一 ではもう本極りなので御座りますか

鑄丁二 先月、倉部郎中途歸崇敬が來た時極

つたとよ。

「シツシツ、行幸ぢやぞ」と誰かが囁やく。一回左右にひれ  
伏す。

副使金禮信、惠恭王(十四歳)、蘭月夫人(攝政)、公主爵

牟奈を扶掖して入つて來る。

蘭く侍中金禮信とムラサキ姫。

惠恭王 ことばも音色が濁つて居ると申すの

世威

する。

侍衛部監

(若年威儀を損じたが、再び尊大ぶつて)

十

八年目に始めて宮中をお出まし遊ばし、下界に玉歩を印せらるゝゆゑ、塵芥ほどの醜きもの、汚れたるものもお目に止るやうなことがあつては相成らぬ、この嚴命で御座つた。

侍衛部監、傳へる侍傳へて置いて出て行く。

祿事

(憤慨して)

侍中の職にある方が、位人

臣を極むる上大等兼兵部令として一國の軍政を一身に掌らるゝ金壘さまに向ひ萬事粗忽なきやうだの、心得置けたのちと不遜

なお言葉では御座りませぬか。

副使

そのやうな生れつきのお方ゆゑ……唐の國へ二年間留學されてからといふもの、

傍若無人ななされ方ばかりぢや。

祿事

上大等さまにはちとお強く出られた方がよろしからうと存じます。

副使

侍中は今上の御叔父に當らるゝ方ゆゑ

上位の上大等さまにも増して宮中に於ける權勢は並びない。こなたたちの思ふやうには行かぬものぢや。それよりも速かに奉徳寺に走せつけ、上大等さまに御臨幸の由申し傳へられい。

祿事、外へ出て行く。

鍾のエレミエ

ませぬか。

副使 はてなう。

禰、執務房に入り、笈を持って出てあたりを掃く。馬籠の音、門前で止み、侍衛部監が入つて来る。

侍衛部監 上監ママの御臨幸で御座るぞ。

副使 鹵簿にて行幸遊ばすので御座りませうか。

侍衛部監 微行ゆゑ構ふな、どの畏れ多い御錠で御座つたぞ。

副使 直ちに御迎への用意致させまする。

侍衛部監 特に本日は國母ママにおかせられ  
ても、詩牟奈公主ママと、大和の國の碩學

吉備真備のお娘御にて公主ママの唯一人の  
お話相手ムラサキ姫を従へさせられて御臨  
幸の山、萬事粗忽なきやう取計らはれよと  
の、執事部侍中のお言葉で御座る。

副使 萬事粗忽なきやう？

侍衛部監 左様！それに、今一つ心得置かれ

たきことは……

副使 (やゝ不快に) 心得置く？

侍衛部監 (我不端と) 侍中金隠居さまには、

それがしに左様仰せ付けられましたぞ。公

主ママには今年で十六年……(指を折りながら)

いや、十七年……(不審なので祿事に) 公主ママ

には御幾つにわたらせらるゝぞ？

祿事 (笑ひながら) 御年十八にわたらせられま

威 世 應

金龜

(秋麴の如く)そなたが博士をかばふ事は

要らぬ。

お役には立ち申さぬ。工房に戻り、今一度  
鐘の鳴らぬ原因を納得の行くまで究め申さ  
う。

金龜、工房を覗きしないで出て行く。

副使

(祿事に)何れへ行かれるか見て参れ。

下典、繩壁の中に、我を辱れてからと工房の中へ入つて行  
く。弟子たち、後を追ふ。この時、工房へ向つて囀けつける  
馬蹄の音。

祿事

(外を見ながら)奉徳寺へお出で、御座り

まする。

副使

誰方であらう。

彌鄒忽

何故に奉徳寺へなごお出で、御座り

祿事

(普のする方を指差して)侍衛部監さまの

ませう。

やうに見受けまする。

副使

この鐘を鐸るは、崇徳大王の御靈前に

副使

はて、檢校使さまが已に参内されたら

獻じようとの朝旨からではないか。この度

も思へぬが……

の不首尾を御靈前に詫びられるお積りで御  
座らう。では、各々方、立ち盡して居ても

祿事

上監ママ、出御の御知らせでは御座り

鍾のエレミエ

失敗りの節も、寢殿にお籠り遊ばされしまゝ、五日も食をお絶ち遊ばされ、朝儀にすらお出ましが仰げなかつたに、もう一度余の口からこの仕儀を言上出来ると思ふか。

下典 ……

金甕 先王の御兄君孝成大王、開元二十六年、文王聖徳大王の御偉徳をお慕ひ遊ばされ奉徳寺を御創建遊ばされしより、御弟君には鑄鐘して御奉納遊ばされんどの思召しより、この大業を仰せ出だされた事の次第は、そなた達も存じ上げて居らう。なれど事成らずして神去りましゝにより、御跡を繼がせ給ひし今上におかせられては、父君の御志に副ひ奉らんと畏れ多いことながら

神鍾鑄造については一入お胸をお痛め遊ばされて居らるる。寶祚を御踐み遊ばされて四年、御年十四にお成り遊ばす御若年のママの宸襟をかくもお惱ませ申す愚か者たちが何れの御宇、何れの國に有りたるぞ。

副使 丁房より出て来る。

副使 何とも奇怪なことに御座ります。何處といつて非の打ち所も御座りませぬほどの出来榮えでありながら、濁みた音色がするとは合點が参りませぬ。天の怒れる業にて、博士の未熟な所爲だとは露思へませぬ。

世 威 德

のみに御座りまする。

**金鬘** 鐘一つに五年の歳月を費し、六度も鋳

直して置きながら、それで相済むと思ふ

か。檢校使金鬘一人の不面目でなく千萬年

後までも新羅の國の恥ぢやぞ。

**下典** お恥かしながら、お詫びの申し上げや

うも御座りませぬ。

**金鬘** 博士も恥を知ると申すのぢやな、臣と

して上監ママに畏れ多い次第とは思はぬ

か。

**下典** ……

**金鬘** 浪費した財寶が如何ほどか、博士は氣

付くまい。鋳捨てた銅が幾萬斤か、無駄に

費えた木炭が幾萬依か、そなたは心付くま

い。如何ほどの賦役を課し、如何ほどの物

入りぢやつたと思ふ。已に國庫も枯れ、兵

部令の任にあるそれがしが、國の護りたる

兵備を整へようにも、金子の出所がない始

末ぢや。

**下典** 凡て愚か者下典の罪に御座りまする。

**金鬘** そなたは、そなたの愚かさに今頃氣付

き居つたか。去にし冬の失敗りの時、今一

度お任せ下さりませれば必らずし遂げて御

覽に入れますると、大受合ひに受け合つた

は誰ぢや。恥を知る新羅の男なら、腹かつ

さばいてお詫び申すが至當ぢやぞ。

**下典** ……

**金鬘** 上監ママには何と言上致す？先達での

鐘のエレミエ

下典 副使さま、では如何致せばよろしいの  
で御座りませう。

副使 成就するまで、百千度失敗りを繰り返  
すとも、成し遂げねばなりません。

下典 檢校使さまには、御聞肩け下さりませ  
うか。

副使 今日の不首尾をお耳にされたからに  
は、おつけ馬で驅けつけられよう。あの  
御氣性では、たゞ事では済みませぬぞ。さ  
りながら、如何なるお咎めを蒙らうと必ず  
ともにお腹立ちは無用で御座るぞ。今一度  
枉げて大業をお任せあるやう、折入つてお  
願ひ申すより他は御座らぬ。

副使、丁房へ入る。

この時、遠くから走せつける馬蹄の音。

彌鄒忽 お師匠さま、檢校使さまがお出でで  
御座りまする。

馬蹄の音 近づいて来てびたりと止る。蘇帶を先に立て、上  
大筆兼兵部令たる檢校正使金巻が入つて来る。下典以下童子  
輩たち、下手にひれ伏す。

金巻 (秋霜の如く) 土器の割れる音がするとは  
そりやまことか？

下典 ……………。

金巻 銅や錫で鑄上げた鐘から、土器の音が  
するとは、何とした事ぞ。

下典 如何なる事の吹第か、天を仰いで嘆く

威世德

副使 上監ママ御下間にお答へ奉るは神鐘鑄

造檢校正使なる金幣さまと副使たるこの金

體信で御座るぞ。博士が死ぬには及ばぬこ

と。

下典 未熟なる腕前にて五年もの長い年月鐘

一つをもて餘し、いま又失敗りましたる段

割腹してお詫び申上げるより他に謝罪の道

は御座りませぬ。

副使 何と言はれる。新羅八百八十八ヶ寺の

大小数千の神鐘は、これ悉く博士ならびに

博士の弟子たちの手に成るものでは御座ら

ぬか。本國新羅に於けるよりも、日本や唐

の國に博士の名は擧げてゐると申しますぞ

鑄鐘技工を志さず留學生が諸國より争つて

博士の許へ馳せ參じて居る有様、未熟なる

腕前とは言はせませぬぞ。

下典 未熟者でなくば、たかゞ鐘一つに六度

も失敗りを重ねる道理が御座りませうか。

副使 天のなせる業、博士の腕前の所爲では

御座らぬ。

下典 我ながらあいそが盡き果て、二度と手

をつける勇氣が御座りませぬ。

副使 この鐘の成る成らぬは、博士の面目に

拘はるばかりでなく、我が國の文化の程度

を代辯するもので御座るぞ。日本や唐の國

に於ても、十二萬斤の巨鐘を鑄造中と聞き

及ぶこの際、中途で抛つやうでは國威にも

拘はり申しませうぞ。

鐘のエレミエ

んばかりに御座ります。

副使 (蘇事) 取り急ぎ檢校使どのにこの事を申し傳へよ。

彌鄒忽 腑甲斐ない奴めらと、さぞ御落膽のことで御座りませう。

蘇事、急いで出て行く。

副使 大博士は？

彌鄒忽 殆んど亂心の體に御座ります。死を以て上監ママと檢校使さまに御詫び申すのぢやと、逆上氣味なのを、弟子たちがやうやう取り押へて居ります。

この時工房の中から「騒ぎ、鬨を押へるでないぞ」と怒號す

る下典の聲と、「お輔匠さま今一度御試み下さりませ。」と

輔匠さま、刀物をお渡し下さりませ」と兩子や鍔丁たちの聲へお預びた聲が即ち來る。金體箱、下房の中へ飛んで行く。睨いて、蓬髮垢顏の、眼ばかりが炯々と輝く下典が刀を手にして出て來る。兩子や鍔丁たちが取り締つてゐるので、振り解かうともがく。

副使 大博士、刀をお離しなされ。

下典 副使さま。虫けらにも劣るこの爺いをして死なして下さりませ。

副使 (刀を奪ひ取つて速くへ取り投げながら) そなたが死んだとて仕損じた鐘が音を出すわけでも御座るまいぞ。

下典 所詮生き長らへましても、上監ママにお目通りの叶ふ身では御座りませぬ。

隱世威

音色を出すことは、容易な業では御座りませぬ。

朴蘭味、再び中に入る。

彌鄒、思忒出て来る。

祿事 御言葉通り、追ひのけまして御座ります。——この度は申分なき出来榮えに御座います由、祝着に存じます。

副使 うむ。御佛の加護でがなあらう。

この時、次博士彌鄒忽、工房から慌て、騒ぎ出して来る。酒奔な肩肘の中に不操不順の意態を露めてゐる。懼はれる貴い人品は、職業とは遠い距離を持つてゐる。

彌鄒忽 (聲して副使の前に打伏し) 副使さま。この

度も遂に鐘は鳴りませぬ。

副使 何と?

彌鄒忽 些さかも澄んだ音色が致しませぬ。

土器を割るやうな濁つた音が致します。

副使 若しや鉢が入つたのではあるまいか。

彌鄒忽 姿形には一點の非の打ち所も御座り

ませぬ。錫銅で作りました鐘から、土器の

音が致しますのは如何なる次第に御座りま

せう。

副使 鑄る前混り物がしたのであるまいか。

彌鄒忽 粗忽があるとは思へませぬ。

副使 何とした事であらう。

彌鄒忽 理由の判らぬまゝ、師匠は氣も狂は

鍾のエレミエ

副使 ああ長い鐘銘が一字も潰れぬと申すのか？

朴韓味 は。こたびこそは首尾よく参るで御座りませう。以前薄れて居りました龍の浮彫も、雨に逢へば今にも尾を振つて飛び立ちさうな勢ひに御座りますし、香爐を捧げた觀世音の昇天像も申分なく現はれて居ります。

副使 うむ。形だけは一應纏まつて居ると申すのだな。

朴韓味 御意には御座りますれど、如何なる音を發しまするか、そのみが心掛りに御座ります。いづぞやのやうに全き姿に出來上りましても、撞木を當てたはずみに真

二つに相成るやも、まつた、土器の割れるやうな音を發しまするやも計られませぬ。

副使 この度こそ左様な事はよもあるまい。

朴韓味、大博士もそればかりをお心にかけ居られます。銅で作りました鍾に御座いますれば、撞木を當てれば音は發するで御座りませう。なれど、この度の鍾は外の形よりも音色の方に心魂を傾けて居ります。有りきたりの音色では間に合ひませぬ。十二萬斤もある巨鐘が、指ではぢましても般々と鳴り響き、此の世の凡ての罪障を洗ひ淨め、悪鬼羅刹を追ひ拂ひ、社稷を磐石の安きに置き、先王の御仁徳と御偉業を萬代の後までも相傳へるが如き勝れた

禮 世 威

祿事 お口に合ひさうなものと、八方手を

盡しましても、一切口をおつけになりませぬ。

ぬ。

副使 御老體が大業中途で倒れたら何ぞ致す

所存ぢや。取り返しがつくまいぞ。

祿事 歩行も覺束ないほど御衰へなされて博

士が銅釜の側へ近寄らるゝ度に、御足はら

せなば大事ぞと、弟子たちもはらはらして

氣を揉む由に御座ります。殊に六度もお

失敗りなされた後の事とて、御痼癖強くな

られ、些細なことにもお叱りを蒙り弟子た

ちもほとほと弱り抜いて居ります。

この時、下房の中から大博士の低い聲が聞えて来る。

大博士の聲 彌鄒忽、早く湯出しを塞がぬ

か。

鄒鄒忽の聲 は、はい。

大博士の聲 判官。それ、早く水をかけずに

何を見惚れて居る。

さきつと水を注ぐ聲

熱した銅の冷める音。入口の隙間から煙々と湯気が立ち上る。朴韓味、再び出て来る。

副使 首尾は如何ぢや。

朴韓味 は、只今事なく鑄型を外しまして御

座います。罫も入つては居りませぬし、

鐘銘も一字も缺けることなく明瞭り浮き出

て居ります。

鍾のエレミエ

じまする。

副使 京師の若智たちが、またしても、寄り

集まつて参つたと申すか。

朴韓味 今日鑄型を外すといふことを、何處

やらで聞き知つたものと見えまする。初鐘

を聞けば極樂往生ぢやなどと申し、遠く全

羅道から走せつけた女子も居る由に御座り

まする。

中から大博士の上ずつた聲が聞えて来る 『判官、何をくづ

く致して居る。早く水を汲んで來ぬか』

朴韓味 はい、た、た、今！

朴韓味、急いで下房の中へ歸ける。

副使たち四人、汗みづくになつて、水鍾を抱いで出て来る

副使 (事務所に向つて) 祿事。

祿事、(はあ、と答へながら出て来る。鑄型に關する産務を

掌る副使の責務也。

副使 神鍾が出来上つたと聞き、またも俗世

の者たちが集まつて参つたと申すぞ。

祿事 は、直ちに追ひのけまする。

副使 大博士は何か召上られた様子か。

祿事 今日で五日目、一滴の水も召し上つて

は居られませぬ。

副使 あれほど言ひ付け置いたに、お口に合  
はぬものを差し上げるゆゑであらう。

咸世齋

口。

下手に花の繻と、桃李の木二つ三つ。その後方に、白砂を隔てて淵川が流れてゐる。河向ふには肥沃な平野が擴がり、秀麗な小金剛の山頭が、三月の陽光に眠るが如く、更に遠くに奉徳寺の伽藍など。

孝成王は開元二十六年、咸研の年奉徳寺を創建して父王聖德王の冥福を祈るところあつた。弟貞徳王また之に倣ひ、巨鯨を納置して父王の仁徳と偉業を弘めんと志し、この國家的大業に對手したのである。場内には儀式に相應しい裝飾と設備が整美を講じて、見る者に敬虔な嚴肅な氣持を起させる。久しい儀仗に疲れ果てた鑄丁たちの間延びした感嘆や、かあんかあんと河務の難波を破る鐵を踏む聲や、工房の騒音の中に聲聞。

総領檢校副使である若い將軍金剛信が焦燥不安の中に場内を行きつ戻りつしてゐる。

丁房内から老助數(鑄丁頭) 朴韓昧が倏て、飛び出して来る

火氣のために全身がつけよけ汗をかいてゐる。

副使 (駆け寄つて) どうであつた?

朴韓昧 只今博士が鑄型を外せと言ひ付けられた所で御座いまする。

副使 鑄型を? おく、では一區切りついたと申すのだな?

と申すのだな?

朴韓昧 御意に御座りまする。

副使 今度こそは間違ひあるまいなう。

朴韓昧 鑄型を外すまでは何とも申上げ兼ねまする。銘が一字潰れましてもなりませぬし、線が入つたり、傷が出来たり致しましては尙更に御座いますゆえ、はつきり御受合ひ申すわけには参りませぬ。それよりも、裏の人集りを追拂つていたゞき度う存

鐘のエレミエ

第一幕

惠恭王 新羅第三十六代王

滿月夫人 太后、攝政

詩牟那 王の姉

牟羅沙紀姫 日本遣新羅留學生

金隱居 執事部侍中 伊養

金 芭 鑄鏡檢校使 上大等兼兵部令

金體信 同 副使

下 典 同 大博士

彌 鄒 忽 同 次博士

朴 韓 味 同 助教

忠 封 同 判官

一 桑 同 祿事

侍衛部監

その他徒弟、鑄丁、賦役人夫ら大勢

惠恭王六年、庚戌春三月。

唐 大曆五年

日本 稱徳天皇 神護景雲二年。今を距る一、二五六年前

新羅製造成典。

新羅京師、徐羅伎（新羅州）市外を流れる閔川のほとりに假設した鑄鏡工房。

高い土壁に囲まれて内部は見えない。工房の入口には、聖體大王神鏡製造成典と書かれた楯額が掛つて居り、勅記檢校止副使を始め、鈔體に従ふ博士から祿事等の名前が頭恨淋瀝と書き列ねてある。場内には鐵府、木炭、粘土、砂等が到る處に山積して居り、足場、梯子等が蜘蛛の巣のやうに張り廻らされた鑄鏡の一部が見える。上手に鑄鏡事務長の肩額に入

咸世徳

大正四年五月、京畿道仁川に生る。仁川商業学校、昭和十四年、福研學友文藝部に入りしより劇藝活動に携り、十六年「現代劇場」の創立に参加。十七年東京「前進座」演習場に入り、十九年七月、築地小劇場にて、土塚秀仁作「朋友」演出し、同年四月、現代劇場にありて八月、友の間の劇「道僧」「道徳」等の劇作を發表す。



エ  
ミ  
レ  
エ  
の  
鐘

[참고자료 1]

歷史劇·五幕 어밀레鍾

『大東亞』, 1942.7, pp.160~163.

原作 咸世德

出演 現代劇場

[意圖]

文化를 통한 內鮮一體의 歷史的 考察을 해볼려고 했다. 新羅時代에 文物이 百濟와 함께 大和에 輸入된 것이 1,000年 後 오늘날 我國이 大東亞共榮圈의 盟主로 나서게 되는 한 素因이 되지 않았을가? 戲曲이 實로 演劇의 魅力를 못가져 演出者의 食慾을 끄을지 못하는 듯하다. 그것은 事件에 置重함으로 즐거리를 끌고 가기에 汲汲한 닷인 듯하다. 나는 當時의 內鮮 勅使 往來와 鑄鍾 資材 運搬, 鑄鍾 樣相等을 前面에 내고 技工의 勞心과 로-맨스와 또한 口傳되는 傳說을 調味로 하여 實로 演劇의 戲曲을 써보고자 한다.

[梗概]

이야기는 現今 慶州에 保存되 있는 奉德寺 神鍾 鑄造에 關한 것이다. 新羅 景德王 天寶 13年 甲午에 48萬 斤을 되려 皇龍寺 巨鍾을 鑄成한 王은 父王 聖德王의 偉業과 仁德을 後世에 普及코저 銅 十二萬 斤을 敬捨하여 鍾을 供奉코저 하였으나 未就한 채 薨去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惠恭王 乾運에 이르러 大歷 庚戌 克成하여 奉德寺에 安置하였다. 奉德寺는 孝成王 開元 二十六年 戊寅에 聖德王을 爲하여 創建한 절이다. 鍾은 新羅가 唐의 藝術을 輸入하여 그 精巧의 極致를 다한 것으로 現今 考古學者들을 瞠目케 하는 逸品인 것은 周知한 바이지만 이제껏 그 神秘한 鍾聲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가를 解明치 못한 채 있다. 傳說과 같이 어린애를 끌어 넣었기 때문에 어린애가 어미를 원망하고 「어밀레 어밀레」 운다는 것이지만 나는 이 鍾聲의 神秘함은 當時 鑄工의 技術도 좋았거니와 그 資材의 優良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史記에 銅과 眞와 木炭을 어디서 求했다는 것은 一切 없으

니 알 바 없으나, 나는 當時 銅은 內地 九州(當時의 太宰府)의 別府 鑛山에서 가져 왔으리라고 생각한다. 現在 朝鮮서 銅을 產出하는 곳은 咸北 甲山 뿐이다. 勿論 若干의 產出은 各處에 있었겠으나 四十八萬 斤을 消費하고 이어서 十二萬 斤이니 六十萬 斤이 當時의 新羅 國內에서 需要됐을 리가 없다.

惠恭王 五年 十一月 級浪 金初正이 一行 一百八十七人을 끄고 筑紫 大宰府에 니르러 日本 員外右中辨 大伴宿彌伯麻呂[オホトモノスクネハクマロ]와 引見하고 돌아올 때 銅의 下賜를 받았다. 이 銅을 金剛山 產出의 참나무 솓으로 끌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렇게 淸淨하고 平和와 安息을 주게 한 것이라 解釋하고 劇을 짰다. 卽 內鮮 資材의 融合에 民族의 魂이 融合됐으니 오늘날 內鮮一體의 한 방울이 于今 一千年 前부터 흘렀다고 믿는다.

이 史實에 나의 奔放한 空想과 憧憬과 理念을 넣기를 躊躇치 않았다. 簡單이 構成의 아우트-라인을 이야기하면 巨鍾의 落成式日로 幕이 열리되 그날 朝野는 이 國家의 心血 傾注한 鍾을 拜하고저 우아래로 들끌었고 朝廷에서는 宮女를 풀어 祝賀 準備가 萬般되었다. 式은 順調롭게 進陟되어 王命을 받고 鑄鍾 大博士 大奈麻 阿眞이 焦燥와 不安 가운데 木槌를 나리니 鍾은 두 갈래로 破裂됐다.

大驚失色했고 暗淚聲이 四方에서 터졌다. 幼君 惠恭王과 太后 滿月夫人은 不吉한 豫感과 先王에 대한 罪悚으로 震憾했다. 오늘째 벌써 다섯번째다. 克成이 되어 鍾을 치면, 소리가 얹나고, 破裂하고, 鍾銘이 부스러지고 等等. 王은 人材 없음을 노여워했다. 同時에 秋霜같이 鑄鍾師를 갈라고 命했다. 檢校師 大角干 金崑는 唐나라에서 技工을 불으시기를 아뢰었다. 元老들의 輿論은 唐人을 쓰자는 派와 蘇羅伐 사람을 쓰자는 派로 分離하여 甲論乙論 區區하였다. 御前을 물러선 阿眞은 自己의 五十年 뒤은 技術을 發揮 못하고 죽는 슬픔을 遺書한 후 목을 매고 죽었고, 그의 首弟子 彌鄒忽은 스승의 未完된 일을 自己에게 한번만 試驗삼아 맡겨봐 주심사고 檢校使에게 哀乞했다. 檢校使는 頑強히 拒否했으나 王의 누이 詩牟那 公主는 그의 熱과 스승을 섬기는 가혹한 마음에 感激한 한변 열분 戀慕의 情에 이끌리어 王께 아뢰어 이 國家의 大業을 弱冠 二十二歲의 青年에게 맡기게 하였다. 彌鄒忽은 晝夜寢食을 낮고 鑄鍾에 心血을 쏟았으나 亦 鍾은 銅汁을 끄려부을 때 土型이 깨어져 失敗를 보았다. 朝野에서는 반듯이 나라에 憂患

이 있을 거라고 愁心에 쌓였고, 博士는 스승과 自己의 技藝에 失敗 原因을 못찾고 苦惱했다. 資材 浪費로 國庫는 말렸다. 慈仁大師는 西方淨土의 이야기를 끌어 小兒의 犠牲案을 提出했고 朝廷에서는 案이 通過됐다. 百姓들은 鎗器 獻納에 盡力하고 博士는 어린이를 求했다. 어린이를 빼앗긴 젊은 寡婦는 博士에게 「完成을 보기 前에 네 눈이 멀 것이라」고 詛呪했다. 銅汁의 熱度를 되려다보든 鑄鍾師는 溶爐 속에서 어린이에 우는 소래와 뒤에서 寡婦의 淒愴한 詛呪에 眩氣하여 灼熱한 銅汁에 눈이 멀었다.

그를 後援하고 支持하고 사랑하던 公主 詩牟那의 悲痛은 비길 데가 없었다.

일을 一段 中止하기로 決議가 됐다. 詩牟那는 自己가 日本에 가 있었을 때 右大臣 眞麻呂의 딸로 親交가 두텁든 彥姬「ヒコヒメ」에게 부탁하여 侍醫를 불렀다. 現今 世界에 卓越한 日本의 醫術은 當時부터 깊이 發達되어 彌鄒忽의 눈은 快差해갔다. 이것을 안 王은 怒하시었다. 大臣들도 叱難했다.

「一國의 眞骨로 平民에게 허물없이 對하는 것도 許치 못할 일이거늘 하물며 愛情을」 그 前부터 唐皇帝의 아우가 詩牟那를 配偶로 懇請하던 참이라 王은 太后的 말대로 唐國에 入室케 하기로 했다. 詩牟那는 自己의 美貌의 닷이라 생각하고 인두로 불을 지저 新羅 最高의 아름다운 얼굴을 醜惡케 만들었다. 日本 醫博士의 最善으로 彌鄒忽의 눈이 뜰날이 머지 않았다. 詩牟那는 唐慌했다. 눈을 뜨게 되면 自己의 醜顏을 보고 그가 얼마나 失望할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自決할 決心을 하고 職場으로 最後의 離別次 밤중에 찾아 갔다. 일은 繼續되어 鍾은 完成이 가까웠다. 눈이 뜨게 된다는 날 鍾도 완성이 된다는 것이다. 詩牟那의 말 끝에 悲觀과 남의 幸福을 비는 諦念에 가까운 소래를 들은 彌鄒忽은 재치 물었다. 公主는 지금 江으로 죽으러 갈려는 길이라는 것을 告白했다.

彌鄒忽은 조용히 眼帶를 꼈다. 公主가 미칠듯이 붓잡는 손을 뿌리치고 灼熱한 銅汁에 눈을 다시 담갔다.

「내 가슴에는 公主님의 네전 그 아름다운 얼굴이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落成式 鍾聲은 亦 나지 않았다. 檢校使는 칼을 들어 彌鄒忽을 칠려 했다. 公主가 몸소 막고 다시 調査해보니 鍾實(俗稱 부랄)을 素服한 女人이 붓들

고 있었다.

끌여부은 어린애의 어머니였다. 끌어내고 다시 재쳐 鍾을 치니 新羅 千年 푸른 하늘에 不朽의 神秘的 鍾소리가 퍼져 나갔다. 나라에는 비로서 安堵한 빛이 들었다. 鍾聲을 들으며, 公主와 鑄鍾師는 巨濟島 귀양길을 떠났다.

「참고자료 2」

## 『에밀레鍾』을 보고

『조광』 92, 1943.6, pp.102~103.

吳 禎 民

現代劇場이 城寶樂劇隊와 共同으로 上演한 威世德 作 「에밀레鍾」은 쉽게 말하여 좋은 成果를 일우었다.

新春 以來로 上演된 中에서 星群의 「殉愛譜」 이랑의 「砂漠의 王子」 高協의 「三男妹」 그리고 「에밀레鍾」이 朝鮮 演劇界에서는 頭角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는데, 若干의 等差는 있으나 各己 異色 있는 舞臺를 보혀주어, 자칫하면 低下하려는 劇界에 이들 네 劇團은 이른바 支柱的 役割을 遂行한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朝鮮 演劇을 問題삼으려면 아무래도 이들 네 團體를 通觀한 데서 大略의 基準을 設定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西洋이나 內地에서처럼의 演劇理念을 前提로 함이 妥當치 않을 것이며 그러한 高度의 理論을 尺度로 해서는 아모런 結論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그야 이들 네 劇團의 上演 藝題에서 單純히 舞臺上의 現象만을 가지고 缺點을 指摘하는 것처럼 容易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現在 各 劇團마다 各己 個性을 살려가도록 하기 위한 考慮를 일치 않는다는 것 또한 至難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요즘 劇界가 脚本難에서 오는 再上演物이 많고 따라서 劇團으로서의 藝術的인 것보다도 興行的인 것을 主眼으로 하려는 傾向이 濃厚하여, 일견 競演大會에서 쌓어올렸든 理念의 塔이 動搖되고 문어져 가고 있음을 본다. 現在에 있어 가장 緊要한 問題의 하나는 頻繁한 公演과 旺盛한 劇本 消化力에 應해 주어야 할 劇作家 側에서 創作方向에 대한 甚刻한 懷疑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國民演劇으로서의 概念은 오랜 摸索을 거쳐 昨年度 演劇競演大會에서 겨우 把握되었다 하나, 이제 새로운 段階를 마지함에 당하여 從來와는 다른—現實의 內面的 深度와 時局이 要望하는 作品의 積極

性を 어떻게 結付시켜야 할 것인가—하는 昏迷에 빠지고 있다. 이 問題에 대하여는 다른 機會에 詳論하려 하지만 左右間에 昨今の 劇界가 表面上으로는 平穩한 듯이 보이나 事實은 志向을 잃은 頹廢狀態에 있음이 窺知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現代劇場이 「대추나무」에서 보혀주었던 清新한 面貌를 다시 「에밀레鐘」에서 接할 수 있었음은 나로서도 반가웠다.

原作 「에밀레鐘」은 「國民文學」誌上에 連載되었던 것으로 作品에 對한 感想만을 簡單히 적으면—鑄鐘과 人身供養에 關聯하여 民間에 傳來되어온 哀話를 取材한 것으로 作者가 그에 添附하여 鑄鐘師와 新羅 公主와의 地位를 超越한 「사랑」이 谷崎潤一郎의 「春琴抄」式 結末에 到達한다는 一種의 「멜로드라마」的 娛樂性を 노린 것이다. 여기에서 높은 文學性を 차지려는 것은 無理한 일일 것이다. 時代性에 대한 特別한 考察이라든가 人間性에 대한 깊은 洞察에서 나온 것이 못되고 戲曲으로서도 大衆小說的인 平面展開를 試한데 不過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在來의 어느 劇作家의 作品이나 모두가 그러고 보니 「에밀레鐘」만을 가지고 그 以上の 究明을 함이 苛酷하게 생각됨으로 視野의 角度를 轉換시켜 보기로 한다.

「에밀레鐘」의 作者는 複雜한 事件의 要素와 多數의 人物을 登場시켜 劇을 進展시키는 데도 破綻이 없는 老練한 手法을 보혀주었다. 近來의 佳作임에는 누구나 異議 없을 것이다. 現在는 內地에 건너가 前進座 文藝部員으로 있지만 前程에 대한 期待는 莫大하다.

現代劇場으로서는 優秀한 新作과 좋은 企劃 아래 「대추나무」以來로 發揮치 못했던 創造의 意慾을 再燃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推測되는데 舞臺上을 통해서 느껴진 것은 演出이 平凡하였기 때문에 깊은 感銘을 주기에 일이지 못했었다. 「에밀레鐘」과 같은 群衆劇에서는 人物의 性格이 類型的인 旨을 免치 못하는 것이 通例지만 그 概念마저 模糊하여 한 人物의 性格이 場面마다 달라진다. 劇全體로서의 焦點이 없고 各 場面の 人物驅使며 動作配置에 어색한 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演出者가 裝置의 力學性을 잘 認識하여 그것과 演技와의 連結를 考慮해야 할 것이어늘 舞臺와 演技가 融合되지 않았었다.

演技로는 金民子 扮하는 惠恭王이 可憐味가 있었고 姜貞愛 扮하는 滿月夫人은 老熟한 演技였으나 母后로서의 威稟이 적었다. 金陽春 扮하는 詩牟那의 哀痛한 心情은 잘 表現되었으나 李綾花 扮하는 牟羅沙紀의 演技에 若

干 늘렸었다. 李化三扮하는 金崑 徐成大扮하는 金體信의 性格이 分明치 않았다. 姜柱植扮하는 彌鄒忽은 眞摯한 熱意가 보혀 좋은 素質은 있으나 新派調에 흘으지 않도록 戒心할 需要가 있다. 劉桂仙扮하는 李花女의 狂亂에 가까운 슬픔의 高調가 他의 追從을 許치 않는 妙技였다. 金洪吉扮하는 唐皇子 范知는 能熟함을 알 수 있으며 城寶 側으로는 李綾花 金民子和 함께 좋은 素質의 所有者였다.

照明은 問題삼을 餘地가 없으며 金一影 裝置는 第三幕의 內殿이 豪華한 反面에 다른 場面이 貧弱하였다.

이렇게 적고 보니 내가 「에밀레鐘」에서 느낀 感銘은 原作이 가진 妙味를 舞臺上에 無難히 올렸다는 데 不過하다. 「에밀레鐘」에는 彌鄒忽과 詩牟那, 그리고 范知와의 三角關係만을 가지고도 三幕 程度의 劇을 構成할 수 있는 것이며, 鑄鐘과 人身供養만을 取材하여 充分한 哀感을 舞臺化할 수 있는 것이다. 要는 原作이 가진 事件의 興味가 가장 크게 作用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룰 수 없는 것은 現代劇場의 團體로서의 個性이오 團員들의 職業化하지 않은 眞摯한 學究性이 舞臺 全體를 通해서 觀客에게 주는 清新한 印象이다. 現代劇場의 魅力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團體로서의 特徵을 自覺하여 現代劇場은 다른 劇團에는 없는 魅力을 더한층 빛내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劇研 以來로 繼承하여 온 演劇藝術의 純情을 國民演劇으로서의 意慾에까지 昂揚하기 위하여 技術의인 鍊磨를 不斷히 쌓여가기 위한 自主의인 方策을 樹立함이 必要하다.

다른 劇團에 비하여 몇 사람의 演技者를 除하고는 技術의으로 懸隔이 甚하다. 그러나 現代劇場의 全員들은 知的 水準도 現存한 劇界에서는 높은 便이니 眞摯한 學究性和 아울러 이것을 잘 育成해가도록 希望하여 마지 않는다.

「에밀레鐘」은 近間 劇界로는 清新味 있는 企劃이었다.